

석사학위논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관한 연구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김 상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민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val of Occupational Disease
Claim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rom 2014 to 2023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김 상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민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val of Occupational Disease
Claim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rom 2014 to 2023

위 논문을 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김 상 민

김상민의 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두 용 (인)

심 사 위 원 강 태 선 (인)

심 사 위 원 김 민 구 (인)

국 문 초 록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산 업 위 생 공 학 전 공
김 상 민

대부분 국가에서 산재보험 요양통계로 산재 통계를 산출한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통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승인된 사고나 직업병 통계이다. 산재 통계는 사실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 승인을 의해 결정된다. 산재보상 신청과 승인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직업성 질환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산재보상 정책 기조와 세부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신청과 승인

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 요양급여 심사를 처리한 자료였다.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4-2023)간 직업성 질환의 심사 처리 건수는 약 3.4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211건에서 2016년 10,301건으로 소폭 증가한 직업병 심사 처리 건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871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상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 산재보상 확대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처리 건수 증가세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져 2023년도에는 31,666건으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신청 건수의 후행적 지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상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은 승인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율은 2014년 47.7%에서 2016년 46.0%로 정체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59.6%, 2019년 60.6%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까지 이 수준 이상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도에는 57.9%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간 질병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는 근골격계질환 87,207건(일반 근골격계질환 54,258건, 척추질환 32,949건), 난청 34,635건, 호흡기질환 20,705건, 뇌혈관질환 15,525건, 심장질환 5,289건, 악성 신 생물 4,350건, 정신질환/자해행위 3,784건, 피부질환 1,025건 순이었다.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 변화도 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시기(2014-2016)의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은 약 47%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8-2021)에서는 60%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질병별 승인율도 전반적으로는 전체 직업병 승인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병별 증감 추세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근골격계질환과 난청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승인율도 높았다. 일반 근골격계질환은 2014-2016년 57% 수준에서 2018-2021년 75% 수

준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척추질환은 55% 수준에서 2019년에는 70%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63% 수준으로 낮아졌다. 난청은 2014-2016년 6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69%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다시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른 직업성 질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감 폭이 작거나 증감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주요어】 직업성 질환, 산재 건수, 산재보상, 산업재해, 산재 요양급여, 승인율, 직업병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II. 연구 대상 및 방법	3
1. 연구 대상	3
2. 연구 방법	3
III. 연구 결과	5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 및 승인율	5
1.1.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	5
1.2.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승인율	7
1.3. 직업성 질환별 산업재해 요양 승인	9
2. 직업성 질환별 승인 특성	11
2.1. 근골격계질환	11
2.2. 난청	45
2.3. 호흡기질환	62
2.4. 뇌혈관질환	80
2.5. 심장질환	98

2.6. 악성 신생물	115
2.7. 정신질환/자해행위	132
2.8. 피부질환	149
2.9. 그 외 질환	164
 IV. 결 론	 174
 참 고 문 헌	 176
 ABSTRACT	 177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6
〈표 2〉 최근 10년간 질병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0
〈표 3〉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2
〈표 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처리 건수(%)	15
〈표 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승인 건수	17
〈표 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승인율	18
〈표 7〉 사업장 규모의 재분류 기준	19
〈표 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규모별 처리 건수(%)	20
〈표 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21
〈표 10〉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21
〈표 1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23
〈표 12〉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25
〈표 1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승인율	26
〈표 1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처리 건수(%)	27
〈표 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승인 건수	28
〈표 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승인율	28
〈표 17〉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30
〈표 1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32
〈표 1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34
〈표 20〉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35
〈표 2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36
〈표 22〉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37
〈표 2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37
〈표 2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39
〈표 2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41

〈표 2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42
〈표 2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43
〈표 2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및 승인율	44
〈표 2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승인율	44
〈표 30〉 연도별 난청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45
〈표 31〉 난청의 업종별 처리 건수(%)	48
〈표 32〉 난청의 업종별 승인 건수	51
〈표 33〉 난청의 업종별 승인율	52
〈표 34〉 난청의 규모별 처리 건수(%)	53
〈표 35〉 난청의 규모별 승인 건수	54
〈표 36〉 난청의 규모별 승인율	55
〈표 37〉 난청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56
〈표 38〉 난청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58
〈표 39〉 난청의 연령대별 승인율	59
〈표 40〉 난청의 성별 처리 건수(%)	60
〈표 41〉 난청의 성별 승인 건수	61
〈표 42〉 난청의 성별 승인율	61
〈표 43〉 연도별 호흡기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63
〈표 44〉 처리 건수 상위 8개 직업성 질환별 2014년 대비 2023년 승인율 · 63	
〈표 45〉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65
〈표 46〉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67
〈표 47〉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68
〈표 48〉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처리 건수(%)	69
〈표 49〉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승인 건수	70
〈표 50〉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승인율	71
〈표 51〉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72
〈표 52〉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74
〈표 53〉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75
〈표 54〉 호흡기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76

〈표 55〉 호흡기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77
〈표 56〉 호흡기질환의 성별 승인율	77
〈표 57〉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78
〈표 58〉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79
〈표 59〉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80
〈표 60〉 연도별 뇌혈관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81
〈표 61〉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83
〈표 62〉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85
〈표 63〉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86
〈표 64〉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87
〈표 65〉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88
〈표 66〉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88
〈표 67〉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90
〈표 68〉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92
〈표 69〉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93
〈표 70〉 뇌혈관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94
〈표 71〉 뇌혈관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95
〈표 72〉 뇌혈관질환의 성별 승인율	95
〈표 73〉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96
〈표 74〉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97
〈표 75〉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97
〈표 76〉 연도별 심장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98
〈표 77〉 심장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100
〈표 78〉 심장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102
〈표 79〉 심장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103
〈표 80〉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104
〈표 81〉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105
〈표 82〉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105
〈표 83〉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107

〈표 84〉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109
〈표 85〉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110
〈표 86〉 심장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111
〈표 87〉 심장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112
〈표 88〉 심장질환의 성별 승인율	112
〈표 89〉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113
〈표 90〉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114
〈표 91〉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114
〈표 92〉 연도별 악성 신생물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15
〈표 93〉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처리 건수(%)	117
〈표 94〉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승인 건수	119
〈표 95〉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승인율	120
〈표 96〉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121
〈표 97〉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122
〈표 98〉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122
〈표 99〉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124
〈표 100〉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126
〈표 101〉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승인율	127
〈표 102〉 악성 신생물의 성별 처리 건수(%)	128
〈표 103〉 악성 신생물의 성별 승인 건수	129
〈표 104〉 악성 신생물의 성별 승인율	129
〈표 105〉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130
〈표 106〉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131
〈표 107〉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131
〈표 108〉 연도별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32
〈표 109〉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처리 건수(%)	134
〈표 11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승인 건수	136
〈표 111〉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승인율	137
〈표 112〉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138

〈표 113〉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139
〈표 114〉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139
〈표 115〉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141
〈표 116〉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143
〈표 117〉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승인율	144
〈표 118〉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처리 건수(%)	145
〈표 119〉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승인 건수	146
〈표 12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승인율	146
〈표 121〉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147
〈표 122〉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148
〈표 123〉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148
〈표 124〉 연도별 피부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49
〈표 125〉 피부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151
〈표 126〉 피부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153
〈표 127〉 피부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154
〈표 128〉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155
〈표 129〉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156
〈표 130〉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156
〈표 131〉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158
〈표 132〉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160
〈표 133〉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161
〈표 134〉 피부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162
〈표 135〉 피부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163
〈표 136〉 피부질환의 성별 승인율	163
〈표 137〉 피부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164
〈표 138〉 연도별 독성감염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65
〈표 139〉 연도별 석면폐증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66
〈표 140〉 연도별 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67

〈표 141〉 연도별 진동으로 인한 증상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	168
〈표 142〉 연도별 기타 간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69
〈표 143〉 연도별 안면신경 마비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70
〈표 144〉 연도별 안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71
〈표 145〉 연도별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72
〈표 146〉 연도별 진폐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173

그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6
[그림 2] 연도별 직업성 질환 산재 요양 승인율	8
[그림 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처리 건수와 승인 건수	12
[그림 4] 직업성 질환 전체 평균 승인율과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율	13
[그림 5]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30
[그림 6] 직업성 질환별 처리 건수 증가율	46
[그림 7] 난청의 업종별 처리 건수 증가 추이	50
[그림 8] 호흡기질환 성별 승인율 변화 추이	78
[그림 9] 악성 신생물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116
[그림 1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133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는 치료나 재활 그리고 생계 등을 위한 보상을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도에 도입된 이래 그 적용 범위와 보상 대상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확대되어, 이제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여, 근무시간 또는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 발생 장소나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여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다.

직업성 질환의 경우, 급성중독과 같은 사고성 재해 이외에는 어느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질환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즉, 보상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업무적 요인과 질병 간 인과성 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업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질병 이외에는 산재보상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고, 산재보상을 인정받기 위한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에 비하여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직업성 질환도 산재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지속 증가해 왔다. 기존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산재보상 요양급여 신청의 판단기준을 완화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증으로의 입증책임 전환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요구도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산재보상 정책이나 기준도 지속 완화해 왔다. 직업성 질병의 산재보상을 판단하는 인과 관계에 ‘추정의 원칙’ 등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은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는 직업성 질환의 신청 건수와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요양 급여 승인율의 변화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논란과 함께 관련된 정책 변화가 많았던 최근 10년간,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요양급여 심사 건수와 승인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건수 및 승인율 변화 추이와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 정책은 물론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산업재해 요양 신청 건 중 심사가 완료된 176,509건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처리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제공받은 자료로, 재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 인정 후 취소되거나, 추가 신청되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연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등 1차 심사 처리한 직업성 질환 산재 요양 신청 건수는 총 176,509건이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는 분류인 업종, 사업장 규모, 지역, 연령대, 성별, 사망 여부, 승인 구분 등 일곱 가지 항목으로 직업성 질환 승인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4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세 업종분류의 자료만 보유하고 대분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른 연도의 상세 업종분류를 참고하여 업종을 분류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내 자료의 부재로 분석하지 못하는 2016년 사업장 규모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를 총 대상 건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2015년까지 법령에 있었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 구분을 참고하여 규모를 재분류하였다. 정신질환/자해행위(자살 포함) 분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환/자해행위로 통합하여 분류되기도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구분인 정신질환/자해행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하고, 해당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1차 처리한 이후 재승인, 추가 승인, 승인 취소 등 변경된 이력을 반영하고 있고, 사고성 요통을 업무상 재해 통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개별 직업성 질환 군의 통계가 아닌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를 기반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성 질환을 분류한 직업성 질환 군을 기반으로 각 질병의 처리와 승인율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 및 승인율

1.1.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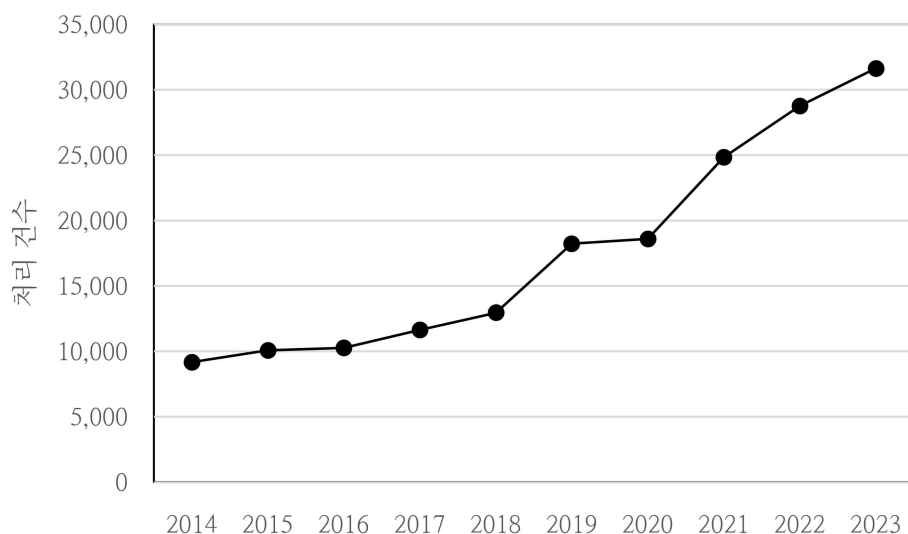
2014년~202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 직업성 질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6,509건으로 연평균 17,651건이었다. 10년간 처리한 176,509건 중 산재 요양급여를 승인한 건은 102,269건, 불승인한 건은 74,240건으로 승인율은 57.9%였다.

2014년 9,211건이었던 직업성 질환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1,66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

산재 요양급여 처리 건수 증가는 그만큼 신청 건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승인율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당해 연도 신청 기준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성 질환의 요양급여를 승인 또는 불승인 판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점과 승인 또는 불승인을 처리하는 시점 간에는 시차가 있다. 특히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처리까지의 시간은 사고성 재해에 비해 큰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전반적인 직업성 질환의 연도별 승인율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차 처리한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산재 요양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1차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직업성 질환의 연도별 처리 및 승인율을 파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산재 요양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1차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한 것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등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처리 결과(%)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승인(%)	불승인(%)
2014	9,211	—	4,391 (47.7)	4,820 (52.3)
2015	10,117	10	4,841 (47.9)	5,276 (52.1)
2016	10,301	2	4,741 (46.0)	5,560 (54.0)
2017	11,672	13	5,981 (51.2)	5,691 (48.8)
2018	12,975	11	7,733 (59.6)	5,242 (40.4)
2019	18,266	41	11,075 (60.6)	7,191 (39.4)
2020	18,634	2	11,432 (61.4)	7,202 (38.6)
2021	24,871	33	15,699 (63.1)	9,172 (36.9)
2022	28,796	16	18,043 (62.7)	10,753 (37.3)
2023	31,666	10	18,333 (57.9)	13,333 (42.1)
합계	176,509	—	102,269 (57.9)	74,240 (42.1)
연평균	17,651	—	10,227 (57.9)	7,424 (42.1)



[그림 1] 연도별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증가율 추세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전년 대비 41%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 33% 증가하는 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직업성 질환의 처리 건수는 연도별로 약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직업성 질환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범위나 승인에 관한 정책적 영향과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19년과 2021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41%와 33%로 크게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승인 등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한 정책과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기대감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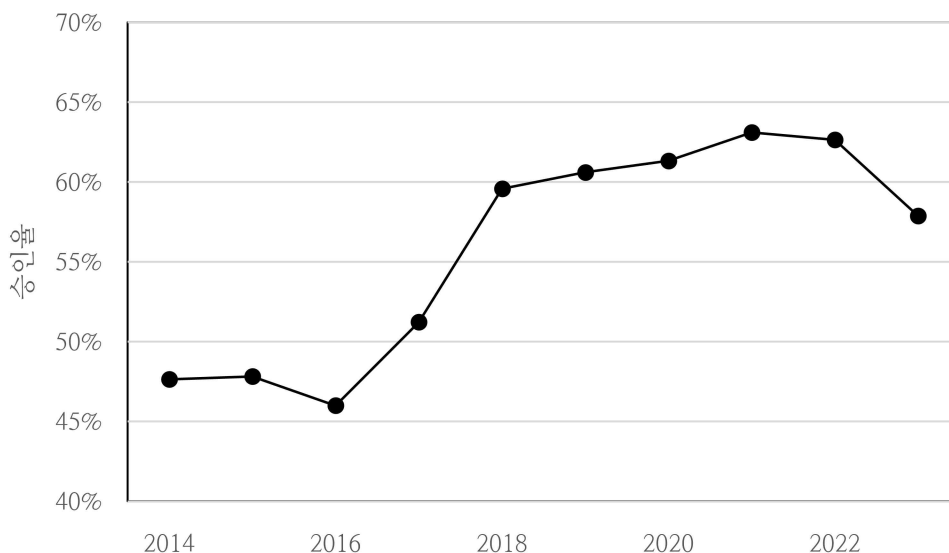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의 경우, 일단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특정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당분간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및 처리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은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매년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나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경우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최근 10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 직업성 질환의 산재 요양급여의 승인은 <표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약 47% 수준으로 50%보다 낮았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50%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2021년 63.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2016년까지 직업성 질환 산재 승인율이 40% 후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의 산재보상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17년에 전년 대비 5.2%, 2018년에 8.4%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8년까지 정부의 정책적 변화로 직업성 질환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 산업재해 신청 부담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승인율이 0.4%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4.8% 감소하여 승인율이 57.9%로 2019년 이후 유지되어 오던 60%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은 2022년부터 산재 요양 승인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등 산재보상에 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산재 승인율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2021년 이후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 다만 2021년에도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때도 승인율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2023년도에는 처리 건수가 전년도와 거의 같았지만 승인율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승인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연도별 직업성 질환 산재 요양 승인율.

1.3. 직업성 질환별 산업재해 요양 승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가 연간 1천 건이 넘는 직업성 질환은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이외 및 척추질환), 난청,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이었으며, 1백 건이 넘는 질환은 심장질환, 악성 신생물(암), 정신질환/자해행위, 피부질환이었다. 연간 40~50건 정도 처리되는 직업성 질환은 독성감염, 석면폐증,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 등이었다. 진동으로 인한 증상, 기타 간질환, 안면신경 마비, 안질환,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 진폐가 그 뒤를 이었다(〈표 3〉 참고).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가 가장 많았던 근골격계질환을 세부적으로 척추질환과 그 외 질환으로 나눠보면, 척추질환을 제외한 근골격계질환, 즉 일반 근골격계질환이 연평균 5,426건, 척추질환, 즉 요청이 3,295건이었다. 척추질환은 연평균 3,464건인 난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질환이었다. 근골격계질환과 난청을 합치면 전체 처리 건수의 6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두 질환이 추정의 원칙으로 입증 부담이 덜하고,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직관적으로 질환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평균 1천 건 이상 처리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척추질환 외), 난청,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등 이 다섯 개 질환의 처리 비중이 전체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 연평균 1백 건 이상 처리된 심장질환(3.0%), 악성 신생물(2.5%), 정신질환/자해행위(2.1%), 피부질환(0.6%)을 더하면 총 97.7%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질환은 총 2.3% 비중으로 처리되었다. 이 질환들의 개별 처리 건은 1% 미만이었다.

〈표 2〉 최근 10년간 질병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번	질병명	처리 건수(%)	승인(%)	불승인(%)	연평균 처리 건수
1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외	54,258(100)	38,307(70.6)	15,951(29.4)	5,426
	척추질환	32,949(100)	20,670(62.7)	12,279(37.3)	3,295
	소계	87,207(100)	58,977(67.6)	28,230(32.4)	8,721
2	난청	34,635(100)	21,592(62.3)	13,043(37.7)	3,464
3	호흡기질환	20,705(100)	7,223(34.9)	13,482(65.1)	2,071
4	뇌혈관질환	15,525(100)	5,157(33.2)	10,368(66.8)	1,553
5	심장질환	5,289(100)	1,794(33.9)	3,495(66.1)	529
6	악성 신생물	4,350(100)	2,740(63.1)	1,610(37.0)	435
7	정신질환/ 자해행위	3,784(100)	2,383(63.0)	1,401(37.0)	378
8	피부질환	1,025(100)	680(66.3)	345(33.7)	103
9	독성감염	486(100)	339(69.8)	147(30.2)	49
10	석면폐증	443(100)	212(47.9)	231(52.1)	44
11	온열질환	399(100)	300(75.2)	99(24.8)	40
12	진동으로 인한 증상	376(100)	164(43.6)	212(56.4)	38
13	기타 간질환	314(100)	150(47.8)	164(52.2)	31
14	안면신경 마비	287(100)	32(11.1)	255(88.9)	29
15	안질환	270(100)	67(24.8)	203(75.2)	27
16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	118(100)	94(79.7)	24(20.3)	12
17	진폐	78(100)	36(46.2)	42(53.8)	8
18	기타	1,218(100)	329(27.0)	889(52.1)	122
합계		176,509(100)	102,269(57.9)	74,240(42.1)	17,651

2. 직업성 질환별 승인 특성

2.1. 근골격계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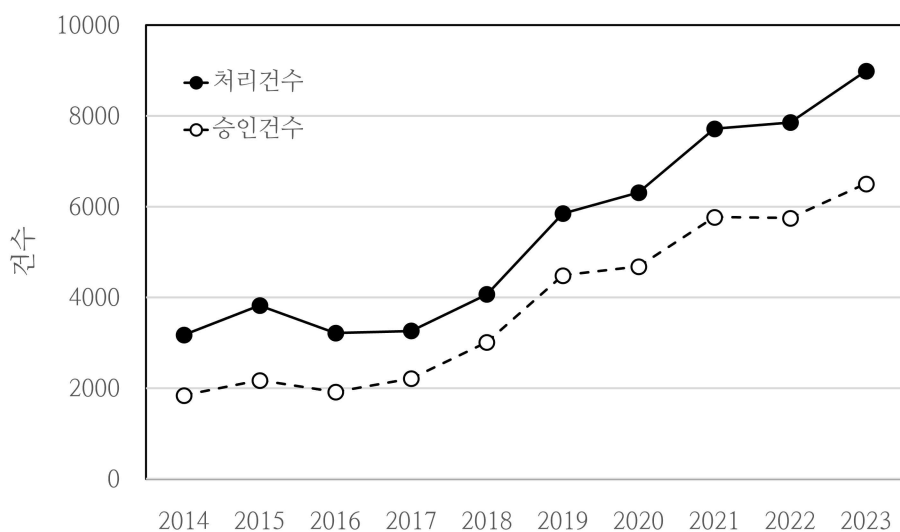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었으며, 근골격계질환은 크게 척추질환 외의 근골격계질환과 척추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팔이나 어깨, 목 등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근골격계질환을 말하며, 후자는 요통, 특히 척추의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을 말한다.

2.1.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많은 처리 건수(54,258건)를 기록한 질환이다. 처리 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으며, 승인 건수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이 질환은 연간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에서 전체 승인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승인율도 62.7%로 연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 다섯 번째로 높아 근골격계질환은 승인율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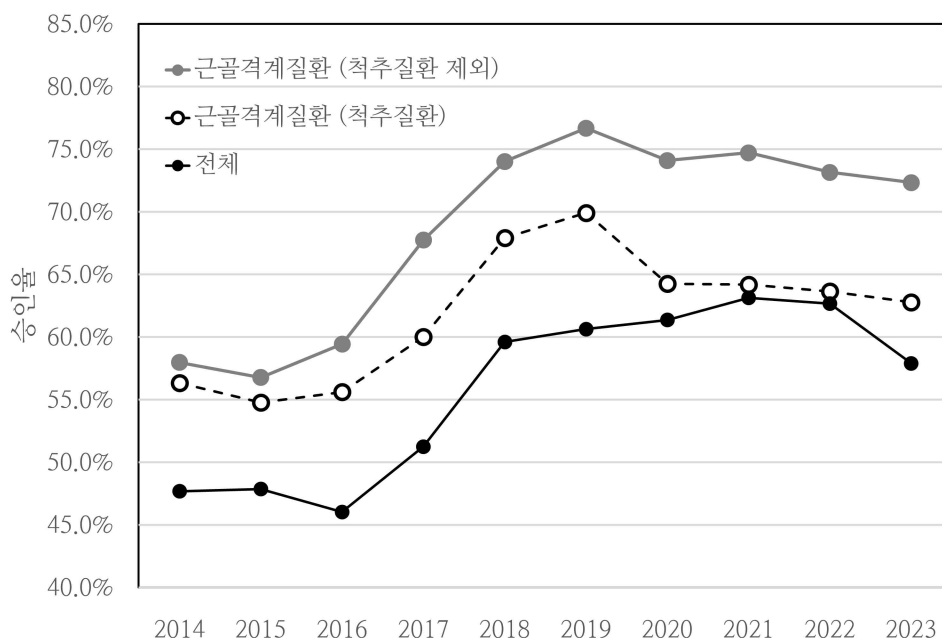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3,173 (100)	1,839 (58.0)	1,334 (42.0)
2015	3,823 (100)	2,170 (56.8)	1,653 (43.2)
2016	3,217 (100)	1,912 (59.4)	1,305 (40.6)
2017	3,260 (100)	2,208 (67.7)	1,052 (32.3)
2018	4,066 (100)	3,009 (74.0)	1,057 (26.0)
2019	5,847 (100)	4,482 (76.7)	1,365 (23.3)
2020	6,312 (100)	4,676 (74.1)	1,636 (25.9)
2021	7,717 (100)	5,765 (74.7)	1,952 (25.3)
2022	7,853 (100)	5,744 (73.1)	2,109 (26.9)
2023	8,990 (100)	6,502 (72.3)	2,488 (27.7)
합계	54,258 (100)	38,307 (70.6)	15,951 (29.4)



[그림 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처리 건수와 승인 건수.

근골격계질환은 척추질환과 그 외 질환 모두 승인율이 전체 승인율보다는 높았다. 이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이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 상승한 데 반해, 근골격계질환은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이 현 정부 정책으로는 포화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직업성 질환 전체 평균 승인율과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율.

척추질환 외 근골격계질환에서 가장 많이 직업성 질환 산재 요양 처리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건설업의 처리 건수는 9.17배 증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처리 건의 증가 폭이 컸다. 광업은 2024년에 처리 건수가 2014년 대비 37.7% 수준으로 감소하여 근골격계 척추질환과 차이가 있었다. 광업의 근로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추후 처리 건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척추질환 외의 근골격계질환에서 건설업의 승인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2021년까지 유지했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3년 85.1%였다. 광업은 처리 건

수는 감소하였으나, 승인율은 2016년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2017년 61.5%로 전년 대비 25.6% 상승하였다. 기타의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승인율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기타의사업은 2014년 대비 승인율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제조업은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80.7%로 최고 승인율을 기록한 후 2020년 이후 75~77%의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신체 노동 강도가 강한 건설업, 제조업의 승인율이 높은 편이었고, 광업도 2015년~2016년을 제외하면 승인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대상 직종에 건설, 조선, 자동차, 제조업, 배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택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업, 기타의사업, 제조업의 승인율이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3,173 (100)	269 (8.5)	130 (4.1)	13 (0.4)	1,103 (34.8)	10 (0.3)
2015	3,823 (100)	333 (8.7)	574 (15.0)	6 (0.2)	1,139 (29.8)	10 (0.3)
2016	3,217 (100)	327 (10.2)	184 (5.7)	12 (0.4)	1,055 (32.8)	11 (0.3)
2017	3,260 (100)	357 (11.0)	273 (8.4)	8 (0.2)	1,002 (30.7)	8 (0.2)
2018	4,066 (100)	448 (11.0)	341 (8.4)	9 (0.2)	1,185 (29.1)	20 (0.5)
2019	5,847 (100)	897 (15.3)	230 (3.9)	10 (0.2)	2,028 (34.7)	14 (0.2)
2020	6,312 (100)	1,021 (16.2)	134 (2.1)	8 (0.1)	2,104 (33.3)	22 (0.3)
2021	7,717 (100)	1,316 (17.1)	90 (1.2)	18 (0.2)	2,456 (31.8)	19 (0.2)
2022	7,853 (100)	1,599 (20.4)	64 (0.8)	10 (0.1)	2,534 (32.3)	26 (0.3)
2023	8,990 (100)	2468 (27.5)	49 (0.5)	17 (0.2)	2,646 (29.4)	18 (0.2)
합계	54,258 (100)	9035 (16.7)	2,069 (3.8)	111 (0.2)	17,252 (31.8)	158 (0.3)

〈표 4〉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3,173 (100)	2 (0.1)	88 (2.8)	7 (0.2)	2 (0.1)	1,542 (48.6)	7 (0.2)
2015	3,823 (100)	2 (0.1)	116 (3.0)	18 (0.5)	2 (0.1)	1,621 (42.4)	2 (0.1)
2016	3,217 (100)	2 (0.1)	136 (4.2)	13 (0.4)	2 (0.1)	1,472 (45.8)	0 (0.0)
2017	3,260 (100)	0 (0.0)	102 (3.1)	9 (0.3)	3 (0.1)	1,498 (46.0)	0 (0.0)
2018	4,066 (100)	2 (0.0)	156 (3.8)	9 (0.2)	0 (0.0)	1,894 (46.6)	2 (0.0)
2019	5,847 (100)	0 (0.0)	192 (3.3)	20 (0.3)	2 (0.0)	2,452 (41.9)	2 (0.0)
2020	6,312 (100)	3 (0.0)	243 (3.8)	14 (0.2)	5 (0.1)	2,756 (43.7)	2 (0.0)
2021	7,717 (100)	2 (0.0)	313 (4.1)	12 (0.2)	8 (0.1)	3,479 (45.1)	4 (0.1)
2022	7,853 (100)	2 (0.0)	288 (3.7)	15 (0.2)	9 (0.1)	3,305 (42.1)	1 (0.0)
2023	8,990 (100)	1 (0.0)	324 (3.6)	17 (0.2)	3 (0.0)	3,445 (38.3)	2 (0.0)
합계	54,258 (100)	16 (0.0)	1,958 (3.6)	134 (0.2)	36 (0.1)	23,464 (43.2)	22 (0.0)

〈표 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 및상수 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839	189	95	9	544	2	1	41	4	1	953	0
2015	2,170	251	213	4	585	4	1	55	10	2	1,045	0
2016	1,912	257	66	5	528	6	1	61	10	1	977	-
2017	2,208	301	168	6	579	5	-	54	5	2	1,088	-
2018	3,009	384	247	7	771	11	2	96	9	-	1,482	0
2019	4,482	786	175	4	1,389	9	-	124	17	0	1,978	0
2020	4,676	895	94	4	1,348	19	3	149	14	4	2,146	0
2021	5,765	1,156	66	8	1,604	9	2	204	9	4	2,703	0
2022	5,744	1,368	54	6	1,570	19	1	150	8	8	2,560	0
2023	6,502	2,100	36	8	1,589	5	1	158	13	2	2,590	0
합계	38,307	7,687	1,214	61	10,507	89	12	1,092	99	24	17,522	0

〈표 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 및상수 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8.0	70.3	73.1	69.2	49.3	20.0	50.0	46.6	57.1	50.0	61.8	0.0
2015	56.8	75.4	37.1	66.7	51.4	40.0	50.0	47.4	55.6	100	64.5	0.0
2016	59.4	78.6	35.9	41.7	50.0	54.5	50.0	44.9	76.9	50.0	66.4	-
2017	67.7	84.3	61.5	75.0	57.8	62.5	-	52.9	55.6	66.7	72.6	-
2018	74.0	85.7	72.4	77.8	65.1	55.0	100	61.5	100	-	78.2	0.0
2019	76.7	87.6	76.1	40.0	68.5	64.3	-	64.6	85.0	-	80.7	0.0
2020	74.1	87.7	70.1	50.0	64.1	86.4	100	61.3	100	80.0	77.9	0.0
2021	74.7	87.8	73.3	44.4	65.3	47.4	100	65.2	75.0	50.0	77.7	0.0
2022	73.1	85.6	84.4	60.0	62.0	73.1	50.0	52.1	53.3	88.9	77.5	0.0
2023	72.3	85.1	73.5	47.1	60.1	27.8	100	48.8	76.5	66.7	75.2	0.0
전체	70.6	85.1	58.7	55.0	60.9	56.3	75.0	55.8	73.9	66.7	74.7	0.0

큰 틀에서 산업재해 요양 처리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규모를 2014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포함되어 있던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 기준을 참고하여 재분류하였다. 2016년은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은 다른 질환을 분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7〉 사업장 규모의 재분류 기준

근로복지공단 구분 명	재분류 명
5인 미만	소기업
5~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중기업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대기업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척추질환을 제외한 근골격계질환은 소기업이 총 25,0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업, 중기업 순이었다. 소기업은 2020년 이후 50% 아래로 비율이 내려왔고, 2022년은 전년 대비 처리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단 한번 처리 건수의 감소 없이 증가를 지속했다. 중기업은 2014년 16.7%의 비율이었으나 2018년 처음 19%를 넘겼고 이후 20%에 근접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표 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3,173 (100)	739 (23.3)	531 (16.7)	1,890 (59.6)	13 (0.4)
2015	3,823 (100)	1,067 (27.9)	694 (18.2)	2,058 (53.8)	4 (0.1)
2016	(3,217)	—	—	—	—
2017	3,260 (100)	916 (28.1)	598 (18.3)	1,737 (53.3)	9 (0.3)
2018	4,066 (100)	1,253 (30.8)	780 (19.2)	2,030 (49.9)	3 (0.1)
2019	5,847 (100)	1,731 (29.6)	1,132 (19.4)	2,984 (51.0)	0 (0.0)
2020	6,312 (100)	1,964 (31.1)	1,226 (19.4)	3,122 (49.5)	0 (0.0)
2021	7,717 (100)	2,525 (32.7)	1,542 (20.0)	3,650 (47.3)	0 (0.0)
2022	7,853 (100)	2,697 (34.3)	1,516 (19.3)	3,640 (46.4)	0 (0.0)
2023	8,990 (100)	3,191(35.5)	1,814 (20.2)	3,985 (44.3)	0 (0.0)
합계	48,041 (100)	16,083 (31.5)	9,833 (19.3)	25,096 (49.2)	29 (0.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 승인율은 전 규모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기업이 2021년 일시적으로 상승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 이후 승인율이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고 소기업은 전 기간 낮았다. 근골격계질환은 척추질환과 그 외 질환 모두 대기업의 승인율이 소기업보다 높았다.

〈표 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839	490	308	1,037	4
2015	2,170	622	374	1,173	1
2016	1,912	—	—	—	—
2017	2,208	644	404	1,155	5
2018	3,009	960	584	1,465	0
2019	4,482	1,376	857	2,249	—
2020	4,676	1,526	886	2,264	—
2021	5,765	1,925	1,179	2,661	—
2022	5,744	2,045	1,104	2,595	—
2023	6,502	2,402	1,296	2,804	—
합계	38,307	11,990	6,992	17,403	10

〈표 10〉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6.3	60.6	49.2	56.4	30.8
2015	54.8	60.2	51.9	53.3	25.0
2016	55.6	—	—	—	—
2017	60.0	64.5	58.8	58.5	55.6
2018	67.9	75.8	67.4	63.6	0.0
2019	69.9	74.0	67.1	68.2	—
2020	64.2	67.5	63.1	62.3	—
2021	64.2	67.1	62.2	62.6	—
2022	63.6	66.9	64.5	60.2	—
2023	62.8	69.0	61.7	58.0	—
합계	62.7	67.9	61.9	60.5	34.5

40~60대는 전체 처리 건수의 84.8%를 차지하였다. 2030 세대의 처리 건수의 비중은 11.6%였으며, 두 연령대 모두 2014년 대비 2023년 처리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40대와 50대는 처리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60대가 약 8배 처리 건수가 증가하며 비중이 일부 감소했다. 60대는 2022년부터 가장 많이 처리된 연령대가 되었다. 70대는 전체 비중은 크지 않으나, 2014년 대비 약 21배 증가하며 20대의 처리 건수를 넘어섰으며, 그 증가세가 심화하고 있다.

20대는 매년 총 승인율보다는 낮았고, 2020년에는 최대 27.5% 차이가 발생했다. 30대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 총 승인율보다 낮았다. 40대는 다른 연령대 대비 총 승인율과 수치상으로 가장 유사했다. 2015년 최대 4.6%의 차이가 났으며, 2019년부터는 차이가 1% 미만이다. 50대는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은 승인율을 보였으며, 60대는 2018년 이전에는 총 승인율보다 낮았지만 이후 근소한 차이로 총 승인율을 역전하였다. 70대는 2015년 최저 승인율인 17.4%를 보인 이후 상승하여 총 승인율에 근접한 수치가 되었다. 20대~30대의 승인율이 40대 이상의 승인율보다 낮은 것은 추정의 원칙에서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추정의 원칙은 근무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부위인 팔꿈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외에는 보통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업종에 오래 근무한 40대 이상이 통상적으로 승인율이 높을 것이다.

〈표 1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3,173 (100)	4 (0.1)	133 (4.2)	406 (12.8)	977 (30.8)	1,227 (38.7)
2015	3,823 (100)	2 (0.1)	117 (3.1)	436 (11.4)	897 (23.5)	1,514 (39.6)
2016	3,217 (100)	3 (0.1)	149 (4.6)	427 (13.3)	854 (26.5)	1,268 (39.4)
2017	3,260 (100)	0 (0.0)	105 (3.2)	360 (11.0)	743 (22.8)	1,299 (39.8)
2018	4,066 (100)	3 (0.1)	124 (3.0)	404 (9.9)	936 (23.0)	1,546 (38.0)
2019	5,847 (100)	2 (0.0)	177 (3.0)	510 (8.7)	1,197 (20.5)	2,297 (39.3)
2020	6,312 (100)	0 (0.0)	191 (3.0)	576 (9.1)	1,360 (21.5)	2,308 (36.6)
2021	7,717 (100)	3 (0.0)	204 (2.6)	616 (8.0)	1,600 (20.7)	2,677 (34.7)
2022	7,853 (100)	1 (0.0)	162 (2.1)	509 (6.5)	1,439 (18.3)	2,602 (33.1)
2023	8,990 (100)	1 (0.0)	144 (1.6)	538 (6.0)	1,548 (17.2)	3,023 (33.6)
합계	54,258 (100)	19 (0.0)	1,506 (2.8)	4,782 (8.8)	11,551 (21.3)	19,761 (36.4)

〈표 11〉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3,173 (100)	401 (12.6)	24 (0.8)	1 (0.0)	0 (0.0)
2015	3,823 (100)	785 (20.5)	69 (1.8)	3 (0.1)	0 (0.0)
2016	3,217 (100)	490 (15.2)	26 (0.8)	0 (0.0)	0 (0.0)
2017	3,260 (100)	704 (21.6)	47 (1.4)	2 (0.1)	0 (0.0)
2018	4,066 (100)	960 (23.6)	90 (2.2)	3 (0.1)	0 (0.0)
2019	5,847 (100)	1,534 (26.2)	127 (2.2)	3 (0.1)	0 (0.0)
2020	6,312 (100)	1,716 (27.2)	160 (2.5)	1 (0.0)	0 (0.0)
2021	7,717 (100)	2,283 (29.6)	328 (4.3)	6 (0.1)	0 (0.0)
2022	7,853 (100)	2,622 (33.4)	501(6.4)	17 (0.2)	0 (0.0)
2023	8,990 (100)	3,231 (35.9)	498 (5.5)	7 (0.1)	0 (0.0)
합계	54,258 (100)	14,726 (27.1)	1,870 (3.4)	43 (0.1)	0 (0.0)

〈표 12〉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839	3	64	224	583	733	224	8	0	—
2015	2,170	0	44	253	551	931	379	12	0	—
2016	1,912	1	61	260	531	792	259	8	—	—
2017	2,208	—	57	220	515	941	453	21	1	—
2018	3,009	2	66	273	704	1,199	704	60	1	—
2019	4,482	1	105	377	909	1,798	1,208	82	2	—
2020	4,676	—	89	387	1,011	1,806	1,285	97	1	—
2021	5,765	1	105	415	1,209	2,053	1,787	192	3	—
2022	5,744	0	85	341	1,052	1,953	1,970	335	8	—
2023	6,502	1	62	329	1,115	2,241	2,406	345	3	—
합계	38,307	9	738	3,079	8,180	14,447	10,675	1,160	19	—

〈표 1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8.0	75.0	48.1	55.2	59.7	59.7	55.9	33.3	0.0	-
2015	56.8	0.0	37.6	58.0	61.4	61.5	48.3	17.4	0.0	-
2016	59.4	33.3	40.9	60.9	62.2	62.5	52.9	30.8	-	-
2017	67.7	-	54.3	61.1	69.3	72.4	64.3	44.7	50	-
2018	74.0	66.7	53.2	67.6	75.2	77.6	73.3	66.7	33.3	-
2019	76.7	50.0	59.3	73.9	75.9	78.3	78.7	64.6	66.7	-
2020	74.1	-	46.6	67.2	74.3	78.2	74.9	60.6	100	-
2021	74.7	33.3	51.5	67.4	75.6	76.7	78.3	58.5	50.0	-
2022	73.1	0.0	52.5	67.0	73.1	75.1	75.1	66.9	47.1	-
2023	72.3	100	43.1	61.2	72.0	74.1	74.5	69.3	42.9	-
합계	70.6	47.4	49.0	64.4	70.8	73.1	72.5	62.0	44.2	-

남성과 여성 모두 처리 건수가 약 3배 증가하여 성별에 따른 처리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3,173 (100)	2,286 (72.0)	887 (28.0)
2015	3,823 (100)	2,926 (76.5)	897 (23.5)
2016	3,217 (100)	2,391 (74.3)	826 (25.7)
2017	3,260 (100)	2,442 (74.9)	818 (25.1)
2018	4,066 (100)	3,115 (76.6)	951 (23.4)
2019	5,847 (100)	4,228 (72.3)	1,619 (27.7)
2020	6,312 (100)	4,640 (73.5)	1,672 (26.5)
2021	7,717 (100)	5,590 (72.4)	2,127 (27.6)
2022	7,853 (100)	5,705 (72.6)	2,148 (27.4)
2023	8,990 (100)	6,508 (72.4)	2,482 (27.6)
합계	54,258 (100)	39,831 (73.4)	14,427 (26.6)

남성의 승인율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은 데 반해, 여성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았으며, 2021년부터는 그 격차가 다소 벌어지고 있다. 총 승인율과 남성의 승인율이 2021년 대비 2023년에 각각 2.4%, 2% 떨어졌으나, 여성의 승인율은 5.8% 떨어졌다.

〈표 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1,839	1,402	437
2015	2,170	1,726	444
2016	1,912	1,489	423
2017	2,208	1,723	485
2018	3,009	2,386	623
2019	4,482	3,341	1,141
2020	4,676	3,558	1,118
2021	5,765	4,328	1,437
2022	5,744	4,363	1,381
2023	6,502	4,969	1,533
합계	38,307	29,285	9,022

〈표 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58.0	61.3	49.3
2015	56.8	59.0	49.5
2016	59.4	62.3	51.2
2017	67.7	70.6	59.3
2018	74.0	76.6	65.5
2019	76.7	79.0	70.5
2020	74.1	76.7	66.9
2021	74.7	77.4	67.6
2022	73.1	76.5	64.3
2023	72.3	76.4	61.8
합계	70.6	73.5	62.5

척추질환 외 근골격계질환에서 전 기간 사망 관련 처리는 2건이었으며, 따라서 승인율은 총 승인율과 비 사망 관련 처리 승인율이 동일하였다.

2.1.2.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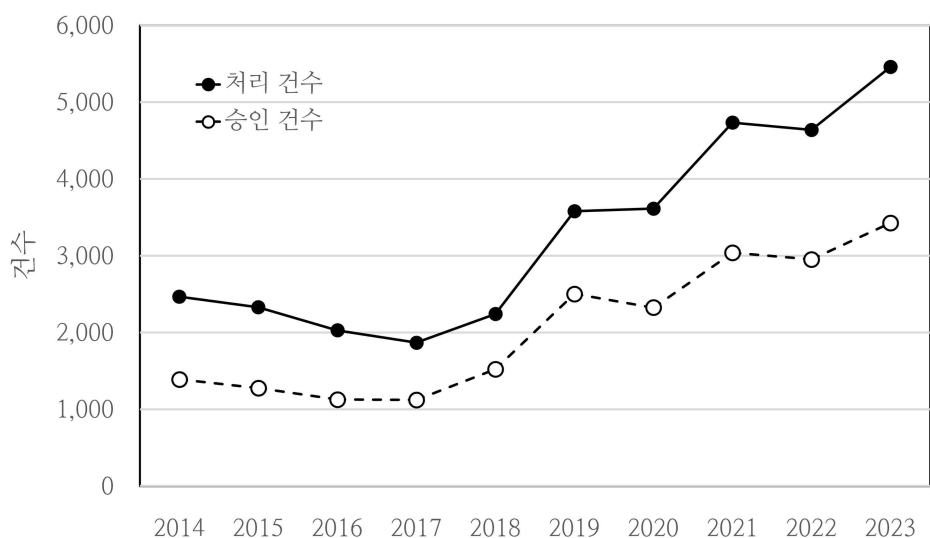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중 척추질환은 2017년 이후부터 처리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척추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는 2014년 2,466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1,868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5,458건으로 2017년 대비 거의 3배나 증가했다. 승인율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된 점 등은 신청 건수의 증가를 불러오고, 처리 건수도 증가한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은 2017년부터 승인율이 60%를 넘었고, 평균 승인율은 62.7%였다. 승인율은 2019년 69.9%로 가장 높았으며 차츰 낮아져 2023년 62.8%의 승인율을 보였다. 척추질환은 전체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과 유사한 형태로 2017년부터 상승하고, 2022년부터 낮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9년과 2022년의 승인율의 변화이다. 2019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연도이고, 2022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명시된 연도이다. 이 제도들이 도입된 해 또는 이듬해에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율이 상승할 것으로 추측했으나, 오히려 승인율이 낮아지거나 약 2% 정도 상승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이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제도화되기 전 이미 승인 판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2,466 (100)	1,389 (56.3)	1,077 (43.7)
2015	2,328 (100)	1,275 (54.8)	1,053 (45.2)
2016	2,027 (100)	1,127 (55.6)	900 (44.4)
2017	1,868 (100)	1,121 (60.0)	747 (40.0)
2018	2,240 (100)	1,521 (67.9)	719 (32.1)
2019	3,579 (100)	2,502 (69.9)	1,077 (30.1)
2020	3,613 (100)	2,321 (64.2)	1,292 (35.8)
2021	4,732 (100)	3,037 (64.2)	1,695 (35.8)
2022	4,638 (100)	2,951 (63.6)	1,687 (36.4)
2023	5,458 (100)	3,426 (62.8)	2,032 (37.2)
합계	32,949 (100)	20,670 (62.7)	12,279 (37.3)



[그림 5] 연도별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은 제조업(15,610건, 47.4%), 기타의사업(9,528건, 28.9%), 건설업(4,718건, 14.3%) 등 이 3개 업종이 총 90.6%로 다수였다. 2014년에는 제조업 54.6%, 기타의사업 31.5%, 건설업 6.4%로 건설업의 비중이 작았다. 이후 2023년에는 건설업이 1,411건으로 25.9%의 처리 비율을 보여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질환이 되었다. 광업은 전체 처리 건수는 2.1%(689건)로 위 세 업종보다는 적으나, 처리 건수는 10.8배 증가하여 처리 비중 0.6%에서 3.0%로 상승하였다. 척추질환 관련 근골격계질환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과 광업의 처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타의사업이 다수인 점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2022-40호 별표1에 쓰레기 수거원, 정비공 등 건설업, 광업 등이 아닌 그 외 직종이 반영된 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처리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제일 많이 처리된 업종이 되었다. 현재 증가세가 유지될 때 추후 건설업의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77.1%), 광업(82.9%)의 승인율은 2014년 대비 2023년에 각각 18.4%, 30.1% 상승하였고, 승인율이 80% 내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3.1% 상승에 그친 제조업이나, 승인율이 감소한 다른 업종에 비해 승인이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업종은 2018년 큰 폭으로 승인율이 상승한 후 건설업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광업은 2021년 다시 한번 상승한 후 소폭 감소하였다. 두 업종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신체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중량물 취급이 잦은 업무 특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높은 승인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정의 원칙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광업의 승인율이 높다는 것에서 척추질환과 업종의 높은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기타의사업은 2019년까지 승인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 44.2%였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18년 전년 대비 큰 폭(+19.3%)으로 증가했다가 지속 감소하여 2023년 47.3%로 감소하였다. 두 업종은 2014년에 비해 2023년의 승인율이 더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조업은 2019년까지 승인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년의 수준으로 하향되었다.

〈표 1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2,466 (100)	157 (6.4)	15 (0.6)	14 (0.6)	777 (31.5)	12 (0.5)
2015	2,328 (100)	174 (7.5)	28 (1.2)	3 (0.1)	704 (30.2)	8 (0.3)
2016	2,027 (100)	146 (7.2)	8 (0.4)	6 (0.3)	641 (31.6)	9 (0.4)
2017	1,868 (100)	147 (7.9)	18 (1.0)	11 (0.6)	563 (30.1)	15 (0.8)
2018	2,240 (100)	186 (8.3)	24 (1.1)	9 (0.4)	664 (29.6)	11 (0.5)
2019	3,579 (100)	376 (10.5)	94 (2.6)	14 (0.4)	1,150 (32.1)	9 (0.3)
2020	3,613 (100)	475 (13.1)	87 (2.4)	9 (0.2)	1,110 (30.7)	16 (0.4)
2021	4,732 (100)	691 (14.6)	115 (2.4)	11 (0.2)	1,340 (28.3)	7 (0.1)
2022	4,638 (100)	955 (20.6)	138 (3.0)	11 (0.2)	1,193 (25.7)	7 (0.2)
2023	5,458 (100)	1,411 (25.9)	162 (3.0)	12 (0.2)	1,386 (25.4)	12 (0.2)
합계	32,949 (100)	4,718 (14.3)	689 (2.1)	100 (0.3)	9,528 (28.9)	106 (0.3)

〈표 18〉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2,466 (100)	2 (0.1)	133 (5.4)	4 (0.2)	2 (0.1)	1,347 (54.6)	3 (0.1)
2015	2,328 (100)	0 (0.0)	149 (6.4)	2 (0.1)	2 (0.1)	1,257 (54.0)	1 (0.0)
2016	2,027 (100)	1 (0.0)	153 (7.5)	5 (0.2)	3 (0.1)	1,053 (51.9)	0 (0.0)
2017	1,868 (100)	1 (0.1)	104 (5.6)	1 (0.1)	2 (0.1)	1,005 (53.8)	1 (0.1)
2018	2,240 (100)	4 (0.2)	165 (7.4)	2 (0.1)	3 (0.1)	1,171 (52.3)	1 (0.0)
2019	3,579 (100)	0 (0.0)	229 (6.4)	5 (0.1)	1 (0.0)	1,701 (47.5)	0 (0.0)
2020	3,613 (100)	1 (0.0)	259 (7.2)	0 (0.0)	1 (0.0)	1,654 (45.8)	1 (0.0)
2021	4,732 (100)	3 (0.1)	309 (6.5)	7 (0.1)	6 (0.1)	2,240 (47.3)	3 (0.1)
2022	4,638 (100)	1 (0.0)	297 (6.4)	10 (0.2)	3 (0.1)	2,022 (43.6)	1 (0.0)
2023	5,458 (100)	1 (0.0)	296 (5.4)	14 (0.3)	4 (0.1)	2,160 (39.6)	0 (0.0)
합계	32,949 (100)	14 (0.0)	2,094 (6.4)	50 (0.2)	27 (0.1)	15,610 (47.4)	11 (0.0)

〈표 1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 및상수 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389	98	9	5	382	8	1	74	0	1	811	0
2015	1,275	118	12	2	326	4	—	73	1	2	737	0
2016	1,127	89	3	4	325	5	1	67	3	2	628	—
2017	1,121	100	7	3	302	8	1	48	1	1	650	0
2018	1,521	146	20	6	403	10	4	108	1	3	820	0
2019	2,502	298	76	7	743	6	—	140	3	1	1,228	—
2020	2,321	358	61	5	617	12	1	141	—	1	1,125	0
2021	3,037	553	108	6	716	5	2	165	6	4	1,472	0
2022	2,951	739	129	5	578	4	0	161	8	0	1,327	0
2023	3,426	1,137	146	3	613	6	0	140	12	2	1,367	—
합계	20,670	3,636	571	46	5,005	68	10	1,117	35	17	10,165	0

〈표 20〉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 및상수 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6.3	62.4	60.0	35.7	49.2	66.7	50.0	55.6	0.0	50.0	60.2	0.0
2015	54.8	67.8	42.9	66.7	46.3	50.0	—	49.0	50.0	100	58.6	0.0
2016	55.6	61.0	37.5	66.7	50.7	55.6	100	43.8	60.0	66.7	59.6	—
2017	60.0	68.0	38.9	27.3	53.6	53.3	100	46.2	100	50.0	64.7	0.0
2018	67.9	78.5	83.3	66.7	60.7	90.9	100	65.5	50.0	100	70.0	0.0
2019	69.9	79.3	80.9	50.0	64.6	66.7	—	61.1	60.0	100	72.2	—
2020	64.2	75.4	70.1	55.6	55.6	75.0	100	54.4	—	100	68.0	0.0
2021	64.2	80.0	93.9	54.5	53.4	71.4	66.7	53.4	85.7	66.7	65.7	0.0
2022	63.6	77.4	93.5	45.5	48.4	57.1	0.0	54.2	80.0	0.0	65.6	0.0
2023	62.8	80.6	90.1	25.0	44.2	50.0	0.0	47.3	85.7	50.0	63.3	—
합계	62.7	77.1	82.9	46.0	52.5	64.2	71.4	53.3	70.0	63.0	65.1	0.0

척추질환은 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처리되었으며, 대기업, 중기업 순으로 처리되었다. 소기업은 2017년까지 50% 이상 처리되었으나 2019년부터 40%로 감소하였고 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대기업은 2014년 25.9%에서 2023년 36%까지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기업은 2015년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 20% 내외의 처리 비율을 보였다.

척추질환의 대기업 승인율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았고, 2023년에는 다른 규모와 달리 소폭 승인율이 상승했다. 중기업, 소기업은 대체로 총 승인율보다 낮았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모든 규모 사업장의 승인율은 전체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과 마찬가지로 2018년 상승하고, 2021년 이후 내림세이다.

〈표 21〉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2,466 (100)	639 (25.9)	378 (15.3)	1,444 (58.6)	5 (0.2)
2015	2,328 (100)	603 (25.9)	432 (18.6)	1,288 (55.3)	5 (0.2)
2016	(2,027)	—	—	—	—
2017	1,868 (100)	479 (25.6)	371 (19.9)	1,016 (54.4)	2 (0.1)
2018	2,240 (100)	637 (28.4)	540 (24.1)	1,057 (47.2)	6 (0.3)
2019	3,579 (100)	1,167 (32.6)	703 (19.6)	1,709 (47.8)	0 (0.0)
2020	3,613 (100)	1,234 (34.2)	783 (21.7)	1,596 (44.2)	0 (0.0)
2021	4,732 (100)	1,738 (36.7)	1,008 (21.3)	1,986 (42.0)	0 (0.0)
2022	4,638 (100)	1,786 (38.5)	891 (19.2)	1,961 (42.3)	0 (0.0)
2023	5,458 (100)	1,966 (36.0)	1,222 (22.4)	2,270 (41.6)	0 (0.0)
합계	30,922 (100)	10,249 (33.1)	6,328 (20.5)	14,327 (46.3)	18 (0.1)

〈표 22〉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389	387	186	815	1
2015	1,275	363	224	686	2
2016	1,127	—	—	—	—
2017	1,121	309	218	594	0
2018	1,521	483	364	672	2
2019	2,502	864	472	1,166	—
2020	2,321	833	494	994	—
2021	3,037	1,166	627	1,244	—
2022	2,951	1,195	575	1,181	—
2023	3,426	1,356	754	1,316	—
합계	20,670	6,956	3,914	8,668	5

〈표 23〉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6.3	60.6	49.2	56.4	20.0
2015	54.8	60.2	51.9	53.3	40.0
2016	55.6	—	—	—	—
2017	60	64.5	58.8	58.5	0.0
2018	67.9	75.8	67.4	63.6	33.3
2019	69.9	74	67.1	68.2	—
2020	64.2	67.5	63.1	62.3	—
2021	64.2	67.1	62.2	62.6	—
2022	63.6	66.9	64.5	60.2	—
2023	62.8	69	61.7	58	—
합계	62.7	67.9	61.9	60.5	27.8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에서 가장 많이 처리된 연령대는 50대로 10,106건(30.7%)이었으며, 뒤이어 40대(8,226건, 25%), 60대(7,125건, 21.6%), 30대(5,250건, 15.9%) 순이었다. 2014년에는 40대, 50대, 30대에 이어 20대와 60대가 유사한 수치였다. 10년 뒤인 2023년에는 60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질환 처리의 연령대가 옮겨졌다. 절대 숫자는 소수지만, 70대도 2014년에 비해 12.3배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국내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추후 처리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은 모수로 경향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연령대(10대, 80대, 9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는 2014년 대비 승인율이 감소했으며, 40~70대는 승인율이 올랐다. 20대는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은 승인율을 보였는데 2021년부터는 승인율이 급감하여 2023년에는 27.2% 승인율로 분석됐다. 20대는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30대는 2019년 최고 승인율 70.6%를 기록한 후 승인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40대는 2023년 승인율이 2014년보다 높게 분석되기는 했으나 2019년 이후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총 승인율보다도 낮아졌다. 50대는 가장 많은 처리 건수를 기록한 연령대였는데 총 승인율과 차이가 최대 차이가 2018년 3.5%로 가장 유사한 형태의 승인율을 보였다. 60대는 2021년부터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연령대이다. 2021년 총 승인율을 넘어섰으며, 전 기간 승인율이 67%로, 승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70대는 2014년 대비 승인율이 47% 올라 가장 승인율이 많이 오른 연령대다. 2023년 일부 감소하였으나 4.7% 차이이므로, 추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명시된 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연령대별 승인율 변화가 두드러졌다. 근속연수가 명시된 만큼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신체적 부하가 클 수밖에 없는 40~60대의 경우 승인율도 높고, 제도 적용 시기였던 2018년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수는 적지만 70대도 2배 승인율이 상승하였다. 반면에 20대와 30대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 승인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4〉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2,466 (100)	5 (0.2)	165 (6.7)	654 (26.5)	796 (32.3)	677 (27.5)
2015	2,328 (100)	6 (0.3)	140 (6.0)	645 (27.7)	700 (30.1)	658 (28.3)
2016	2,027 (100)	7 (0.3)	129 (6.4)	513 (25.3)	589 (29.1)	618 (30.5)
2017	1,868 (100)	4 (0.2)	80 (4.3)	394 (21.1)	540 (28.9)	595 (31.9)
2018	2,240 (100)	3 (0.1)	97 (4.3)	445 (19.9)	606 (27.1)	733 (32.7)
2019	3,579 (100)	5 (0.1)	178 (5.0)	599 (16.7)	923 (25.8)	1,144 (32.0)
2020	3,613 (100)	3 (0.1)	148 (4.1)	527 (14.6)	901 (24.9)	1,152 (31.9)
2021	4,732 (100)	3 (0.1)	196 (4.1)	576 (12.2)	1136 (24.0)	1,376 (29.1)
2022	4,638 (100)	2 (0.0)	118 (2.5)	471 (10.2)	970 (20.9)	1,363 (29.4)
2023	5,458 (100)	3 (0.1)	125 (2.3)	426 (7.8)	1,065 (19.5)	1,790 (32.8)
합계	32,949 (100)	41 (0.1)	1,376 (4.2)	5,250 (15.9)	8,226 (25.0)	10,106 (30.7)

〈표 24〉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2,466 (100)	151 (6.1)	18 (0.7)	0 (0.0)	0 (0.0)
2015	2,328 (100)	161 (6.9)	17 (0.7)	0 (0.0)	1 (0.0)
2016	2,027 (100)	151 (7.4)	20 (1.0)	0 (0.0)	0 (0.0)
2017	1,868 (100)	230 (12.3)	23 (1.2)	2 (0.1)	0 (0.0)
2018	2,240 (100)	336 (15.0)	20 (0.9)	0 (0.0)	0 (0.0)
2019	3,579 (100)	663 (18.5)	67 (1.9)	0 (0.0)	0 (0.0)
2020	3,613 (100)	790 (21.9)	91 (2.5)	1 (0.0)	0 (0.0)
2021	4,732 (100)	1,303 (27.5)	136 (2.9)	6 (0.1)	0 (0.0)
2022	4,638 (100)	1,517 (32.7)	190 (4.1)	7 (0.2)	0 (0.0)
2023	5,458 (100)	1,823 (33.4)	222 (4.1)	4 (0.1)	0 (0.0)
합계	32,949 (100)	7,125 (21.6)	804 (2.4)	20 (0.1)	1 (0.0)

〈표 2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389	1	75	411	450	379	71	2	—	—
2015	1,275	3	56	378	414	348	71	5	—	0
2016	1,127	2	54	296	359	343	67	6	—	—
2017	1,121	1	42	243	339	354	137	5	0	—
2018	1,521	2	48	297	431	523	212	8	—	—
2019	2,502	2	86	423	686	821	455	29	—	—
2020	2,321	0	76	319	601	770	507	48	0	—
2021	3,037	0	65	328	755	905	907	75	2	—
2022	2,951	1	45	236	583	898	1,069	117	2	—
2023	3,426	0	34	208	634	1,146	1,275	129	0	—
합계	20,670	12	581	3,139	5,252	6,487	4,771	424	4	0

〈표 2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6.3	20.0	45.5	62.8	56.5	56.0	47.0	11.1	—	—
2015	54.8	50.0	40.0	58.6	59.1	52.9	44.1	29.4	—	0.0
2016	55.6	28.6	41.9	57.7	61.0	55.5	44.4	30.0	—	—
2017	60.0	25.0	52.5	61.7	62.8	59.5	59.6	21.7	0.0	—
2018	67.9	66.7	49.5	66.7	71.1	71.4	63.1	40.0	—	—
2019	69.9	40.0	48.3	70.6	74.3	71.8	68.6	43.3	—	—
2020	64.2	0.0	51.4	60.5	66.7	66.8	64.2	52.7	0.0	—
2021	64.2	0.0	33.2	56.9	66.5	65.8	69.6	55.1	33.3	—
2022	63.6	50.0	38.1	50.1	60.1	65.9	70.5	61.6	28.6	—
2023	62.8	0.0	27.2	48.8	59.5	64.0	69.9	58.1	0.0	—
합계	62.7	29.3	42.2	59.8	63.8	64.2	67.0	52.7	20.0	0.0

남성과 여자 모두 2019년에 가장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여성의 처리 비중은 2014년 대비 2023년에 2.9% 증가했으나 남성이 80% 이상으로 전 기간 다수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남성의 처리 비중이 82%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로 처리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2,466 (100)	2,087 (84.6)	379 (15.4)
2015	2,328 (100)	1,923 (82.6)	405 (17.4)
2016	2,027 (100)	1,696 (83.7)	331 (16.3)
2017	1,868 (100)	1,553 (83.1)	315 (16.9)
2018	2,240 (100)	1,862 (83.1)	378 (16.9)
2019	3,579 (100)	2,916 (81.5)	663 (18.5)
2020	3,613 (100)	2,955 (81.8)	658 (18.2)
2021	4,732 (100)	3,838 (81.1)	894 (18.9)
2022	4,638 (100)	3,811 (82.2)	827 (17.8)
2023	5,458 (100)	4,460 (81.7)	998 (18.3)
합계	32,949 (100)	27,101 (82.3)	5,848 (17.7)

전체 승인율은 남성이 65.6%, 여성이 49.6%로 남성의 승인율이 높았다. 남성은 2019년 최대 71.8%의 승인율을 보인 후 66% 이상의 승인율을 유지했다. 여성도 2019년 최대 승인율 61.5%를 보였으나 남성과 달리 승인율이 감소하여 45.6%로 분석됐다. 2019년 이후 총 승인율은 감소 추세인데 여성의 승인율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표 28〉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및 승인율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1,389	1,227	162
2015	1,275	1,120	155
2016	1,127	984	143
2017	1,121	960	161
2018	1,521	1,307	214
2019	2,502	2,094	408
2020	2,321	1,968	353
2021	3,037	2,604	433
2022	2,951	2,532	419
2023	3,426	2,971	455
합계	20,670	17,767	2,903

〈표 29〉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56.3	58.8	42.7
2015	54.8	58.2	38.3
2016	55.6	58	43.2
2017	60.0	61.8	51.1
2018	67.9	70.2	56.6
2019	69.9	71.8	61.5
2020	64.2	66.6	53.6
2021	64.2	67.8	48.4
2022	63.6	66.4	50.7
2023	62.8	66.6	45.6
합계	62.7	65.6	49.6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사망 관련 처리는 전 기간 3건으로, 총 승인율은 비 사망자의 승인율과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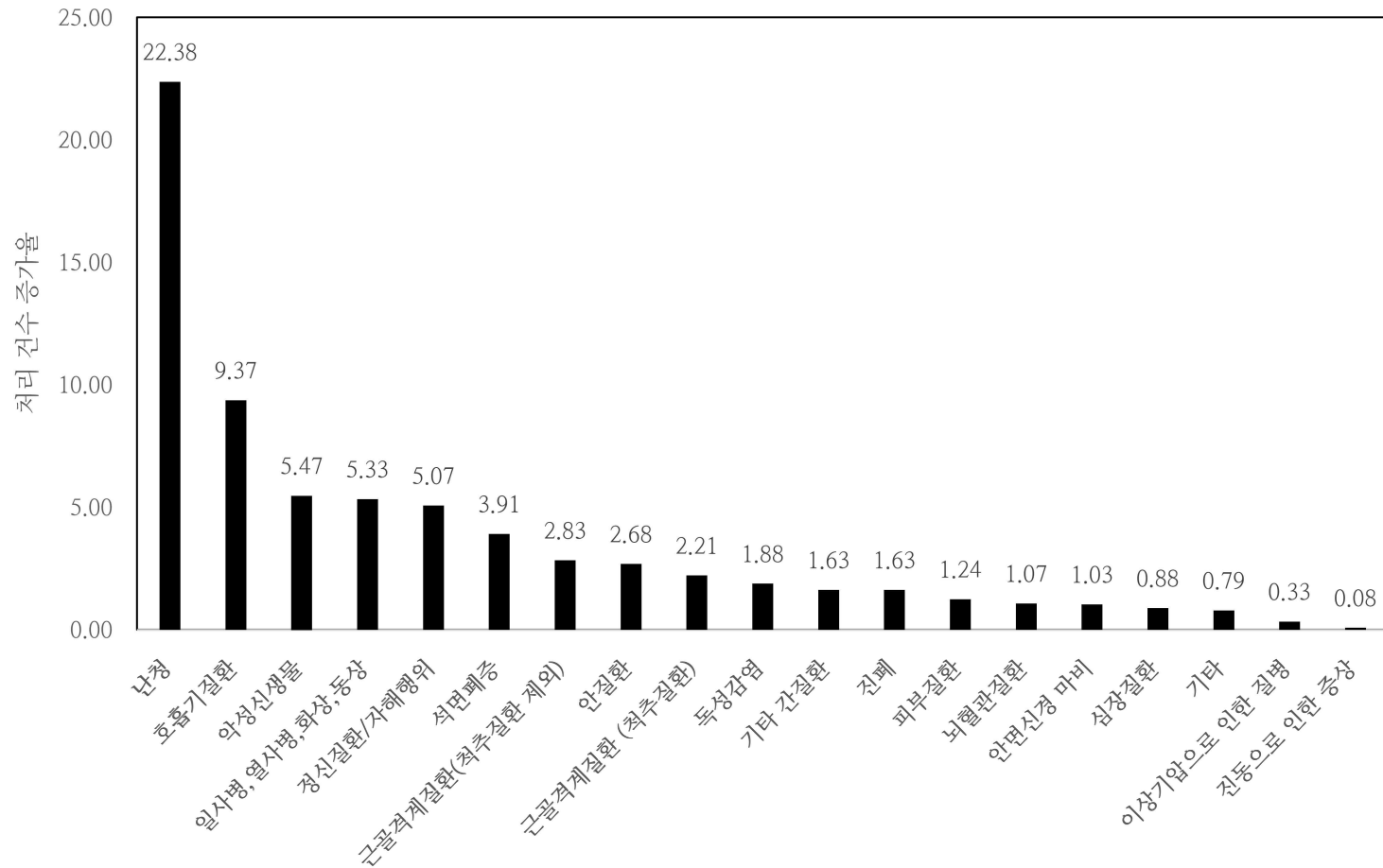
2.2. 난청

난청은 처리 건수에 큰 변화가 있었다. 난청의 2014년 처리 건수의 비중은 4.4%(409건) 불과했는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34,635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19.6%로 근골격계질환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다. 이 기간 난청은 총 22.38배 증가하여 다른 모든 질환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처리 건수 34,635건 중 승인 건수는 21,592건, 승인율은 62.3%이었다. 2017년, 2018년에 난청은 평균 9.5% 정도 승인율이 상승하였다. 이후 60% 후반까지 높은 승인율을 유지하다가, 2023년 일부 낮아졌다.

〈표 30〉 연도별 난청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409 (100)	240 (58.7)	169 (41.3)
2015	532 (100)	339 (63.7)	193 (36.3)
2016	1,106 (100)	440 (39.8)	666 (60.2)
2017	2,082 (100)	1,002 (48.1)	1,080 (51.9)
2018	2,177 (100)	1,278 (58.7)	899 (41.3)
2019	2,962 (100)	1,768 (59.7)	1,194 (40.3)
2020	3,035 (100)	2,014 (66.4)	1,021 (33.6)
2021	5,630 (100)	3,793 (67.4)	1,837 (32.6)
2022	7,550 (100)	5,197 (68.8)	2,353 (31.2)
2023	9,152 (100)	5,521 (60.3)	3,631 (39.7)
합계	34,635 (100)	21,592 (62.3)	13,043 (37.7)



[그림 6] 직업성 질환별 처리 건수 증가율.

2014년에는 제조업 63.8%, 광업 26.9%로, 두 업종을 합치면 전체 처리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이 두 업종은 2018년까지 전체 처리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2019년 건설업이 219건으로 처리 비중 7.4%를 차지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건설업은 처리 건수가 지속 증가하며 2023년에는 2,113건(23.1%)으로 2014년 대비 약 117.4배로 난청의 주요 업종이 되었다. 2022년까지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모두 증가세였으나 2023년 광업이 전년 대비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처리 건수의 증가 추세를 분석했을 때, 향후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난청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타의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처리 건수도 추후 지켜봐야 할 항목이다. 두 업종은 전체 처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업종을 합쳐 4.3% 수준으로 주요 3개 업종에 비해 낮다. 다만, 기타의사업 32.3배, 운수·창고 및 통신업 24.5배 증가하여 처리 건수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정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도 2021년 최초 발생 이후 매년 존재하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건설업은 총 승인율 62.3%로 2017년까지 50% 아래의 승인율을 보였지만, 2018년부터 평균 60% 초반의 꾸준한 승인율을 보인다. 광업은 초기 70.9%의 높은 승인율을 보였으나 2016년, 2017년에 20% 내외의 낮은 승인율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6년의 난청의 총 승인율이 낮은 것은 광업의 영향이 크다. 다만, 이후 승인율을 급격히 회복하고 2022년 최고 74.2%의 승인율을 보였다. 제조업은 꾸준히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으로 2014년을 제외하곤 전 기간 6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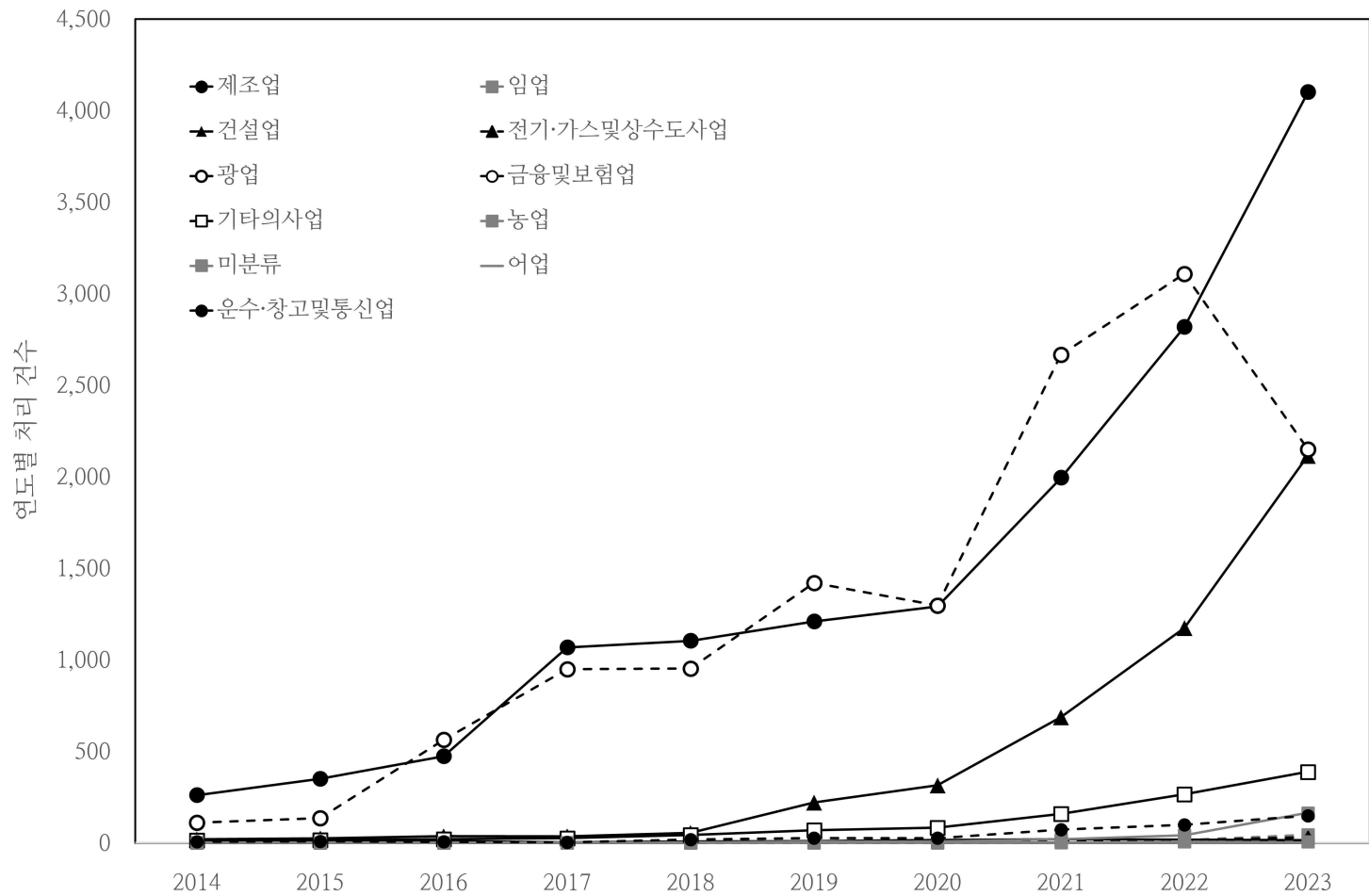
기타의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율로 분석됐다. 특히 기타의사업은 2016년 최저 5.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연구 기간 단 한 번도 50% 이상의 승인율을 넘긴 해가 없다. 건설업, 제조업, 광업이 상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실이나, 충격 소음 등 주변 소음 수준이 높은 현장이 있어 상대적으로 승인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 난청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409 (100)	18 (4.4)	110 (26.9)	1 (0.2)	12 (2.9)	0 (0.0)
2015	532 (100)	23 (4.3)	135 (25.4)	0 (0.0)	14 (2.6)	0 (0.0)
2016	1,106 (100)	35 (3.2)	562 (50.8)	8 (0.7)	19 (1.7)	0 (0.0)
2017	2,082 (100)	34 (1.6)	948 (45.5)	2 (0.1)	25 (1.2)	0 (0.0)
2018	2,177 (100)	53 (2.4)	952 (43.7)	6 (0.3)	42 (1.9)	0 (0.0)
2019	2,962 (100)	219 (7.4)	1,419 (47.9)	8 (0.3)	68 (2.3)	0 (0.0)
2020	3,035 (100)	313 (10.3)	1,296 (42.7)	14 (0.5)	82 (2.7)	0 (0.0)
2021	5,630 (100)	685 (12.2)	2,665 (47.3)	18 (0.3)	157 (2.8)	1 (0.0)
2022	7,550 (100)	1,172 (15.5)	3,107 (41.2)	16 (0.2)	264 (3.5)	6 (0.1)
2023	9,152 (100)	2,113 (23.1)	2,149 (23.5)	13 (0.1)	387 (4.2)	5 (0.1)
합계	34,635 (100)	4,665 (13.5)	13,343 (38.5)	86 (0.2)	1,070 (3.1)	12 (0.0)

〈표 31〉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409 (100)	0 (0.0)	6 (1.5)	0 (0.0)	0 (0.0)	261 (63.8)	1 (0.2)
2015	532 (100)	0 (0.0)	8 (1.5)	1 (0.2)	0 (0.0)	351 (66.0)	0 (0.0)
2016	1,106 (100)	0 (0.0)	5 (0.5)	1 (0.1)	2 (0.2)	474 (42.9)	0 (0.0)
2017	2,082 (100)	0 (0.0)	3 (0.1)	0 (0.0)	1 (0.0)	1,068 (51.3)	1 (0.0)
2018	2,177 (100)	0 (0.0)	18 (0.8)	0 (0.0)	1 (0.0)	1,104 (50.7)	1 (0.0)
2019	2,962 (100)	0 (0.0)	26 (0.9)	4 (0.1)	3 (0.1)	1,210 (40.9)	5 (0.2)
2020	3,035 (100)	0 (0.0)	25 (0.8)	5 (0.2)	2 (0.1)	1,292 (42.6)	6 (0.2)
2021	5,630 (100)	0 (0.0)	72 (1.3)	11 (0.2)	9 (0.2)	1,994 (35.4)	18 (0.3)
2022	7,550 (100)	0 (0.0)	98 (1.3)	15 (0.2)	13 (0.2)	2,819 (37.3)	40 (0.5)
2023	9,152 (100)	0 (0.0)	147 (1.6)	44 (0.5)	30 (0.3)	4,101 (44.8)	163 (1.8)
합계	34,635 (100)	0 (0.0)	408 (1.2)	81 (0.2)	61 (0.2)	14,674 (42.4)	235 (0.7)



[그림 7] 난청의 업종별 처리 건수 증가 추이.

〈표 32〉 난청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240	9	78	0	4	—	—	2	—	—	147	0
2015	339	9	85	—	3	—	—	1	—	—	241	—
2016	440	15	110	1	1	—	—	2	1	—	310	—
2017	1,002	15	217	0	5	—	—	1	—	—	764	—
2018	1,278	35	455	3	17	—	—	6	—	1	761	0
2019	1,768	127	869	3	20	—	—	12	3	2	732	0
2020	2,014	214	934	8	38	—	—	14	5	1	800	0
2021	3,793	443	1,874	12	73	—	—	29	9	7	1,346	0
2022	5,197	772	2,306	8	124	4	—	39	12	6	1,926	0
2023	5,521	1,268	1,427	8	165	2	—	47	20	18	2,566	0
합계	21,592	2,907	8,355	43	450	6	—	153	50	35	9,593	0

〈표 33〉 난청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8.7	50.0	70.9	0.0	33.3	-	-	33.3	-	-	56.3	0.0
2015	63.7	39.1	63.0	0.0	21.4	-	-	12.5	-	-	68.7	-
2016	39.8	42.9	19.6	12.5	5.3	-	-	40.0	100	-	65.4	-
2017	48.1	44.1	22.9	0.0	20.0	-	-	33.3	-	-	71.5	-
2018	58.7	66.0	47.8	50.0	40.5	-	-	33.3	-	100	68.9	0.0
2019	59.7	58.0	61.2	37.5	29.4	-	-	46.2	75.0	66.7	60.5	0.0
2020	66.4	68.4	72.1	57.1	46.3	-	-	56.0	100	50.0	61.9	0.0
2021	67.4	64.7	70.3	66.7	46.5	-	-	40.3	81.8	77.8	67.5	0.0
2022	68.8	65.9	74.2	50.0	47.0	66.7	-	39.8	80.0	46.2	68.3	0.0
2023	60.3	60.0	66.4	61.5	42.6	40.0	-	32	45.5	60.0	62.6	0.0
합계	62.3	62.3	62.6	50.0	42.1	50.0	-	37.5	61.7	57.4	65.4	0.0

전 규모 사업장에서 2014년 대비 2023년의 처리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기업 규모의 처리 건수가 다른 규모에 비해 증가세가 가팔랐다. 처리 건수가 49.2배 증가하며 대기업(13.7배), 소기업(28.4배)의 처리 비율을 줄였다. 대기업은 2018년까지 60%가 넘는 처리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처리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다른 규모에 비해 적어 비율이 두 번째로 낮아졌다. 소기업은 지속 두 번째의 비율을 보이다 2023년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가 되었다.

〈표 34〉 난청의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409 (100)	222 (54.3)	40 (9.8)	146 (35.7)	1 (0.2)
2015	532 (100)	329 (61.8)	58 (10.9)	145 (27.3)	0 (0.0)
2016	(1,106)	-	-	-	-
2017	2,082 (100)	1,342 (64.5)	328 (15.8)	411 (19.7)	1 (0.0)
2018	2,177 (100)	1,341 (61.6)	359 (16.5)	475 (21.8)	2 (0.1)
2019	2,962 (100)	1,699 (57.4)	494 (16.7)	769 (26.0)	0 (0.0)
2020	3,035 (100)	1,494 (49.2)	578 (19.0)	963 (31.7)	0 (0.0)
2021	5,630 (100)	2,519 (44.7)	1,159 (20.6)	1,952 (34.7)	0 (0.0)
2022	7,550 (100)	3,194 (42.3)	1,521 (20.1)	2,835 (37.5)	0 (0.0)
2023	9,152 (100)	3,043 (33.2)	1,968 (21.5)	4,141 (45.2)	0 (0.0)
합계	34,635 (100)	15,183 (45.3)	6,505 (19.4)	11,837 (35.3)	4 (0.0)

총 승인율과 대기업, 소기업의 승인율이 2015년 소폭 상승 후 2017년에 하락한 것과 달리 중기업은 2015년에 바로 승인율이 감소하였다. 이후 전 규모 사업장은 2022년까지 승인율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23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대기업은 2018년을 제외하고 총 승인율보다 높은 수치로 분석됐고, 소기업은 그 해 유일하게 총 승인율보다 높고 그 외에는 더 낮은 수치를 보였

다. 중기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은 승인율로 분석됐다. 난청도 대기업의 승인율이 가장 높게 분석되면서 국내 직업성 질환 요양 신청 상위 세 질환 모두 대기업의 승인율이 타 규모 사업장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난청의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240	133	24	83	0
2015	339	231	24	84	—
2016	440	—	—	—	—
2017	1,002	717	109	176	0
2018	1,278	786	197	295	0
2019	1,768	1,061	262	445	—
2020	2,014	1,030	354	630	—
2021	3,793	1,729	770	1,294	—
2022	5,197	2,233	1,017	1,947	—
2023	5,521	1,875	1,162	2,484	—
합계	21,592	9,795	3,919	7,438	0

〈표 36〉 난청의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8.7	59.9	60	56.8	0.0
2015	63.7	70.2	41.4	57.9	-
2016	39.8	-	-	-	-
2017	48.1	53.4	33.2	42.8	0.0
2018	58.7	58.6	54.9	62.1	0.0
2019	59.7	62.4	53.0	57.9	-
2020	66.4	68.9	61.2	65.4	-
2021	67.4	68.6	66.4	66.3	-
2022	68.8	69.9	66.9	68.7	-
2023	60.3	61.6	59.0	60.0	-
합계	62.3	64.5	60.2	62.8	0.0

난청은 60대가 16,264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0대가 11,340건(32.7%)으로 두 번째였다. 60대는 최근 3개년은 비율이 40%로 감소했으나 처리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70대는 2014년 3.7%에 불과했지만, 처리 건수가 221.4배 증가하여 두 번째로 많이 처리된 연령대가 되었다. 반면에 50대는 2014년 41.6%의 비율이었으나 비교적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아 세 번째로 많이 처리된 연령대가 되었다. 80대는 2014년 0건이었는데,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처리 건수가 3,243건이 되었다. 이는 50대와 79건 차이로 추후 처리 건에 따라 50대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

난청은 고연령대가 저연령대보다 승인율이 높은 추이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모두 6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50대 미만은 30%대의 승인율을 보였다. 50대는 57.7%의 승인율로 분석됐다. 70~80대는 2020년부터 70% 이상의 승인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50~60대는 70%를 넘지는 못했다. 90대는 절대 건수는 적으나 10건 이상 처리된 2021년부터 5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다. 근골격계질환과 난청 모두 신체 활동 관련된 질환으로, 이 질환들에선 고연령대의 처리 건수와 승인율이 모두 높았다.

〈표 37〉 난청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409 (100)	0 (0.0)	1 (0.2)	4 (1.0)	22 (5.4)	170 (41.6)
2015	532 (100)	0 (0.0)	0 (0.0)	2 (0.4)	17 (3.2)	157 (29.5)
2016	1,106 (100)	1 (0.1)	2 (0.2)	9 (0.8)	34 (3.1)	314 (28.4)
2017	2,082 (100)	0 (0.0)	3 (0.1)	2 (0.1)	11 (0.5)	348 (16.7)
2018	2,177 (100)	0 (0.0)	1 (0.0)	6 (0.3)	27 (1.2)	287 (13.2)
2019	2,962 (100)	0 (0.0)	1 (0.0)	7 (0.2)	24 (0.8)	317 (10.7)
2020	3,035 (100)	0 (0.0)	3 (0.1)	6 (0.2)	33 (1.1)	244 (8.0)
2021	5,630 (100)	0 (0.0)	1 (0.0)	3 (0.1)	25 (0.4)	369 (6.6)
2022	7,550 (100)	0 (0.0)	2 (0.0)	6 (0.1)	35 (0.5)	378 (5.0)
2023	9,152 (100)	0 (0.0)	3 (0.0)	12 (0.1)	83 (0.9)	738 (8.1)
합계	34,635 (100)	1 (0.0)	17 (0.0)	57 (0.2)	311 (0.9)	3,322 (9.6)

〈표 37〉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409 (100)	197 (48.2)	15 (3.7)	0 (0.0)	0 (0.0)
2015	532 (100)	319 (60.0)	32 (6.0)	5 (0.9)	0 (0.0)
2016	1,106 (100)	521 (47.1)	198 (17.9)	26 (2.4)	1 (0.1)
2017	2,082 (100)	1,116 (53.6)	499 (24.0)	101 (4.9)	2 (0.1)
2018	2,177 (100)	1,271 (58.4)	494 (22.7)	90 (4.1)	1 (0.0)
2019	2,962 (100)	1,559 (52.6)	828 (28.0)	225 (7.6)	1 (0.0)
2020	3,035 (100)	1,586 (52.3)	931 (30.7)	228 (7.5)	4 (0.1)
2021	5,630 (100)	2,421 (43.0)	2,132 (37.9)	659 (11.7)	20 (0.4)
2022	7,550 (100)	3,095 (41.0)	2,890 (38.3)	1109 (14.7)	35 (0.5)
2023	9,152 (100)	4,179 (45.7)	3,321 (36.3)	800 (8.7)	16 (0.2)
합계	34,635 (100)	16,264 (47.0)	11,340 (32.7)	3,243 (9.4)	80 (0.2)

〈표 38〉 난청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240	—	1	2	2	108	119	8	—	—
2015	339	—	—	0	4	88	233	13	1	—
2016	440	0	1	2	8	168	231	30	0	0
2017	1,002	—	1	0	7	215	678	97	4	0
2018	1,278	—	0	2	12	186	816	238	24	0
2019	1,768	—	0	1	12	189	1,037	433	96	0
2020	2,014	—	1	2	17	148	1,027	646	171	2
2021	3,793	—	0	1	10	215	1,555	1,517	484	11
2022	5,197	—	1	5	16	221	2,026	2,055	843	30
2023	5,521	—	1	4	32	380	2,468	2,107	519	10
합계	21,592	—	6	19	120	1,918	10,190	7,144	2,142	53

〈표 39〉 난청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8.7	—	100	50.0	9.1	63.5	60.4	53.3	—	—
2015	63.7	—	—	0.0	23.5	56.1	73.0	40.6	20.0	—
2016	39.8	0.0	50.0	22.2	23.5	53.5	44.3	15.2	0.0	0.0
2017	48.1	—	33.3	0.0	63.6	61.8	60.8	19.4	4.0	0.0
2018	58.7	—	0.0	33.3	44.4	64.8	64.2	48.2	26.7	0.0
2019	59.7	—	0.0	14.3	50.0	59.6	66.5	52.3	42.7	0.0
2020	66.4	—	33.3	33.3	51.5	60.7	64.8	69.4	75.0	50.0
2021	67.4	—	0.0	33.3	40.0	58.3	64.2	71.2	73.4	55.0
2022	68.8	—	50.0	83.3	45.7	58.5	65.5	71.1	76.0	85.7
2023	60.3	—	33.3	33.3	38.6	51.5	59.1	63.4	64.9	62.5
합계	62.3	—	35.3	33.3	38.6	57.7	62.7	63.0	66.0	66.3

남성의 처리 건수는 95% 이상을 차지하다가 2022년부터 95%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의 처리 건수의 비율은 2017년 최저인 2.1%를 기록했으며, 소폭이나마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처리 건수 4.4%는 전체 질환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표 40〉 난청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409 (100)	392 (95.8)	17 (4.2)
2015	532 (100)	514 (96.6)	18 (3.4)
2016	1,106 (100)	1,080 (97.6)	26 (2.4)
2017	2,082 (100)	2,038 (97.9)	44 (2.1)
2018	2,177 (100)	2,126 (97.7)	51 (2.3)
2019	2,962 (100)	2,878 (97.2)	84 (2.8)
2020	3,035 (100)	2,937 (96.8)	98 (3.2)
2021	5,630 (100)	5,385 (95.6)	245 (4.4)
2022	7,550 (100)	7,163 (94.9)	387 (5.1)
2023	9,152 (100)	8,604 (94.0)	548 (6.0)
합계	34,635 (100)	33,117 (95.6)	1,518 (4.4)

난청은 전 기간 남성의 승인율이 여성의 승인율보다 높았다. 남성 처리 건수가 다수이므로 총 승인율과 남성의 승인율은 최대 2015년 1.1% 차이, 최소 2020년 0.3% 차이만을 보였다. 남성은 2018년, 2020년에 전년 대비 승인율이 많이 상승했고, 여성은 2017년, 2019년, 2020년에 많이 상승하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승인율이 많이 올라 2023년에는 10% 미만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표 41〉 난청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240	232	8
2015	339	333	6
2016	440	435	5
2017	1,002	990	12
2018	1,278	1,263	15
2019	1,768	1,735	33
2020	2,014	1,959	55
2021	3,793	3,658	135
2022	5,197	4,968	229
2023	5,521	5,235	286
합계	21,592	20,808	784

〈표 42〉 난청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58.7	59.2	47.1
2015	63.7	64.8	33.3
2016	39.8	40.3	19.2
2017	48.1	48.6	27.3
2018	58.7	59.4	29.4
2019	59.7	60.3	39.3
2020	66.4	66.7	56.1
2021	67.4	67.9	55.1
2022	68.8	69.4	59.2
2023	60.3	60.8	52.2
합계	62.3	62.8	51.6

난청으로 신청되어 처리된 건 중 사망 관련 처리 건수는 없었다.

2.3.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은 2014년~2017년까지 처리 건수가 증가한 후 잠시 정체되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2022년에 타 연도에 비해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해당 연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처리 건수가 1,601건으로 2021년 178건이나, 2023년 242건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2023년에 코로나 질병 임시 분류 코드까지 반영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질환 신청자는 총 2,700~2,800명에 달한다. 이를 타 연도와 유사하게 100~200건 사이로 변환한다면 2022년의 호흡기질환 처리 건수는 3,400~3,500건이 된다.

호흡기질환은 전 연구 기간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2023년 승인율이 감소(-23.1%)한 질환이다. 전체 승인 건수 7,223건 중 일부 승인은 139건으로 1.9%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 승인이 없는 진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이다. 유일하게 단일 연도 처리 건수가 1,000건을 넘은 2022년(2,250건)에 전체 승인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전 기간 승인율은 34.2%로 전제 직업성 질환 구분 중 6번째, 1,000건 미만 질환을 제외하면 3번째로 낮았다. 2021년, 2022년도는 약 2,700건의 코로나 관련 처리 건수가 약 90%의 승인율로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일시적 상승효과를 보였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승인율은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 연도별 호흡기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397 (100)	182 (45.8)	215 (54.2)
2015	727 (100)	322 (44.3)	405 (55.7)
2016	1,288 (100)	508 (39.4)	780 (60.6)
2017	1,788 (100)	605 (33.8)	1,183 (66.2)
2018	1,627 (100)	537 (33.0)	1,090 (67.0)
2019	2,033 (100)	514 (25.3)	1,519 (74.7)
2020	1,717 (100)	512 (29.8)	1,205 (70.2)
2021	2,548 (100)	949 (37.2)	1,599 (62.8)
2022	4,859 (100)	2,250 (46.3)	2,609 (53.7)
2023	3,721 (100)	844 (22.7)	2,877 (77.3)
합계	20,705 (100)	7,223 (34.9)	13,482 (65.1)

〈표 44〉 처리 건수 상위 8개 직업성 질환별 2014년 대비 2023년 승인율

질병명	승인율 변화 (2023년-2014년)	대기업	승인율 변화 (2023년-2014년)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제)	+ 14.4%	심장질환	+ 8.1%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6.4%	악성 신생물	+ 23.8%
난청	+ 1.6%	정신질환 /자해행위	+ 32.5%
호흡기질환	- 23.2%	피부질환	+ 1.2%
뇌혈관질환	+ 11.9%	-	-

건설업은 처리 건수가 30.2배 증가하여 2014년 3.8% 비중에서 2023년 12.2%까지 늘었다. 처리 건수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업은 2017년 점유율 최대로 81.8%를 기록하고 2021년까지 매년 과반의 처리 건수를 보유했다. 기타의사업은 2019년까지 비중이 감소하여 한 자리 수 비중을 보이다, 급격히 증가해 2022년 한때 36.3%로 전 업종 중 최다 처리 건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처리 건수가 23.8배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가장 많이 처리된 업종이었다. 2016년~2020년까지 처리 건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은 2022년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승인율보다는 높았다. 2018년~2020년 잠시 승인율이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내림세로 분석됐다. 광업은 2022년까지 승인율이 일부 상승 없이 꾸준히 감소하여 15.2%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21%로 소폭 상승했다. 기타의사업은 처리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업종 중 유일하게 75.6%로 50%가 넘는 업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88.3%로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였는데, 이때 처리 건수도 가장 많아 호흡기질환 전체 승인율이 46.3%로 상승하게 했던 원인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승인율이 전체적인 내림세로 2023년에는 15.6%가 되었다. 이는 2023년 기준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표 45〉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397 (100)	15 (3.8)	269 (67.8)	0 (0.0)	45 (11.3)	0 (0.0)
2015	727 (100)	19 (2.6)	576 (79.2)	2 (0.3)	56 (7.7)	1 (0.1)
2016	1,288 (100)	25 (1.9)	1,057 (82.1)	4 (0.3)	47 (3.6)	2 (0.2)
2017	1,788 (100)	51 (2.9)	1,463 (81.8)	31 (1.7)	67 (3.7)	0 (0.0)
2018	1,627 (100)	73 (4.5)	1,254 (77.1)	20 (1.2)	78 (4.8)	1 (0.1)
2019	2,033 (100)	84 (4.1)	1,548 (76.1)	29 (1.4)	81 (4.0)	1 (0.0)
2020	1,717 (100)	123 (7.2)	1,132 (65.9)	15 (0.9)	177 (10.3)	0 (0.0)
2021	2,548 (100)	197 (7.7)	1,292 (50.7)	48 (1.9)	437 (17.2)	1 (0.0)
2022	4,859 (100)	322 (6.6)	1,425 (29.3)	152 (3.1)	1,763 (36.3)	1 (0.0)
2023	3,721 (100)	453 (12.2)	1,222 (32.8)	35 (0.9)	415 (11.2)	2 (0.1)
합계	20,705 (100)	1,362 (6.6)	11,238 (54.3)	336 (1.6)	3,166 (15.3)	9 (0.0)

〈표 45〉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397 (100)	0 (0.0)	8 (2.0)	0 (0.0)	0 (0.0)	60 (15.1)	0 (0.0)
2015	727 (100)	0 (0.0)	8 (1.1)	1 (0.1)	1 (0.1)	63 (8.7)	0 (0.0)
2016	1,288 (100)	0 (0.0)	13 (1.0)	2 (0.2)	1 (0.1)	136 (10.6)	0 (0.0)
2017	1,788 (100)	0 (0.0)	14 (0.8)	1 (0.1)	1 (0.1)	158 (8.8)	2 (0.1)
2018	1,627 (100)	0 (0.0)	15 (0.9)	0 (0.0)	1 (0.1)	183 (11.2)	2 (0.1)
2019	2,033 (100)	0 (0.0)	27 (1.3)	0 (0.0)	4 (0.2)	247 (12.1)	12 (0.6)
2020	1,717 (100)	0 (0.0)	42 (2.4)	0 (0.0)	1 (0.1)	221 (12.9)	6 (0.3)
2021	2,548 (100)	0 (0.0)	119 (4.7)	0 (0.0)	3 (0.1)	441 (17.3)	10 (0.4)
2022	4,859 (100)	0 (0.0)	180 (3.7)	1 (0.0)	7 (0.1)	994 (20.5)	14 (0.3)
2023	3,721 (100)	0 (0.0)	126 (3.4)	4 (0.1)	6 (0.2)	1,426 (38.3)	32 (0.9)
합계	20,705 (100)	0 (0.0)	552 (2.7)	9 (0.0)	25 (0.1)	3,929 (19.0)	78 (0.4)

〈표 46〉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82	8	124	0	25	0	—	1	0	0	24	—
2015	322	9	251	2	30	0	—	3	0	0	27	—
2016	508	11	424	4	19	0	—	4	0	0	46	—
2017	605	24	474	23	25	0	—	5	1	1	52	0
2018	537	26	391	7	31	1	—	3	0	0	78	0
2019	514	34	357	7	24	1	—	7	0	0	84	0
2020	512	55	241	1	131	0	—	22	0	0	62	0
2021	949	77	258	36	335	1	—	85	0	1	156	0
2022	2,250	91	216	123	1,556	1	—	56	0	1	206	0
2023	844	104	257	13	217	1	—	26	2	1	223	0
합계	7,223	439	2,993	216	2393	5	—	212	3	4	958	0

〈표 47〉 호흡기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45.8	53.3	46.1	-	55.6	-	-	12.5	-	-	40.0	-
2015	44.3	47.4	43.6	100	53.6	-	-	37.5	-	-	42.9	-
2016	39.4	44	40.1	100	40.4	-	-	30.8	-	-	33.8	-
2017	33.8	47.1	32.4	74.2	37.3	-	-	35.7	100	100	32.9	-
2018	33.0	35.6	31.2	35.0	39.7	100	-	20.0	-	-	42.6	-
2019	25.3	40.5	23.1	24.1	29.6	100	-	25.9	-	-	34.0	-
2020	29.8	44.7	21.3	6.7	74.0	-	-	52.4	-	-	28.1	-
2021	37.2	39.1	20.0	75.0	76.7	100	-	71.4	-	33.3	35.4	-
2022	46.3	28.3	15.2	80.9	88.3	100	-	31.1	-	14.3	20.7	-
2023	22.7	23.0	21.0	37.1	52.3	50.0	-	20.6	50.0	16.7	15.6	-
합계	34.9	32.2	26.6	64.3	75.6	55.6	-	38.4	33.3	16.0	24.4	-

호흡기질환 신청이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는 대기업으로 총 8,536건(41.2%)이 처리되었다. 2015년 비율 40%를 넘어 2015년~2022년까지 가장 많이 처리되었다. 다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처리 건수가 감소하여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중기업은 2014년 30%대에서 2019년 19.7%까지 비율이 감소했다가 2020년대 들어 상승하여 24%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기업은 30% 초반을 유지하다 2023년 다른 규모는 처리 건수가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증가하여 40%의 비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세 규모가 모두 30%대의 처리 비율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소기업이 증가하였다.

〈표 48〉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397 (100)	136 (34.3)	119 (30.0)	142 (35.8)	0 (0.0)
2015	727 (100)	316 (43.5)	206 (28.3)	205 (28.2)	0 (0.0)
2016	(1,288)	—	—	—	—
2017	1,788 (100)	823 (46.0)	419 (23.4)	541 (30.3)	5 (0.3)
2018	1,627 (100)	818 (50.3)	348 (21.4)	457 (28.1)	4 (0.2)
2019	2,033 (100)	1,023 (50.3)	401 (19.7)	609 (30.0)	0 (0.0)
2020	1,717 (100)	837 (48.7)	374 (21.8)	506 (29.5)	0 (0.0)
2021	2,548 (100)	1,081 (42.4)	627 (24.6)	840 (33.0)	0 (0.0)
2022	4,859 (100)	2,193 (45.1)	1,198 (24.7)	1,468 (30.2)	0 (0.0)
2023	3,721 (100)	1,309 (35.2)	917 (24.6)	1,495 (40.2)	0 (0.0)
합계	19,417 (100)	8,536 (44.0)	4,609 (23.7)	6,263 (32.3)	9 (0.0)

대기업은 2015년까지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나 이후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기업은 2019년부터 총 승인율보다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소기업은 2021년까지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나 2022년부터 낮아졌다. 승인율의

일시적 상승, 하락은 있으나, 세 규모 모두 승인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특정 규모의 승인율이 높지 않고, 30%대로 비교적 유사하다.

〈표 49〉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82	72	48	62	-
2015	322	145	82	95	-
2016	508	-	-	-	-
2017	605	250	153	202	0
2018	537	255	108	174	0
2019	514	248	103	163	-
2020	512	219	116	177	-
2021	949	354	244	351	-
2022	2,250	1,007	649	594	-
2023	844	296	234	314	-
합계	7,223	2,846	1,737	2,132	0

〈표 50〉 호흡기질환의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45.8	52.9	40.3	43.7	-
2015	44.3	45.9	39.8	46.3	-
2016	39.4	-	-	-	-
2017	33.8	30.4	36.5	37.3	0.0
2018	33.0	31.2	31.0	38.1	0.0
2019	25.3	24.2	25.7	26.8	-
2020	29.8	26.2	31.0	35.0	-
2021	37.2	32.7	38.9	41.8	-
2022	46.3	45.9	54.2	40.5	-
2023	22.7	22.6	25.5	21.0	-
합계	34.9	33.3	37.7	34.0	0.0

호흡기질환으로 가장 많이 처리된 연령대는 60대로 총 8,385건(40.5%)이 처리되었다. 뒤이어 70대, 50대, 80대 순으로 고령층에서 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에는 70대가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그다음이 60대였으나, 2016년부터 60대 처리 건수가 많아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70대는 2023년에 유일하게 처리 건수가 증가한 연령대로 추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전 연령대가 2022년까지 처리 건수가 증가하다가 2023년 한 해 처리 건수가 감소했다.

절대적인 처리 건수가 차이가 나는 상태이긴 하나, 고연령대의 승인율이 높았던 근골격계질환과 난청과는 반대로 대체로 고연령대보다 저연령대의 승인율이 높았다. 60대는 2017년 단 한 번 총 승인율보다 높았고, 70대는 2019년부터 총 승인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80대는 변동 폭이 컸으나 70대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는 총 승인율보다 낮다. 반면에 20대는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게 분석됐고, 30대는 2016년을 제외하고 총 승인율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는 2020년부터 총 승인율을 넘어섰다.

〈표 51〉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397 (100)	0 (0.0)	12 (3.0)	18 (4.5)	16 (4.0)	48 (12.1)
2015	727 (100)	0 (0.0)	15 (2.1)	10 (1.4)	18 (2.5)	95 (13.1)
2016	1,288 (100)	0 (0.0)	5 (0.4)	15 (1.2)	21 (1.6)	200 (15.5)
2017	1,788 (100)	0 (0.0)	5 (0.3)	12 (0.7)	22 (1.2)	189 (10.6)
2018	1,627 (100)	0 (0.0)	9 (0.6)	14 (0.9)	18 (1.1)	163 (10.0)
2019	2,033 (100)	0 (0.0)	4 (0.2)	15 (0.7)	22 (1.1)	183 (9.0)
2020	1,717 (100)	0 (0.0)	17 (1.0)	38 (2.2)	49 (2.9)	146 (8.5)
2021	2,548 (100)	1 (0.0)	59 (2.3)	99 (3.9)	125 (4.9)	268 (10.5)
2022	4,859 (100)	1 (0.0)	211 (4.3)	257 (5.3)	323 (6.6)	663 (13.6)
2023	3,721 (100)	0 (0.0)	30 (0.8)	54 (1.5)	82 (2.2)	298 (8.0)
합계	20,705 (100)	2 (0.0)	367 (1.8)	532 (2.6)	696 (3.4)	2,253 (10.9)

〈표 51〉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2014	397 (100)	118 (29.7)	149 (37.5)	36 (9.1)	0 (0.0)	0 (0.0)
2015	727 (100)	249 (34.3)	288 (39.6)	51 (7.0)	1 (0.1)	0 (0.0)
2016	1,288 (100)	539 (41.8)	452 (35.1)	53 (4.1)	3 (0.2)	0 (0.0)
2017	1,788 (100)	708 (39.6)	699 (39.1)	152 (8.5)	1 (0.1)	0 (0.0)
2018	1,627 (100)	686 (42.2)	600 (36.9)	134 (8.2)	3 (0.2)	0 (0.0)
2019	2,033 (100)	959 (47.2)	689 (33.9)	158 (7.8)	3 (0.1)	0 (0.0)
2020	1,717 (100)	756 (44.0)	574 (33.4)	136 (7.9)	1 (0.1)	0 (0.0)
2021	2,548 (100)	994 (39.0)	812 (31.9)	187 (7.3)	3 (0.1)	0 (0.0)
2022	4,859 (100)	1,816 (37.4)	1,232 (25.4)	350 (7.2)	6 (0.1)	0 (0.0)
2023	3,721 (100)	1,560 (41.9)	1,387 (37.3)	306 (8.2)	3 (0.1)	1 (0.0)
합계	20,705 (100)	8,385 (40.5)	6,882 (33.2)	1,563 (7.5)	24 (0.1)	1 (0.0)

〈표 52〉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2014	182	—	6	10	7	20	54	69	16	—	—
2015	322	—	10	8	9	27	106	134	27	1	—
2016	508	—	4	4	5	67	217	195	15	1	—
2017	605	—	4	10	8	42	214	275	52	0	—
2018	537	—	6	8	6	43	212	210	50	2	—
2019	514	—	3	10	5	49	237	170	39	1	—
2020	512	—	15	29	39	57	191	142	39	0	—
2021	949	1	53	89	99	167	326	171	41	2	—
2022	2,250	1	189	219	273	519	753	248	47	1	—
2023	844	—	24	34	47	132	328	233	45	0	1
합계	7,223	2	314	421	498	1,123	2,638	1,847	371	8	1

〈표 53〉 호흡기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2014	45.8	—	50.0	55.6	43.8	41.7	45.8	46.3	44.4	—	—
2015	44.3	—	66.7	80.0	50.0	28.4	42.6	46.5	52.9	100	—
2016	39.4	—	80.0	26.7	23.8	33.5	40.3	43.1	28.3	33.3	—
2017	33.8	—	80.0	83.3	36.4	22.2	30.2	39.3	34.2	0.0	—
2018	33	—	66.7	57.1	33.3	26.4	30.9	35.0	37.3	66.7	—
2019	25.3	—	75.0	66.7	22.7	26.8	24.7	24.7	24.7	33.3	—
2020	29.8	—	88.2	76.3	79.6	39.0	25.3	24.7	28.7	0.0	—
2021	37.2	100	89.8	89.9	79.2	62.3	32.8	21.1	21.9	66.7	—
2022	46.3	100	89.6	85.2	84.5	78.3	41.5	20.1	13.4	16.7	—
2023	22.7	—	80.0	63.0	57.3	44.3	21.0	16.8	14.7	0.0	100
합계	34.9	100	85.6	79.1	71.6	49.8	31.5	26.8	23.7	33.3	100

호흡기질환은 남성의 처리 건수의 비율이 2017년 최다인 96.1%를 보인 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81.4%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는 여성이 전년 대비 31.7% 수준으로 떨어져 남성의 처리 비율이 다시 92.3%로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 관련 신청의 약 45.5%가 여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4〉 호흡기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397 (100)	351 (88.4)	46 (11.6)
2015	727 (100)	654 (90.0)	73 (10.0)
2016	1,288 (100)	1,229 (95.4)	59 (4.6)
2017	1,788 (100)	1,718 (96.1)	70 (3.9)
2018	1,627 (100)	1,546 (95.0)	81 (5.0)
2019	2,033 (100)	1,940 (95.4)	93 (4.6)
2020	1,717 (100)	1,562 (91.0)	155 (9.0)
2021	2,548 (100)	2,198 (86.3)	350 (13.7)
2022	4,859 (100)	3,955 (81.4)	904 (18.6)
2023	3,721 (100)	3,434 (92.3)	287 (7.7)
합계	20,705 (100)	18,587 (89.8)	2,11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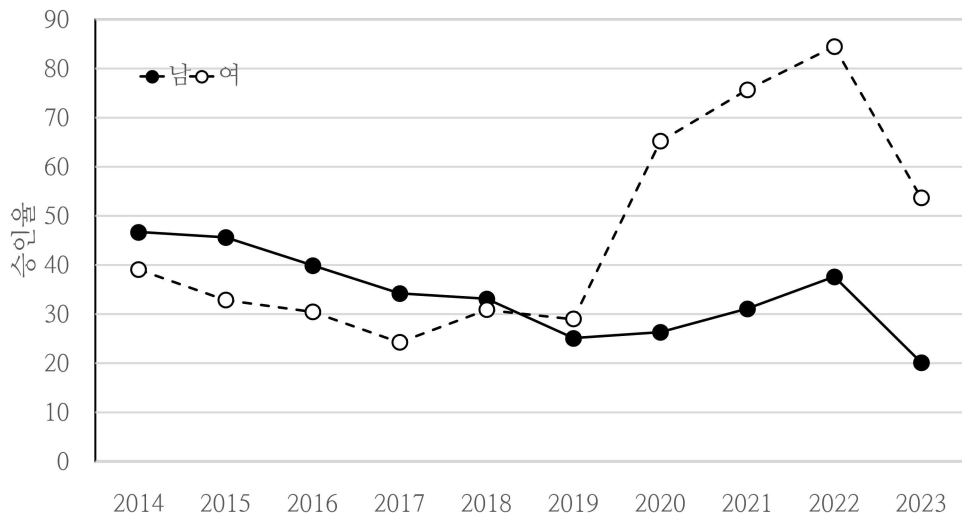
남성은 2014년 최고 승인율 46.7%를 보인 후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까지 상승 후 2023년 다시 감소하였다. 여성은 2018년까지 남성의 승인율보다 낮았는데 2019년 남성의 승인율을 넘어선 것이 특이점이었다. 여성은 2022년에는 최고 승인율로 84.5%를 보였고, 2023년 일부 감소했지만 50%가 넘는 승인율로 분석됐다.

〈표 55〉 호흡기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182	164	18
2015	322	298	24
2016	508	490	18
2017	605	588	17
2018	537	512	25
2019	514	487	27
2020	512	411	101
2021	949	684	265
2022	2,250	1,486	764
2023	844	690	154
합계	7,223	5,810	1,413

〈표 56〉 호흡기질환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45.8	46.7	39.1
2015	44.3	45.6	32.9
2016	39.4	39.9	30.5
2017	33.8	34.2	24.3
2018	33.0	33.1	30.9
2019	25.3	25.1	29.0
2020	29.8	26.3	65.2
2021	37.2	31.1	75.7
2022	46.3	37.6	84.5
2023	22.7	20.1	53.7
합계	34.9	31.3	66.7



[그림 8] 호흡기질환 성별 승인율 변화 추이.

호흡기질환의 사망 관련 처리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14~2020년까지 30~40여 건만이 처리되었는데 2021년부터 70여 건이 처리되어 적은 수지만 약 2배 증가하였다.

<표 57>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397 (100)	32 (8.1)	365 (91.9)
2015	727 (100)	27 (3.7)	700 (96.3)
2016	1,288 (100)	41 (3.2)	1,247 (96.8)
2017	1,788 (100)	41 (2.3)	1,747 (97.7)
2018	1,627 (100)	49 (3.0)	1,578 (97.0)
2019	2,033 (100)	35 (1.7)	1,998 (98.3)
2020	1,717 (100)	33 (1.9)	1,684 (98.1)
2021	2,548 (100)	69 (2.7)	2,479 (97.3)
2022	4,859 (100)	77 (1.6)	4,782 (98.4)
2023	3,721 (100)	77 (2.1)	3,644 (97.9)
합계	20,705 (100)	481 (2.3)	20,224 (97.7)

호흡기질환 사망 관련 건은 전 기간 비 사망 관련 건보다 승인율이 높았다. 비 사망 관련 승인율이 2014~2019년까지 하락, 2022년까지 3년간 상승 후 2023년 하락하는 동안, 사망 관련 승인율은 2014~2015년 50%대 승인율을 보이다 2016~2019년까지 40% 초반의 승인율을 유지했다. 이후 2020~2021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최고 72.5%까지 상승했는데, 이후 매년 20% 가까이 승인율이 감소하여 2023년 35.1%로 분석됐다.

〈표 58〉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Y	N
2014	182	17	165
2015	322	14	308
2016	508	17	491
2017	605	17	588
2018	537	20	517
2019	514	15	499
2020	512	22	490
2021	949	50	899
2022	2,250	40	2,210
2023	844	27	817
합계	7,223	239	6,984

〈표 59〉 호흡기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Y	N
2014	45.8	53.1	45.2
2015	44.3	51.9	44.0
2016	39.4	41.5	39.4
2017	33.8	41.5	33.7
2018	33.0	40.8	32.8
2019	25.3	42.9	25.0
2020	29.8	66.7	29.1
2021	37.2	72.5	36.3
2022	46.3	51.9	46.2
2023	22.7	35.1	22.4
합계	34.9	49.7	34.5

2.4.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2019년 한 해 2,000건 넘게 처리되기도 하였으나 보통 1,500건 내외의 처리 건수를 보이며, 별다른 처리 건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까지는 승인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 33.7%(524건)의 승인율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은 최근 10년간 33.2%의 승인율로 전체 19개 질환 중 4번째로 낮았으며,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에는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표 60〉 연도별 뇌혈관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1,454 (100)	318 (21.9)	1,136 (78.1)
2015	1,427 (100)	330 (23.1)	1,097 (76.9)
2016	1,363 (100)	291 (21.3)	1,072 (78.7)
2017	1,352 (100)	434 (32.1)	918 (67.9)
2018	1,410 (100)	587 (41.6)	823 (58.4)
2019	2,067 (100)	850 (41.1)	1,217 (58.9)
2020	1,806 (100)	706 (39.1)	1,100 (60.9)
2021	1,691 (100)	646 (38.2)	1,045 (61.8)
2022	1,402 (100)	471 (33.6)	931 (66.4)
2023	1,553 (100)	524 (33.7)	1,029 (66.3)
합계	15,525 (100)	5,157 (33.2)	10,368 (66.8)

기타의사업과 제조업은 뇌혈관질환의 처리 비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업종이다. 기타의사업은 전 업종 중 유일하게 처리 비중이 5%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6.4% 처리 비중이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2018년 13.5건으로 처리 비중이 한 자릿수(9.6%)로 내려오기도 했으나 2016년 10%를 넘기고 2017년 이후 꾸준히 12%의 처리 비중을 보인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10% 초반의 처리 비중을 보였다. 뇌혈관질환의 전체 처리 건수가 2014년 대비 2023년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기타의사업과, 제조업 외에는 전체 처리 건수도 변화가 적었다.

가장 처리 건수가 많은 기타의사업, 제조업은 2016년에 각각 최저점인 18.9%, 26%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2018년 최고 승인율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제조업은 이후 지속 하락하여 29.4%까지 떨어졌고, 기타의사업은 2021년까지 39% 이상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전체적으로

총 승인율보다 낮게 유지됐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전체 기간 승인율이 42.2%로 총 승인율보다 9% 높았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게 분석됐다.

〈표 61〉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1,454 (100)	142 (9.8)	2 (0.1)	24 (1.7)	639 (43.9)	9 (0.6)
2015	1,427 (100)	137 (9.6)	4 (0.3)	28 (2.0)	682 (47.8)	10 (0.7)
2016	1,363 (100)	148 (10.9)	4 (0.3)	17 (1.2)	651 (47.8)	7 (0.5)
2017	1,352 (100)	162 (12.0)	1 (0.1)	36 (2.7)	652 (48.2)	3 (0.2)
2018	1,410 (100)	135 (9.6)	3 (0.2)	20 (1.4)	691 (49.0)	5 (0.4)
2019	2,067 (100)	266 (12.9)	6 (0.3)	35 (1.7)	1,013 (49.0)	10 (0.5)
2020	1,806 (100)	220 (12.2)	3 (0.2)	35 (1.9)	894 (49.5)	5 (0.3)
2021	1,691 (100)	213 (12.6)	4 (0.2)	25 (1.5)	839 (49.6)	4 (0.2)
2022	1,402 (100)	169 (12.1)	7 (0.5)	26 (1.9)	677(48.3)	10 (0.7)
2023	1,553 (100)	188 (12.1)	3 (0.2)	30 (1.9)	756 (48.7)	6 (0.4)
합계	15,525 (100)	1,780 (11.5)	37 (0.2)	276 (1.8)	7,494 (48.3)	69 (0.4)

〈표 61〉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454 (100)	0 (0.0)	181 (12.4)	4 (0.3)	3 (0.2)	436 (30.0)	14 (1.0)
2015	1,427 (100)	1 (0.1)	177 (12.4)	11 (0.8)	2 (0.1)	370 (25.9)	5 (0.4)
2016	1,363 (100)	2 (0.1)	151 (11.1)	4 (0.3)	3 (0.2)	362 (26.6)	0 (0.0)
2017	1,352 (100)	2 (0.1)	160 (11.8)	4 (0.3)	3 (0.2)	325 (24.0)	4 (0.3)
2018	1,410 (100)	1 (0.1)	155 (11.0)	2 (0.1)	3 (0.2)	391 (27.7)	4 (0.3)
2019	2,067 (100)	0 (0.0)	247 (11.9)	3 (0.1)	4 (0.2)	479 (23.2)	4 (0.2)
2020	1,806 (100)	0 (0.0)	239 (13.2)	2 (0.1)	5 (0.3)	399 (22.1)	4 (0.2)
2021	1,691 (100)	1 (0.1)	174(10.3)	2 (0.1)	5 (0.3)	410 (24.2)	14 (0.8)
2022	1,402 (100)	0 (0.0)	175 (12.5)	3 (0.2)	1 (0.1)	330 (23.5)	4 (0.3)
2023	1,553 (100)	2 (0.1)	195 (12.6)	2 (0.1)	1 (0.1)	367 (23.6)	3 (0.2)
합계	15,525 (100)	9 (0.1)	1,854 (11.9)	37 (0.2)	30 (0.2)	3,869 (24.9)	56 (0.4)

〈표 62〉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318	17	0	3	126	1	—	43	1	1	126	0
2015	330	31	0	7	149	2	0	39	0	1	101	0
2016	291	28	0	3	123	2	1	40	0	0	94	—
2017	434	39	1	17	202	0	2	57	0	1	115	0
2018	587	50	2	6	277	3	0	75	1	1	172	0
2019	850	86	4	3	403	5	—	142	1	2	204	0
2020	706	59	2	7	349	2	—	133	0	3	151	0
2021	646	64	2	1	330	3	1	85	0	1	159	0
2022	471	41	3	6	225	5	—	79	2	0	110	0
2023	524	50	2	4	264	4	1	90	1	0	108	0
합계	5,157	465	16	57	2,448	27	5	783	6	10	1,340	0

〈표 63〉 뇌혈관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21.9	12	0.0	12.5	19.7	11.1	—	23.8	25.0	33.3	28.9	0.0
2015	23.1	22.6	0.0	25.0	21.8	20.0	—	22.0	0.0	50.0	27.3	0.0
2016	21.3	18.9	0.0	17.6	18.9	28.6	50.0	26.5	0.0	0.0	26.0	—
2017	32.1	24.1	100	47.2	31.0	0.0	100	35.6	0.0	33.3	35.4	0.0
2018	41.6	37.0	66.7	30.0	40.1	60.0	—	48.4	50.0	33.3	44.0	0.0
2019	41.1	32.3	66.7	8.6	39.8	50.0	—	57.5	33.3	50.0	42.6	0.0
2020	39.1	26.8	66.7	20.0	39.0	40.0	—	55.6	0.0	60.0	37.8	0.0
2021	38.2	30.0	50.0	4.0	39.3	75.0	100	48.9	20.0	20.0	38.8	0.0
2022	33.6	24.3	42.9	23.1	33.2	50.0	—	45.1	66.7	0.0	33.3	0.0
2023	33.7	26.6	66.7	13.3	34.9	66.7	50.0	46.2	50.0	0.0	29.4	0.0
합계	33.2	26.1	43.2	20.7	32.7	39.1	55.6	42.2	16.2	33.3	34.6	0.0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는 소기업으로, 최소 비율로 기록된 해가 2022년인데 56.5%일 정도로 많이 처리되었다. 중기업은 2019년을 제외하고 200~300건의 처리 건수를 보였다. 대기업은 2018년 400건을 넘어선 뒤 3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업과 대기업은 20% 내외의 처리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표 64〉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454 (100)	243 (16.7)	311 (21.4)	884 (60.8)	16 (1.1)
2015	1,427 (100)	242 (17.0)	325 (22.8)	855 (59.9)	5 (0.4)
2016	(1,363)	—	—	—	—
2017	1,352 (100)	241 (17.8)	309 (22.9)	796 (58.9)	6 (0.4)
2018	1,410 (100)	260 (18.4)	284 (20.1)	862 (61.1)	4 (0.3)
2019	2,067 (100)	418 (20.2)	465 (22.5)	1,184 (57.3)	—
2020	1,806 (100)	368 (20.4)	359 (19.9)	1,079 (59.7)	—
2021	1,691 (100)	345 (20.4)	326 (19.3)	1,020 (60.3)	—
2022	1,402 (100)	304 (21.7)	306 (21.8)	792 (56.5)	—
2023	1,553 (100)	363 (23.4)	293 (18.9)	897 (57.8)	—
합계	14,162 (100)	2,784 (19.7)	2,978 (21.0)	8,369 (59.1)	31 (0.2)

소기업은 2018년 한 해 총 승인율보다 0.1%가 낮긴 했으나, 그 외 전 기간 더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반면에 대기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중기업은 총 승인율과 유사하게 유지되며 변동 폭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대체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으로 승인이 잘 됐던 것으로 보인다.

〈표 65〉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318	35	66	217	—
2015	330	50	71	209	—
2016	291	—	—	—	—
2017	434	65	100	269	—
2018	587	108	121	358	—
2019	850	141	210	499	—
2020	706	118	149	439	—
2021	646	111	116	419	—
2022	471	82	102	287	—
2023	524	111	87	326	—
합계	5,157	821	1,022	3,023	—

〈표 66〉 뇌혈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21.9	14.4	21.2	24.5	—
2015	23.1	20.7	21.8	24.4	—
2016	21.3	—	—	—	—
2017	32.1	27.0	32.4	33.8	—
2018	41.6	41.5	42.6	41.5	—
2019	41.1	33.7	45.2	42.1	—
2020	39.1	32.1	41.5	40.7	—
2021	38.2	32.2	35.6	41.1	—
2022	33.6	27.0	33.3	36.2	—
2023	33.7	30.6	29.7	36.3	—
합계	33.2	29.5	34.3	36.1	—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처리된 연령대는 50대로 총 5,755건(37.1%)이었고, 2014년부터 전 기간 최다 처리 연령대였다. 두 번째는 60대로 3,895건(25.1%), 세 번째가 40대 3,381건(21.8%)이었다. 40대는 2016년까지는 두 번째로 많이 처리된 연령대였는데 2017년부터 60대의 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세 번째가 되었다.

처리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연령대 30~70대는 모두 평균 승인율이 30% 초반으로 분석됐다. 가장 처리 건수가 많았던 40~60대는 일부 수치상 차이는 있으나 2016년에 가장 승인율이 낮았고 지속 상승하여 2018~2019년경 최고 승인율을 보인 후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다. 70대는 2016년 최저를 보인 후 2018년부터 등락을 반복하며 40% 내외의 승인율을 보이다 2023년 30.4%로 하락했다. 30대는 비교적 2014년부터 승인율을 30~40%를 유지했으나 2022년 한해만 24.3%의 낮은 승인율로 분석됐다.

〈표 67〉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1,454 (100)	1 (0.1)	26 (1.8)	136 (9.4)	369 (25.4)	563 (38.7)
2015	1,427 (100)	0 (0.0)	29 (2.0)	140 (9.8)	380 (26.6)	520 (36.4)
2016	1,363 (100)	1 (0.1)	24 (1.8)	137 (10.1)	352 (25.8)	525 (38.5)
2017	1,352 (100)	1 (0.1)	20 (1.5)	117 (8.7)	315 (23.3)	486 (35.9)
2018	1,410 (100)	0 (0.0)	35 (2.5)	92 (6.5)	310 (22.0)	547 (38.8)
2019	2,067 (100)	0 (0.0)	21 (1.0)	117 (5.7)	451 (21.8)	774 (37.4)
2020	1,806 (100)	1 (0.1)	19 (1.1)	126 (7.0)	361 (20.0)	646 (35.8)
2021	1,691 (100)	0 (0.0)	21 (1.2)	98 (5.8)	325 (19.2)	614 (36.3)
2022	1,402 (100)	0 (0.0)	9 (0.6)	74 (5.3)	237 (16.9)	515 (36.7)
2023	1,553 (100)	1 (0.1)	21 (1.4)	103 (6.6)	281 (18.1)	565 (36.4)
합계	15,525 (100)	5 (0.0)	225 (1.4)	1,140 (7.3)	3,381 (21.8)	5,755 (37.1)

〈표 67〉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454 (100)	270 (18.6)	85 (5.8)	4 (0.3)	0 (0.0)
2015	1,427 (100)	275 (19.3)	80 (5.6)	3 (0.2)	0 (0.0)
2016	1,363 (100)	251 (18.4)	71 (5.2)	2 (0.1)	0 (0.0)
2017	1,352 (100)	321 (23.7)	89 (6.6)	3 (0.2)	0 (0.0)
2018	1,410 (100)	319 (22.6)	103 (7.3)	4 (0.3)	0 (0.0)
2019	2,067 (100)	539 (26.1)	158 (7.6)	7 (0.3)	0 (0.0)
2020	1,806 (100)	517 (28.6)	126 (7.0)	10 (0.6)	0 (0.0)
2021	1,691 (100)	499 (29.5)	128 (7.6)	6 (0.4)	0 (0.0)
2022	1,402 (100)	440 (31.4)	120 (8.6)	6 (0.4)	1 (0.1)
2023	1,553 (100)	464 (29.9)	112 (7.2)	6 (0.4)	0 (0.0)
합계	15,525 (100)	3,895 (25.1)	1,072 (6.9)	51 (0.3)	1 (0.0)

〈표 68〉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318	0	3	43	92	117	49	14	0	—
2015	330	—	2	42	105	122	49	10	0	—
2016	291	0	4	43	88	116	34	6	0	—
2017	434	1	4	47	110	175	79	18	0	—
2018	587	—	8	35	139	233	131	39	2	—
2019	850	—	8	42	192	314	228	64	2	—
2020	706	1	5	49	136	256	212	44	3	—
2021	646	—	7	37	129	227	188	55	3	—
2022	471	—	5	18	83	167	149	48	1	0
2023	524	0	2	35	98	197	156	34	2	—
합계	5,157	2	48	391	1,172	1,924	1,275	332	13	0

〈표 69〉 뇌혈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21.9	0.0	11.5	31.6	24.9	20.8	18.1	16.5	0.0	—
2015	23.1	0.0	6.9	30.0	27.6	23.5	17.8	12.5	0.0	—
2016	21.3	0.0	16.7	31.4	25.0	22.1	13.5	8.5	0.0	—
2017	32.1	100	20.0	40.2	34.9	36.0	24.6	20.2	0.0	—
2018	41.6	0.0	22.9	38.0	44.8	42.6	41.1	37.9	50.0	—
2019	41.1	0.0	38.1	35.9	42.6	40.6	42.3	40.5	28.6	—
2020	39.1	100	26.3	38.9	37.7	39.6	41.0	34.9	30.0	—
2021	38.2	0.0	33.3	37.8	39.7	37.0	37.7	43.0	50.0	—
2022	33.6	0.0	55.6	24.3	35.0	32.4	33.9	40.0	16.7	0.0
2023	33.7	0.0	9.5	34.0	34.9	34.9	33.6	30.4	33.3	—
합계	33.2	40.0	21.3	34.3	34.7	33.4	32.7	31.0	25.5	0.0

뇌혈관질환은 남성 약 80%, 여성 약 20%의 처리 비율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차는 2017년 65.6%로 최대였고, 2021년 55.2%로 최소였다.

〈표 70〉 뇌혈관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1,454 (100)	1,180 (81.2)	274 (18.8)
2015	1,427 (100)	1,153 (80.8)	274 (19.2)
2016	1,363 (100)	1,106 (81.1)	257 (18.9)
2017	1,352 (100)	1,120 (82.8)	232 (17.2)
2018	1,410 (100)	1,140 (80.9)	270 (19.1)
2019	2,067 (100)	1,674 (81.0)	393 (19.0)
2020	1,806 (100)	1,457 (80.7)	349 (19.3)
2021	1,691 (100)	1,312 (77.6)	379 (22.4)
2022	1,402 (100)	1,126 (80.3)	276 (19.7)
2023	1,553 (100)	1,225 (78.9)	328 (21.1)
합계	15,525 (100)	12,493 (80.5)	3,032 (19.5)

뇌혈관질환은 남성이 여성보다 총 승인율이 11.1% 높았다. 남성은 2016년까지 22~24%의 승인율을 보이다 2019년 44.6%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여 2023년 36.5%로 분석됐다. 여성은 2016년까지 10% 후반의 승인율을 보이다 2017년 한 해 15.7% 오른 32.8%로 최고 승인율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소폭 상승하였다.

〈표 71〉 뇌혈관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318	264	54
2015	330	284	46
2016	291	247	44
2017	434	358	76
2018	587	500	87
2019	850	747	103
2020	706	612	94
2021	646	546	100
2022	471	416	55
2023	524	447	77
합계	5,157	4,421	736

〈표 72〉 뇌혈관질환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21.9	22.4	19.7
2015	23.1	24.6	16.8
2016	21.3	22.3	17.1
2017	32.1	32	32.8
2018	41.6	43.9	32.2
2019	41.1	44.6	26.2
2020	39.1	42	26.9
2021	38.2	41.6	26.4
2022	33.6	36.9	19.9
2023	33.7	36.5	23.5
합계	33.2	35.4	24.3

뇌혈관질환 사망 관련 건은 2019년 한 해 300건을 넘기도 했으나, 나머지는 200여 건 처리 건수를 보였다. 비중은 최저 14.7%에서 최대 17%까지 보였으나 보통 15%대의 비율로 처리되었다.

〈표 73〉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1,454 (100)	223 (15.3)	1,231 (84.7)
2015	1,427 (100)	227 (15.9)	1,200 (84.1)
2016	1,363 (100)	218 (16.0)	1,145 (84.0)
2017	1,352 (100)	215 (15.9)	1,137 (84.1)
2018	1,410 (100)	208 (14.8)	1,202 (85.2)
2019	2,067 (100)	310 (15.0)	1,757 (85.0)
2020	1,806 (100)	272 (15.1)	1,534 (84.9)
2021	1,691 (100)	288 (17.0)	1,403 (83.0)
2022	1,402 (100)	206 (14.7)	1,196 (85.3)
2023	1,553 (100)	235 (15.1)	1,318 (84.9)
합계	15,525 (100)	2,402 (15.5)	13,123 (84.5)

사망 관련 신청 건과 비 사망 신청 건의 승인율은 각각 33.6%, 33.1%로 3% 정도의 승인율을 보였다. 비 사망 신청 건은 총 승인율과 1% 미만의 차이만을 보였으며, 최대 차이가 2014년 0.9% 차이였다. 사망 관련 신청 건은 2017년까지는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나 이후 낮아졌다. 2020년, 2021년에 1% 미만의 차이로 더 높기도 했으나 2022년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표 74〉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Y	N
2014	318	60	258
2015	330	57	273
2016	291	55	236
2017	434	78	356
2018	587	84	503
2019	850	117	733
2020	706	108	598
2021	646	111	535
2022	471	63	408
2023	524	75	449
합계	5,157	808	4,349

〈표 75〉 뇌혈관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Y	N
2014	21.9	26.9	21
2015	23.1	25.1	22.8
2016	21.3	25.2	20.6
2017	32.1	36.3	31.3
2018	41.6	40.4	41.8
2019	41.1	37.7	41.7
2020	39.1	39.7	39.0
2021	38.2	38.5	38.1
2022	33.6	30.6	34.1
2023	33.7	31.9	34.1
합계	33.2	33.6	33.1

2.5.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연평균 529건 처리되었는데, 처리 건수가 2014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심장질환은 전체 승인을 33.9%로 처리 건수 1,000건 이상 질환 중 뇌혈관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질환이었다. 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유사하게 2018년까지 승인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31.3%의 승인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과 함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승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일정 직종, 근무 기간, 유효기간 등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근골격계질환과 달리,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환경 변화 등 인정 기준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어 승인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76〉 연도별 심장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546 (100)	127 (23.3)	419 (76.7)
2015	482 (100)	116 (24.1)	366 (75.9)
2016	482 (100)	116 (24.1)	366 (75.9)
2017	463 (100)	150 (32.4)	313 (67.6)
2018	528 (100)	225 (42.6)	303 (57.4)
2019	627 (100)	261 (41.6)	366 (58.4)
2020	574 (100)	222 (38.7)	352 (61.3)
2021	585 (100)	226 (38.6)	359 (61.4)
2022	520 (100)	200 (38.5)	320 (61.5)
2023	482 (100)	151 (31.3)	331 (68.7)
합계	5,289 (100)	1,794 (33.9)	3,495 (66.1)

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유사하게 전 기간 처리 건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타의사업(2,217건, 41.9%), 제조업(1,393건, 26.3%)이 주를 이뤘다. 뇌혈관질환과의 차이점은 기타의사업이 아닌 건설업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건설업이 총 6.2%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은 5.4% 감소하였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서 모두 제조업의 처리 비중이 낮아졌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0% 초반의 비중을 지속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처리 건수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승인율은 2022년 최고치(34.6%)를 기록하고 2023년 16.7%로 많이 감소했다. 단 한 번도 건설업은 총 승인율 이상의 승인율을 보이지 못했다. 기타의사업은 총 승인율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2018년 46.5%로 최고 승인율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다만, 40% 이상의 승인율로 뇌혈관질환보다는 다소 높은 승인율을 보인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17년 이후 총 승인율보다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100건 이상 처리된 업종 중 가장 높은 승인율로 전 기간 39.2%였다. 뇌·심장질환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총 승인율과 비슷한 추이와 수치를 보였는데 2022년 이후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전 기간 승인율은 총 승인율보다 1.3% 높다.

〈표 77〉 심장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546 (100)	75 (13.7)	1 (0.2)	12 (2.2)	227 (41.6)	1 (0.2)
2015	482 (100)	69 (14.3)	1 (0.2)	10 (2.1)	188 (39.0)	3 (0.6)
2016	482 (100)	56 (11.6)	2 (0.4)	7 (1.5)	228 (47.3)	0 (0.0)
2017	463 (100)	63 (13.6)	1 (0.2)	14 (3.0)	181 (39.1)	2 (0.4)
2018	528 (100)	66 (12.5)	3 (0.6)	8 (1.5)	215 (40.7)	4 (0.8)
2019	627 (100)	100 (15.9)	1 (0.2)	9 (1.4)	250 (39.9)	8 (1.3)
2020	574 (100)	86 (15.0)	4 (0.7)	10 (1.7)	260 (45.3)	0 (0.0)
2021	585 (100)	76 (13.0)	3 (0.5)	6 (1.0)	250 (42.7)	2 (0.3)
2022	520 (100)	78 (15.0)	2 (0.4)	9 (1.7)	216 (41.5)	2 (0.4)
2023	482 (100)	96 (19.9)	0 (0.0)	6 (1.2)	202 (41.9)	3 (0.6)
합계	5,289 (100)	765 (14.5)	18 (0.3)	91 (1.7)	2,217 (41.9)	25 (0.5)

〈표 77〉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46 (100)	0 (0.0)	57 (10.4)	9 (1.6)	6 (1.1)	152 (27.8)	6 (1.1)
2015	482 (100)	1 (0.2)	67 (13.9)	5 (1.0)	4 (0.8)	133 (27.6)	1 (0.2)
2016	482 (100)	0 (0.0)	56 (11.6)	4 (0.8)	5 (1.0)	122 (25.3)	0 (0.0)
2017	463 (100)	0 (0.0)	57 (12.3)	4 (0.9)	3 (0.6)	136 (29.4)	2 (0.4)
2018	528 (100)	0 (0.0)	72 (13.6)	5 (0.9)	2 (0.4)	149 (28.2)	4 (0.8)
2019	627 (100)	1 (0.2)	87 (13.9)	4 (0.6)	1 (0.2)	164 (26.2)	2 (0.3)
2020	574 (100)	0 (0.0)	81 (14.1)	1 (0.2)	1 (0.2)	130 (22.6)	1 (0.2)
2021	585 (100)	2 (0.3)	70 (12.0)	4 (0.7)	3 (0.5)	164 (28.0)	5 (0.9)
2022	520 (100)	1 (0.2)	72 (13.8)	0 (0.0)	2 (0.4)	135 (26.0)	3 (0.6)
2023	482 (100)	0 (0.0)	62 (12.9)	3 (0.6)	1 (0.2)	108 (22.4)	1 (0.2)
합계	5,289 (100)	5 (0.1)	681 (12.9)	39 (0.7)	28 (0.5)	1,393 (26.3)	25 (0.5)

〈표 78〉 심장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27	13	0	3	56	0	—	15	0	1	39	0
2015	116	10	0	3	48	0	0	15	1	2	37	0
2016	116	13	1	1	52	—	—	9	0	2	38	—
2017	150	16	0	4	50	0	—	23	0	0	57	0
2018	225	20	3	2	100	1	—	33	1	1	64	0
2019	261	27	0	1	112	4	0	46	0	0	71	0
2020	222	21	3	2	109	—	—	37	0	1	49	0
2021	226	21	1	2	100	1	1	34	1	1	64	0
2022	200	27	0	3	95	1	0	30	—	1	43	0
2023	151	16	—	0	81	0	—	25	1	0	28	0
합계	1,794	184	8	21	803	7	1	267	4	9	490	0

〈표 79〉 심장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23.3	17.3	0.0	25.0	24.7	0.0	0.0	26.3	0.0	16.7	25.7	0.0
2015	24.1	14.5	0.0	30.0	25.5	0.0	0.0	22.4	20.0	50.0	27.8	0.0
2016	24.1	23.2	50.0	14.3	22.8	0.0	0.0	16.1	0.0	40.0	31.1	0.0
2017	32.4	25.4	0.0	28.6	27.6	0.0	0.0	40.4	0.0	0.0	41.9	0.0
2018	42.6	30.3	100	25.0	46.5	25.0	0.0	45.8	20.0	50.0	43.0	0.0
2019	41.6	27.0	0.0	11.1	44.8	50.0	0.0	52.9	0.0	0.0	43.3	0.0
2020	38.7	24.4	75.0	20.0	41.9	0.0	0.0	45.7	0.0	100	37.7	0.0
2021	38.6	27.6	33.3	33.3	40.0	50.0	50.0	48.6	25.0	33.3	39.0	0.0
2022	38.5	34.6	0.0	33.3	44.0	50.0	0.0	41.7	0.0	50	31.9	0.0
2023	31.3	16.7	0.0	0.0	40.1	0.0	0.0	40.3	33.3	0.0	25.9	0.0
합계	33.9	24.1	44.4	23.1	36.2	28.0	20.0	39.2	10.3	32.1	35.2	0.0

심장질환이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는 소기업으로 매년 50% 이상이 처리되었다. 절대 건수의 증감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2019년부터 대기업이 중기업보다 더 많이 처리되고 있다.

〈표 80〉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46 (100)	116 (21.2)	128 (23.4)	296 (54.2)	6 (1.1)
2015	482 (100)	111 (23.0)	104 (21.6)	266 (55.2)	1 (0.2)
2016	(482)	—	—	—	—
2017	463 (100)	82 (17.7)	111 (24.0)	267 (57.7)	3 (0.6)
2018	528 (100)	114 (21.6)	137 (25.9)	273 (51.7)	4 (0.8)
2019	627 (100)	165 (26.3)	143 (22.8)	319 (50.9)	0 (0.0)
2020	574 (100)	142 (24.7)	127 (22.1)	305 (53.1)	0 (0.0)
2021	585 (100)	150 (25.6)	103 (17.6)	332 (56.8)	0 (0.0)
2022	520 (100)	140 (26.9)	103 (19.8)	277 (53.3)	0 (0.0)
2023	482 (100)	130 (27.0)	105 (21.8)	247 (51.2)	0 (0.0)
합계	4,807 (100)	1,150 (23.9)	1,061 (22.1)	2,582 (53.7)	14 (0.3)

심장질환 승인율이 가장 높은 규모는 중기업으로 총 40.6%의 승인율을 보였다. 중기업은 2015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대기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았으며, 소기업은 총 승인율 부근의 승인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승인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표 81〉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27	22	35	70	0
2015	116	22	24	70	0
2016	116	—	—	—	—
2017	150	22	41	86	1
2018	225	46	68	111	0
2019	261	49	73	139	—
2020	222	53	53	116	—
2021	226	49	52	125	—
2022	200	43	47	110	—
2023	151	34	38	79	—
합계	1,794	340	431	906	1

〈표 82〉 심장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23.3	19.0	27.3	23.6	0.0
2015	24.1	19.8	23.1	26.3	0.0
2016	24.1	—	—	—	—
2017	32.4	26.8	36.9	32.2	33.3
2018	42.6	40.4	49.6	40.7	0.0
2019	41.6	29.7	51.0	43.6	—
2020	38.7	37.3	41.7	38.0	—
2021	38.6	32.7	50.5	37.7	—
2022	38.5	30.7	45.6	39.7	—
2023	31.3	26.2	36.2	32.0	—
합계	33.9	29.6	40.6	35.1	7.1

심장질환은 지난 10년간은 10대와 90대에선 한 건도 처리된 이력이 없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50대로 35.7%(1,833건)였다. 뒤이어 60대, 40대가 많았는데 뇌혈관질환과 유사하게 2017년까지는 40대가 많았으나 이후 60대가 많아졌다.

심장질환은 100건 이상 처리된 30~70대에서 모두 30% 초중반의 승인율을 보였다. 그중 가장 승인율이 높았던 건 40대로 37.3%였다. 20대와 80대는 처리 건수가 적어 추이를 봐야겠으나, 20% 후반의 승인율로 분석됐다. 승인율의 추이는 50대가 총 승인율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긴 했으나, 30~70대 모두 총 승인율보다 항상 높거나, 낮은 연령대 없이 등락을 반복하였다.

〈표 83〉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546 (100)	0 (0.0)	15 (2.7)	68 (12.5)	144 (26.4)	173 (31.7)
2015	482 (100)	0 (0.0)	6 (1.2)	39 (8.1)	123 (25.5)	187 (38.8)
2016	482 (100)	0 (0.0)	14 (2.9)	55 (11.4)	124 (25.7)	158 (32.8)
2017	463 (100)	0 (0.0)	11 (2.4)	36 (7.8)	120 (25.9)	167 (36.1)
2018	528 (100)	0 (0.0)	8 (1.5)	46 (8.7)	124 (23.5)	185 (35.0)
2019	627 (100)	0 (0.0)	8 (1.3)	39 (6.2)	127 (20.3)	227 (36.2)
2020	574 (100)	0 (0.0)	4 (0.7)	36 (6.3)	105 (18.3)	206 (35.9)
2021	585 (100)	0 (0.0)	8 (1.4)	38 (6.5)	125 (21.4)	189 (32.3)
2022	520 (100)	0 (0.0)	8 (1.5)	26 (5.0)	120 (23.1)	169 (32.5)
2023	482 (100)	0 (0.0)	6 (1.2)	39 (8.1)	85 (17.6)	172 (35.7)
합계	5,289 (100)	0 (0.0)	88 (1.7)	422 (8.0)	1,197 (22.6)	1,833 (34.7)

〈표 83〉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46 (100)	113 (20.7)	32 (5.9)	1 (0.2)	0 (0.0)
2015	482 (100)	98 (20.3)	29 (6.0)	0 (0.0)	0 (0.0)
2016	482 (100)	100 (20.7)	29 (6.0)	2 (0.4)	0 (0.0)
2017	463 (100)	98 (21.2)	29 (6.3)	2 (0.4)	0 (0.0)
2018	528 (100)	131 (24.8)	29 (5.5)	5 (0.9)	0 (0.0)
2019	627 (100)	165 (26.3)	59 (9.4)	2 (0.3)	0 (0.0)
2020	574 (100)	166 (28.9)	53 (9.2)	4 (0.7)	0 (0.0)
2021	585 (100)	171 (29.2)	50 (8.5)	4 (0.7)	0 (0.0)
2022	520 (100)	150 (28.8)	43 (8.3)	4 (0.8)	0 (0.0)
2023	482 (100)	146 (30.3)	34 (7.1)	0 (0.0)	0 (0.0)
합계	5,289 (100)	1,338 (25.3)	387 (7.3)	24 (0.5)	0 (0.0)

〈표 84〉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27	–	5	17	42	40	17	6	0	–
2015	116	–	2	15	35	42	18	4	–	–
2016	116	–	3	15	43	38	13	4		–
2017	150	–	2	13	46	57	27	5	0	–
2018	225	–	2	23	58	80	55	6	1	–
2019	261	–	4	18	53	93	66	27	0	–
2020	222	–	1	11	47	82	56	23	2	–
2021	226	–	3	14	47	74	64	23	1	–
2022	200	–	3	6	44	58	70	16	3	–
2023	151	–	0	17	32	48	43	11	–	–
합계	1,794	–	25	149	447	612	429	125	7	–

〈표 85〉 심장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23.3	—	33.3	25.0	29.2	23.1	15.0	18.8	0.0	—
2015	24.1	—	33.3	38.5	28.5	22.5	18.4	13.8	—	—
2016	24.1	—	21.4	27.3	34.7	24.1	13.0	13.8	0.0	—
2017	32.4	—	18.2	36.1	38.3	34.1	27.6	17.2	0.0	—
2018	42.6	—	25.0	50.0	46.8	43.2	42.0	20.7	20.0	—
2019	41.6	—	50.0	46.2	41.7	41.0	40.0	45.8	0.0	—
2020	38.7	—	25.0	30.6	44.8	39.8	33.7	43.4	50.0	—
2021	38.6	—	37.5	36.8	37.6	39.2	37.4	46.0	25.0	—
2022	38.5	—	37.5	23.1	36.7	34.3	46.7	37.2	75.0	—
2023	31.3	—	0.0	43.6	37.6	27.9	29.5	32.4	—	—
합계	33.9	—	28.4	35.3	37.3	33.4	32.1	32.3	29.2	—

심장질환은 남성이 94.1%, 여성이 5.9% 처리 비율을 보였다. 여성은 2021년을 제외하고 보통 20~30건만 처리되었다.

〈표 86〉 심장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546 (100)	519 (95.1)	27 (4.9)
2015	482 (100)	455 (94.4)	27 (5.6)
2016	482 (100)	456 (94.6)	26 (5.4)
2017	463 (100)	435 (94.0)	28 (6.0)
2018	528 (100)	497 (94.1)	31 (5.9)
2019	627 (100)	597 (95.2)	30 (4.8)
2020	574 (100)	535 (93.2)	39 (6.8)
2021	585 (100)	542 (92.6)	43 (7.4)
2022	520 (100)	485 (93.3)	35 (6.7)
2023	482 (100)	455 (94.4)	27 (5.6)
합계	5,289 (100)	4,976 (94.1)	313 (5.9)

심장질환은 남성의 승인율이 여정보다 7.1%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남성의 최고 승인율은 2018년 43.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성의 경우 2021년 최고 48.8%를 기록하는 등 2016년 이후 큰 틀에서 상승하고 있다.

〈표 87〉 심장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127	124	3
2015	116	111	5
2016	116	114	2
2017	150	144	6
2018	225	217	8
2019	261	252	9
2020	222	213	9
2021	226	205	21
2022	200	189	11
2023	151	140	11
합계	1,794	1,709	85

〈표 88〉 심장질환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23.3	23.9	11.1
2015	24.1	24.4	18.5
2016	24.1	25.0	7.7
2017	32.4	33.1	21.4
2018	42.6	43.7	25.8
2019	41.6	42.2	30.0
2020	38.7	39.8	23.1
2021	38.6	37.8	48.8
2022	38.5	39.0	31.4
2023	31.3	30.8	40.7
합계	33.9	34.3	27.2

심장질환은 73.6%가 사망 관련 건이었고, 26.4%가 비 사망 신청 건이었다. 비율은 매년 다소 변화했으나, 비 사망 건은 100~200건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표 89〉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546 (100)	389 (71.2)	157 (28.8)
2015	482 (100)	358 (74.3)	124 (25.7)
2016	482 (100)	359 (74.5)	123 (25.5)
2017	463 (100)	361 (78.0)	102 (22.0)
2018	528 (100)	404 (76.5)	124 (23.5)
2019	627 (100)	437 (69.7)	190 (30.3)
2020	574 (100)	398 (69.3)	176 (30.7)
2021	585 (100)	451 (77.1)	134 (22.9)
2022	520 (100)	397 (76.3)	123 (23.7)
2023	482 (100)	337 (69.9)	145 (30.1)
합계	5,289 (100)	3,891 (73.6)	1,398 (26.4)

심장질환은 사망 관련 처리된 건이 비 사망 관련 건보다 승인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2016년 이전보다 이후 승인율이 높았다. 사망 관련 처리 건은 2019년을 제외하고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며, 비 사망 관련 처리 건은 반대로 2019년만 높았고 그 외에는 총 승인율보다 낮게 분석됐다.

〈표 90〉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Y	N
2014	127	100	27
2015	116	92	24
2016	116	95	21
2017	150	127	23
2018	225	182	43
2019	261	175	86
2020	222	165	57
2021	226	178	48
2022	200	159	41
2023	151	111	40
합계	1,794	1,384	410

〈표 91〉 심장질환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Y	N
2014	23.3	25.7	17.2
2015	24.1	25.7	19.4
2016	24.1	26.5	17.1
2017	32.4	35.2	22.5
2018	42.6	45.0	34.7
2019	41.6	40.0	45.3
2020	38.7	41.5	32.4
2021	38.6	39.5	35.8
2022	38.5	40.1	33.3
2023	31.3	32.9	27.6
합계	33.9	35.6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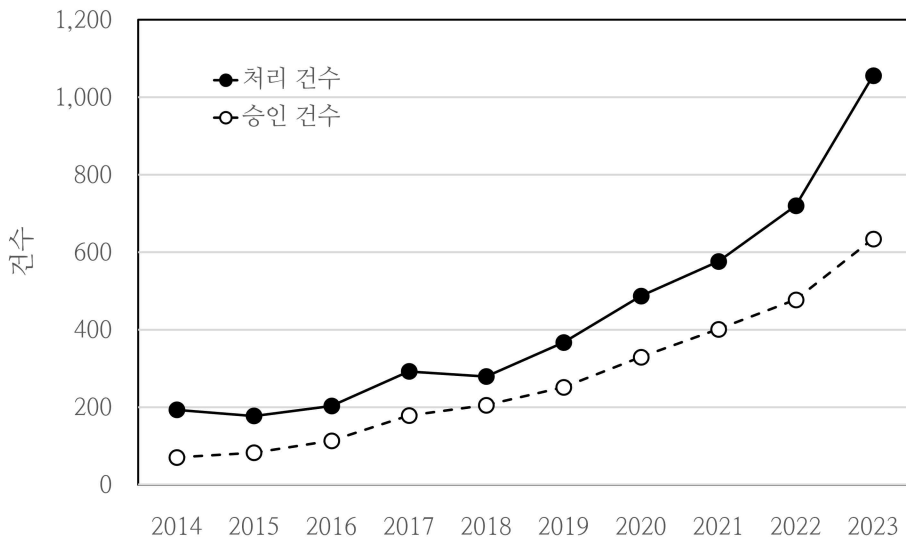
2.6. 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은 2023년 1,056건으로 2014년 193건 대비 5.47배 증가하여, 2014년 대비 증가 비율이 난청(22.4배), 호흡기질환(9.4배)에 이어 3번째로 큰 질환이다. 2018년 이후 점점 빠르게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승인을 63.0%(2,693건)로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외)에 이어 승인이 두 번째로 높다. 단, 전부 승인을(61.9%)은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에 가장 높다.

〈표 92〉 연도별 악성 신생물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193 (100)	70 (36.3)	123 (63.7)
2015	177 (100)	82 (46.3)	95 (53.7)
2016	203 (100)	113 (55.7)	90 (44.3)
2017	292 (100)	178 (61.0)	114 (39.0)
2018	279 (100)	205 (73.5)	74 (26.5)
2019	367 (100)	251 (68.4)	116 (31.6)
2020	487 (100)	329 (67.6)	158 (32.4)
2021	576 (100)	401 (69.6)	175 (30.4)
2022	720 (100)	477 (66.3)	243 (33.8)
2023	1,056 (100)	634 (60.0)	422 (40.0)
합계	4,350 (100)	2,740 (63.0)	1,610 (37.0)



[그림 9] 약성 신생물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약성 신생물은 제조업이 총 1,931건으로 44.4%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비중은 일부 감소했으나 건수는 약 4배 증가하였다. 기타의사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전체 처리 건수는 각각 5.7배, 9배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다른 업종의 처리 건수도 증가하여 비중은 유지되었다. 광업은 2014년 15건으로 7.8% 수준이었다가 2015년 38건(21.5%), 2016년 66건(32.5%)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처리 건수의 증가가 둔화하여 2023년에는 2014년 수준인 8.6%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이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27.4배 증가하였다. 2014년 3.6%였던 비중은 18.2%까지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며, 2020년 최고치인 89.3%의 승인율을 보였다. 광업은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업종이다. 2014년에는 총 승인율보다 57%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총 승인율의 상승하고, 광업이 2018년 97.4%의 높은 승인율을 보인 뒤 점차 낮아져 2023년 승인율은 74.7%이다. 기타의사업의 승인율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았다. 다만 꾸준히 승인율이 상승하고 있어 2023년에는 총 승인율과 1.2% 차이였다. 가장 많은 요양 신청 처리가 진행된 제조업은 2018년 최고 승인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점차 떨어지고 있다.

〈표 93〉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193 (100)	7 (3.6)	15 (7.8)	2 (1.0)	45 (23.3)	1 (0.5)
2015	177 (100)	11 (6.2)	38 (21.5)	2 (1.1)	37 (20.9)	0 (0.0)
2016	203 (100)	13 (6.4)	66 (32.5)	5 (2.5)	32 (15.8)	0 (0.0)
2017	292 (100)	20 (6.8)	80 (27.4)	2 (0.7)	43 (14.7)	2 (0.7)
2018	279 (100)	37 (13.3)	76 (27.2)	4 (1.4)	40 (14.3)	0 (0.0)
2019	367 (100)	33 (9.0)	57 (15.5)	7 (1.9)	62 (16.9)	0 (0.0)
2020	487 (100)	56 (11.5)	97 (19.9)	8 (1.6)	87 (17.9)	0 (0.0)
2021	576 (100)	86 (14.9)	74 (12.8)	3 (0.5)	98 (17.0)	1 (0.2)
2022	720 (100)	106 (14.7)	110 (15.3)	5 (0.7)	170 (23.6)	1 (0.1)
2023	1,056 (100)	192 (18.2)	91 (8.6)	5 (0.5)	255 (24.1)	1 (0.1)
합계	4,350 (100)	561 (12.9)	704 (16.2)	43 (1.0)	869 (20.0)	6 (0.1)

〈표 93〉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93 (100)	0 (0.0)	6 (3.1)	0 (0.0)	0 (0.0)	115 (59.6)	2 (1.0)
2015	177 (100)	0 (0.0)	5 (2.8)	0 (0.0)	0 (0.0)	83 (46.9)	1 (0.6)
2016	203 (100)	0 (0.0)	9 (4.4)	0 (0.0)	1 (0.5)	76 (37.4)	0 (0.0)
2017	292 (100)	0 (0.0)	10 (3.4)	0 (0.0)	1 (0.3)	134 (45.9)	0 (0.0)
2018	279 (100)	0 (0.0)	8 (2.9)	0 (0.0)	1 (0.4)	112 (40.1)	1 (0.4)
2019	367 (100)	0 (0.0)	19 (5.2)	0 (0.0)	1 (0.3)	187 (51.0)	0 (0.0)
2020	487 (100)	0 (0.0)	20 (4.1)	0 (0.0)	3 (0.6)	214 (43.9)	2 (0.4)
2021	576 (100)	0 (0.0)	35 (6.1)	2 (0.1)	1 (0.2)	276 (47.9)	2 (0.3)
2022	720 (100)	0 (0.0)	41 (5.7)	0 (0.0)	4 (0.6)	282 (39.2)	1 (0.1)
2023	1,056 (100)	1 (0.1)	54 (5.1)	2 (0.2)	1 (0.1)	452 (42.8)	2 (0.2)
합계	4,350 (100)	1 (0.0)	207 (4.8)	3 (0.1)	13 (0.3)	1,931 (44.4)	11 (0.3)

〈표 94〉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70	4	0	0	10	0	-	2	-	-	40	0
2015	82	8	31	0	7	0	-	4	-	-	32	0
2016	113	8	55	3	6	0	-	3	-	0	38	-
2017	178	13	75	1	10	1	-	6	-	0	72	-
2018	205	32	74	1	11	0	-	3	-	0	84	0
2019	251	28	50	1	30	0	-	8	0	0	134	-
2020	329	50	84	3	37	0	-	9	-	1	145	0
2021	401	70	67	2	56	0	-	22	-	1	183	0
2022	477	78	96	3	101	0	-	25	-	1	173	0
2023	634	139	68	0	150	0	1	23	0	0	253	0
합계	2,740	430	614	14	418	1	1	105	0	3	1,154	0

〈표 95〉 악성 신생물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36.3	57.1	93.3	0.0	22.2	0.0	0.0	33.3	0.0	0.0	34.8	0.0
2015	46.3	72.7	81.6	0.0	18.9	0.0	0.0	80.0	0.0	0.0	38.6	0.0
2016	55.7	61.5	83.3	60.0	18.8	0.0	0.0	33.3	0.0	0.0	50.0	0.0
2017	61.0	65.0	93.8	50.0	23.3	50.0	0.0	60.0	0.0	0.0	53.7	0.0
2018	73.5	86.5	97.4	25.0	27.5	0.0	0.0	37.5	0.0	0.0	75.0	0.0
2019	68.4	84.8	87.7	14.3	48.4	0.0	0.0	42.1	0.0	0.0	71.7	0.0
2020	67.6	89.3	86.6	37.5	42.5	0.0	0.0	45.0	33.3	0.0	67.8	0.0
2021	69.6	81.4	90.5	66.7	57.1	0.0	0.0	62.9	100	100	66.3	0.0
2022	66.3	73.6	87.3	60.0	59.4	0.0	0.0	61.0	25.0	0.0	61.3	0.0
2023	60.0	72.4	74.7	0.0	58.8	0.0	100	42.6	0.0	0.0	56.0	0.0
합계	63.0	76.6	87.2	32.6	48.1	16.7	100	50.7	0.0	0.0	59.8	0.0

악성 신생물 관련 산재 신청 처리가 가장 많이 된 규모는 소기업으로, 2017~2018년 두 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였다. 중기업의 경우 증가세가 꾸준하여 20% 초반의 처리 비율을 보였다. 대기업은 2017년, 2018년 가장 많이 처리된 규모이기도 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여 2023년에는 소기업과 200건 이상 처리량이 벌어졌다.

〈표 96〉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93 (100)	72 (37.3)	38 (19.7)	81 (42.0)	2 (1.0)
2015	177 (100)	62 (35.0)	33 (18.6)	81 (45.8)	1 (0.6)
2016	(203)	—	—	—	—
2017	292 (100)	138 (47.3)	55 (18.8)	99 (33.9)	0 (0.0)
2018	279 (100)	115 (41.2)	58 (20.8)	105 (37.6)	1 (0.4)
2019	367 (100)	141 (38.4)	68 (18.5)	158 (43.1)	0 (0.0)
2020	487 (100)	162 (33.3)	119 (24.4)	206 (42.3)	0 (0.0)
2021	576 (100)	189 (32.8)	119 (20.7)	268 (46.5)	0 (0.0)
2022	720 (100)	254 (35.3)	149 (20.7)	317 (44.0)	0 (0.0)
2023	1,056 (100)	305 (28.9)	216 (20.5)	535 (50.7)	0 (0.0)
합계	4,147 (100)	1,438 (34.7)	855 (20.6)	1,850 (44.6)	4 (0.1)

악성 신생물의 승인이 가장 높은 규모의 사업장은 대기업으로 66.3%의 승인을 보였다. 2022년 총 승인을보다 낮아지기 이전까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총 승인을보다 높은 규모였다. 중기업은 2015년, 2020년 총 승인을보다 높았으나 그 외 기간에는 총 승인을보다 낮게 유지됐다. 소기업은 2018년까지는 총 승인을보다 낮았으나, 2021년 총 승인을을 넘어섰고, 2022년부터는 가장 승인이 높은 규모가 되었다.

〈표 97〉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70	26	10	34	0
2015	82	32	16	34	0
2016	113	—	—	—	—
2017	178	93	31	54	—
2018	205	94	38	73	0
2019	251	104	35	112	—
2020	329	120	83	126	—
2021	401	137	74	190	—
2022	477	165	93	219	—
2023	634	182	128	324	—
합계	2,740	953	508	1,166	—

〈표 98〉 악성 신생물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36.3	36.1	26.3	42.0	0.0
2015	46.3	51.6	48.5	42.0	0.0
2016	55.7	—	—	—	—
2017	61.0	67.4	56.4	54.5	—
2018	73.5	81.7	65.5	69.5	0.0
2019	68.4	73.8	51.5	70.9	—
2020	67.6	74.1	69.7	61.2	—
2021	69.6	72.5	62.2	70.9	—
2022	66.3	65.0	62.4	69.1	—
2023	60.0	59.7	59.3	60.6	—
합계	63.0	66.3	59.4	63.0	0.0

악성 신생물이 가장 많이 처리된 연령대는 60대로 총 1,501건(34.5%)이었고, 뒤이어 50대, 70대 순이었다. 2014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부터 60대가 가장 많아졌다. 그 외 40대와 80대도 조금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악성 신생물은 고연령대에서 더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80대는 비교적 처리 건수는 적지만 총 83.6%의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다만 처리 건수의 증가 시기인 2018년 이후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70대는 2017~2022년까지 80%대의 높은 승인율을 보이다 2023년 70%로 떨어졌고, 60대는 70%대의 승인율에서 2020년부터 지속 감소하여 2023년 64.8%로 분석됐다. 50대는 승인율 52.7%로 2015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았고, 40대 이하는 40% 이하의 승인율로 분석됐다.

〈표 99〉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193 (100)	0 (0.0)	6 (3.1)	19 (9.8)	33 (17.1)	71 (36.8)
2015	177 (100)	0 (0.0)	5 (2.8)	19 (10.7)	27 (15.3)	50 (28.2)
2016	203 (100)	1 (0.5)	11 (5.4)	19 (9.4)	22 (10.8)	52 (25.6)
2017	292 (100)	0 (0.0)	4 (1.4)	21 (7.2)	31 (10.6)	87 (29.8)
2018	279 (100)	0 (0.0)	1 (0.4)	7 (2.5)	31 (11.1)	77 (27.6)
2019	367 (100)	0 (0.0)	3 (0.8)	26 (7.1)	45 (12.3)	101 (27.5)
2020	487 (100)	1 (0.2)	1 (0.2)	20 (4.1)	43 (8.8)	118 (24.2)
2021	576 (100)	0 (0.0)	12 (2.1)	25 (4.3)	48 (8.3)	108 (18.8)
2022	720 (100)	0 (0.0)	3 (0.4)	18 (2.5)	49 (6.8)	133 (18.5)
2023	1,056 (100)	0 (0.0)	9 (0.9)	32 (3.0)	98 (9.3)	268 (25.4)
합계	4,350 (100)	2 (0.0)	55 (1.3)	206 (4.7)	427 (9.8)	1,065 (24.5)

〈표 99〉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93 (100)	46 (23.8)	16 (8.3)	1 (0.5)	1 (0.5)
2015	177 (100)	38 (21.5)	29 (16.4)	9 (5.1)	0 (0.0)
2016	203 (100)	57 (28.1)	35 (17.2)	6 (3.0)	0 (0.0)
2017	292 (100)	84 (28.8)	50 (17.1)	14 (4.8)	1 (0.3)
2018	279 (100)	83 (29.7)	71 (25.4)	8 (2.9)	1 (0.4)
2019	367 (100)	109 (29.7)	62 (16.9)	19 (5.2)	2 (0.5)
2020	487 (100)	168 (34.5)	99 (20.3)	36 (7.4)	1 (0.2)
2021	576 (100)	226 (39.2)	123 (21.4)	32 (5.6)	2 (0.3)
2022	720 (100)	292 (40.6)	169 (23.5)	53 (7.4)	3 (0.4)
2023	1,056 (100)	398 (37.7)	207 (19.6)	42 (4.0)	2 (0.2)
합계	4,350 (100)	1,501 (34.5)	861 (19.8)	220 (5.1)	13 (0.3)

〈표 100〉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70	–	–	3	10	22	23	10	1	1
2015	82	–	–	0	9	24	16	25	8	0
2016	113	0	1	7	5	27	43	25	5	0
2017	178	–	–	9	11	43	60	44	11	–
2018	205	–	1	5	16	43	69	62	8	1
2019	251	–	1	11	27	56	84	53	17	2
2020	329	0	–	8	17	54	131	84	34	1
2021	401	–	4	7	23	64	168	105	29	1
2022	477	–	–	7	15	74	201	137	41	2
2023	634	–	–	8	34	154	258	150	30	0
합계	2,740	0	7	65	167	561	1,053	695	184	8

〈표 101〉 악성 신생물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36.3	–	0.0	15.8	30.3	31.0	50.0	62.5	100	100
2015	46.3	–	0.0	0.0	33.3	48.0	42.1	86.2	88.9	–
2016	55.7	0.0	9.1	36.8	22.7	51.9	75.4	71.4	83.3	–
2017	61.0	–	0.0	42.9	35.5	49.4	71.4	88.0	78.6	0.0
2018	73.5	–	100	71.4	51.6	55.8	83.1	87.3	100	100
2019	68.4	–	33.3	42.3	60.0	55.4	77.1	85.5	89.5	100
2020	67.6	0.0	0.0	40.0	39.5	45.8	78.0	84.8	94.4	100
2021	69.6	–	33.3	28.0	47.9	59.3	74.3	85.4	90.6	50.0
2022	66.3	–	0.0	38.9	30.6	55.6	68.8	81.1	77.4	66.7
2023	60.0	–	0.0	25.0	34.7	57.5	64.8	72.5	71.4	0.0
합계	63.0	0.0	12.7	31.6	39.1	52.7	70.2	80.7	83.6	61.5

악성 신생물은 남성이 총 3,662건, 여성이 688건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2020년부터 남성의 비율은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이 올라 2023년에는 여성이 20%를 넘겼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은 전체 근로자의 38.7%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암 발생의 48.2%는 여성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직업성 암의 신청과 처리가 실제보다 더 적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02〉 악성 신생물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193 (100)	173 (89.6)	20 (10.4)
2015	177 (100)	150 (84.7)	27 (15.3)
2016	203 (100)	168 (82.8)	35 (17.2)
2017	292 (100)	260 (89.0)	32 (11.0)
2018	279 (100)	253 (90.7)	26 (9.3)
2019	367 (100)	314 (85.6)	53 (14.4)
2020	487 (100)	437 (89.7)	50 (10.3)
2021	576 (100)	486 (84.4)	90 (15.6)
2022	720 (100)	587 (81.5)	133 (18.5)
2023	1,056 (100)	834 (79.0)	222 (21.0)
합계	4,350 (100)	3,662 (84.2)	688 (15.8)

남성의 승인율은 총 65.8%로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48.1%로 총 승인율보다 낮았다. 다만 여성의 승인율은 2014년 5%에서 2022년 63.2%까지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남성 승인율과 0.7%까지 좁혀졌다. 남성은 2018년까지는 승인율이 올랐으나 2021년 이후 승인율이 감소했다.

〈표 103〉 악성 신생물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70	69	1
2015	82	80	2
2016	113	105	8
2017	178	165	13
2018	205	196	9
2019	251	228	23
2020	329	312	17
2021	401	359	42
2022	477	393	84
2023	634	502	132
합계	2,740	2,409	331

〈표 104〉 악성 신생물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36.3	39.9	5.0
2015	46.3	53.3	7.4
2016	55.7	62.5	22.9
2017	61.0	63.5	40.6
2018	73.5	77.5	34.6
2019	68.4	72.6	43.4
2020	67.6	71.4	34.0
2021	69.6	73.9	46.7
2022	66.3	67.0	63.2
2023	60.0	60.2	59.5
합계	63.0	65.8	48.1

사망 관련 건이 총 1,399건(32.2%), 비 사망 관련 건이 2,951건(67.8%)으로 비 사망 관련 건이 약 2배 이상 많이 처리되었다. 사망 관련 건은 2017년 한때 47.3% 처리되어 비 사망 관련 건과 유사한 수치까지 올랐으나, 이후 절대 건수의 증가가 비 사망 관련 건보다 적어 2023년에는 27.5%까지 떨어졌다.

〈표 105〉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193 (100)	48 (24.9)	145 (75.1)
2015	177 (100)	53 (29.9)	124 (70.1)
2016	203 (100)	72 (35.5)	131 (64.5)
2017	292 (100)	138 (47.3)	154 (52.7)
2018	279 (100)	105 (37.6)	174 (62.4)
2019	367 (100)	128 (34.9)	239 (65.1)
2020	487 (100)	187 (38.4)	300 (61.6)
2021	576 (100)	168 (29.2)	408 (70.8)
2022	720 (100)	210 (29.2)	510 (70.8)
2023	1,056 (100)	290 (27.5)	766 (72.5)
합계	4,350 (100)	1,399 (32.2)	2,951 (67.8)

악성 신생물은 사망 또는 비 사망 건의 승인율의 차가 크지 않았다. 2018년까지는 사망 관련 건의 승인율이 더 높았으나 2019년부터는 비 사망 관련 건의 승인율이 더 높았다. 2021년 이후의 감소세도 사망 관련 건이 더 가팔랐다.

〈표 106〉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Y	N
2014	70	23	47
2015	82	26	56
2016	113	45	68
2017	178	89	89
2018	205	79	126
2019	251	85	166
2020	329	124	205
2021	401	117	284
2022	477	133	344
2023	634	156	478
합계	2,740	877	1,863

〈표 107〉 악성 신생물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Y	N
2014	36.3	47.9	32.4
2015	46.3	49.1	45.2
2016	55.7	62.5	51.9
2017	61.0	64.5	57.8
2018	73.5	75.2	72.4
2019	68.4	66.4	69.5
2020	67.6	66.3	68.3
2021	69.6	69.6	69.6
2022	66.3	63.3	67.5
2023	60.0	53.8	62.4
합계	63.0	62.7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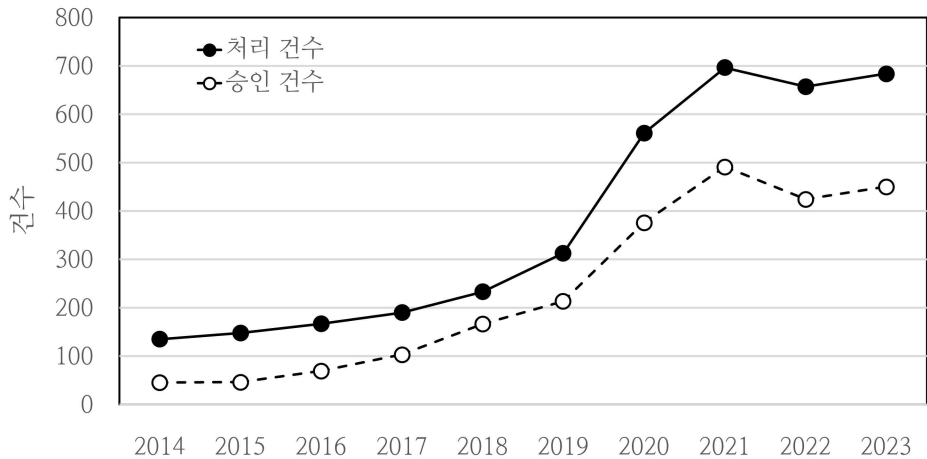
2.7. 정신질환/자해행위

정신질환/자해행위는 총 3,784건으로 2014년 대비 2023년 5.07배 증가하여 악성 신생물과 유사한 수치로 증가하였다. 2020년 한 해 전년 대비 1.79배 증가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2021년부터는 600건 중후반 정도 수치로 처리되고 있다.

정신질환/자해행위는 총 승인을 63%이다. 본 질환의 전체 승인 건수 1,361건 중 일부 승인은 1,022건으로 승인 건수 중 43% 수준이었다. 이 일부 승인은 전체 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4년 대비 2023년 처리 건수는 5.1배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승인 건은 10배 증가하여 승인율이 32.5%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1,000건 이상 처리된 질환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 108〉 연도별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135 (100)	45 (33.3)	90 (66.7)
2015	148 (100)	46 (31.1)	102 (68.9)
2016	167 (100)	69 (41.3)	98 (58.7)
2017	190 (100)	103 (54.2)	87 (45.8)
2018	233 (100)	166 (71.2)	67 (28.8)
2019	313 (100)	213 (68.1)	100 (31.9)
2020	561 (100)	376 (67.0)	185 (33.0)
2021	696 (100)	491 (70.5)	205 (29.5)
2022	657 (100)	424 (64.5)	233 (35.5)
2023	684 (100)	450 (65.8)	234 (34.2)
합계	3,784 (100)	2,383 (63.0)	1,401 (37.0)



[그림 1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처리 및 승인 건수 추이.

정신질환은 기타의사업이 전체 처리 건수의 59.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사업은 2014년 43%의 비중이었으나 2016년 처음 과반을 기록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66.2%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사업에는 각종 서비스업이 포함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20건을 처리하고 있고,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도 적은 건수이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은 2020년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며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21년 최다 건을 기록한 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승인율은 2014년 33.3%에서 2018년 71.2%로 최고 승인율을 기록한 후 60% 후반~7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은 건수가 적어 승인율의 변화 폭이 큰 편이나, 전체적으로 총 승인율과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2018년 최고 91.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이후 평균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건수는 적지만 승인율은 총 승인율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전 기간 총 승인율보다 낮은 승인율을 보였는데, 추세는 총 승인율과 비슷했다. 특히 기타의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제조업은 2018년 이후 총 승인율과 유사한 승인율을 보였다.

〈표 109〉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135 (100)	12 (8.9)	0 (0.0)	15 (11.1)	58(43.0)	0 (0.0)
2015	148 (100)	4 (2.7)	0 (0.0)	7 (4.7)	72(48.6)	0 (0.0)
2016	167 (100)	10 (6.0)	0 (0.0)	6 (3.6)	85 (50.9)	0 (0.0)
2017	190 (100)	13 (6.8)	2 (1.1)	15 (7.9)	98 (51.6)	0 (0.0)
2018	233 (100)	23 (9.9)	0 (0.0)	11 (4.7)	125 (53.6)	2 (0.9)
2019	313 (100)	14 (4.5)	1(0.3)	11 (3.5)	190 (60.7)	0 (0.0)
2020	561 (100)	14 (2.5)	0 (0.0)	33 (5.9)	322 (57.4)	1 (0.2)
2021	696 (100)	26 (3.7)	2 (0.3)	35 (5.0)	422 (60.6)	3 (0.4)
2022	657 (100)	26 (4.0)	0 (0.0)	29 (4.4)	412 (62.7)	1 (0.2)
2023	684 (100)	20 (2.9)	2 (0.3)	37 (5.4)	453 (66.2)	5 (0.7)
합계	3,784 (100)	162 (2.8)	7 (0.2)	199 (5.3)	2,237 (59.1)	12 (0.3)

〈표 109〉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135 (100)	0 (0.0)	16 (11.9)	0 (0.0)	1 (0.7)	33 (24.4)	0 (0.0)
2015	148 (100)	0 (0.0)	13 (8.8)	5 (100)	5 (3.4)	47 (31.8)	0 (0.0)
2016	167 (100)	0 (0.0)	24 (14.4)	1 (100)	4 (2.4)	36 (21.6)	0 (0.0)
2017	190 (100)	0 (0.0)	13 (6.8)	0 (0.0)	2 (1.1)	45 (23.7)	2 (1.1)
2018	233 (100)	0 (0.0)	16 (6.9)	0 (0.0)	2 (0.9)	52 (22.3)	2 (0.9)
2019	313 (100)	0 (0.0)	18 (5.8)	0 (0.0)	3 (1.0)	76 (24.3)	0 (0.0)
2020	561 (100)	0 (0.0)	52 (9.3)	0 (0.0)	4 (0.7)	135 (24.1)	0 (0.0)
2021	696 (100)	0 (0.0)	49 (7.0)	0 (0.0)	4 (0.6)	154 (22.1)	1 (0.1)
2022	657 (100)	0 (0.0)	62 (9.4)	0 (0.0)	4 (0.6)	122 (18.6)	1 (0.2)
2023	684 (100)	0 (0.0)	44 (6.4)	0 (0.0)	5 (0.7)	117 (17.1)	1 (0.1)
합계	3,784 (100)	0 (0.0)	307 (8.1)	6 (0.2)	29 (0.8)	817 (21.6)	7 (0.2)

〈표 11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45	8	-	4	20	-	-	6	-	0	7	-
2015	46	1	-	3	26	-	-	3	5	-	8	-
2016	69	4	-	2	33	-	-	12	1	3	14	-
2017	103	9	2	10	55	-	-	7	-	0	20	0
2018	166	21	-	9	85	2	-	12	-	1	36	-
2019	213	9	0	10	133	-	-	12	-	2	47	-
2020	376	11	-	23	217	1	-	35	-	3	86	-
2021	491	20	2	22	306	3	-	35	-	2	101	-
2022	424	16	-	19	276	1	-	42	-	1	69	-
2023	450	14	2	25	308	2	-	25	-	2	72	-
합계	2,383	113	6	127	1,459	9	-	189	6	14	460	0

〈표 111〉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33.3	66.7	-	26.7	34.5	-	-	37.5	-	0.0	21.2	-
2015	31.1	25.0	-	42.9	36.1	-	-	23.1	100	-	17.0	-
2016	41.3	40.0	-	33.3	38.8	-	-	50.0	100	75	38.9	-
2017	54.2	69.2	100	66.7	56.1	-	-	53.8	-	0.0	44.4	0.0
2018	71.2	91.3	-	81.8	68.0	100	-	75.0	-	50.0	69.2	-
2019	68.1	64.3	0.0	90.9	70.0	-	-	66.7	-	66.7	61.8	-
2020	67.0	78.6	-	69.7	67.4	100	-	67.3	-	75.0	63.7	-
2021	70.5	76.9	100	62.9	72.5	100	-	71.4	-	50.0	65.6	-
2022	64.5	61.5	-	65.5	67.0	100	-	67.7	-	25.0	56.6	-
2023	65.8	70.0	100	67.6	68.0	40.0	-	56.8	-	40.0	61.5	-
합계	63.0	69.8	85.7	63.8	65.2	75.0	-	61.6	100	48.3	56.3	0.0

정신질환/자해행위로 인한 처리는 소기업이 가장 많고, 대기업, 중기업 순이었다. 소기업은 2021년까지 처리 건수가 지속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중기업은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증가하여 전체 처리 건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표 112〉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135 (100)	60 (44.4)	26 (19.3)	49 (36.3)	0 (0.0)
2015	148 (100)	49 (33.1)	31 (20.9)	68 (45.9)	0 (0.0)
2016	(167)	—	—	—	
2017	190 (100)	67 (35.3)	34 (17.9)	87 (45.8)	2 (1.1)
2018	233 (100)	77 (33.0)	53 (22.7)	101 (43.3)	2 (0.9)
2019	313 (100)	101 (32.3)	87 (27.8)	125 (39.9)	0 (0.0)
2020	561 (100)	192 (34.2)	130 (23.2)	239 (42.6)	0 (0.0)
2021	696 (100)	227 (32.6)	188 (27.0)	281 (40.4)	0 (0.0)
2022	657 (100)	211 (32.1)	176 (26.8)	270 (41.1)	0 (0.0)
2023	684 (100)	236 (34.5)	183 (26.8)	265 (38.7)	0 (0.0)
합계	3,617 (100)	1,220 (33.7)	908 (25.1)	1,485 (41.1)	4 (0.1)

정신질환/자해행위는 승인율이 비교적 규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4년 총 승인율은 30%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전년 대비 10.2% 상승, 2017년 12.9% 상승하였고, 2018년에도 17% 승인율이 상승했으며, 이후 60~70%의 승인율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표 113〉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45	15	14	16	—
2015	46	12	6	28	—
2016	69	—	—	—	—
2017	103	38	20	45	0
2018	166	59	38	69	0
2019	213	63	62	88	—
2020	376	124	95	157	—
2021	491	162	126	203	—
2022	424	133	121	170	—
2023	450	153	125	172	—
합계	2,383	759	607	948	—

〈표 114〉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33.3	25.0	53.8	32.7	—
2015	31.1	24.5	19.4	41.2	—
2016	41.3	—	—	—	—
2017	54.2	56.7	58.8	51.7	0.0
2018	71.2	76.6	71.7	68.3	0.0
2019	68.1	62.4	71.3	70.4	—
2020	67.0	64.6	73.1	65.7	—
2021	70.5	71.4	67.0	72.2	—
2022	64.5	63.0	68.8	63.0	—
2023	65.8	64.8	68.3	64.9	—
합계	63.0	62.2	66.9	63.8	—

정신질환/자해행위는 40대가 1,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20대도 412건으로 총비율이 10%가 넘었다. 40대는 30%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50대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비율은 감소하였다. 20대, 30대, 60대는 처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30대는 증가 추세가 가팔라 단일 해로는 40대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정신질환/자해행위는 나이가 어릴수록 승인율이 높았는데 20~70대에서 순차적으로 승인율이 낮아졌다. 20대는 총 승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2015~2019년까지 상승한 후 잠시 70% 내외의 승인율을 보이다 2023년 상승하였고, 30대는 2020년까지 승인율이 상승하였다. 40대는 2023년 전년 대비 유일하게 승인율이 감소한 연령대였다.

〈표 115〉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135 (100)	0 (0.0)	8 (5.9)	30 (22.2)	54 (40.0)	38 (28.1)
2015	148 (100)	0 (0.0)	20 (13.5)	32 (21.6)	41 (27.7)	44 (29.7)
2016	167 (100)	0 (0.0)	12 (7.2)	46 (27.5)	50 (29.9)	42 (25.1)
2017	190 (100)	1 (0.5)	19 (10.0)	44 (23.2)	53 (27.9)	54 (28.4)
2018	233 (100)	0 (0.0)	21 (9.0)	60 (25.8)	77 (33.0)	63 (27.0)
2019	313 (100)	0 (0.0)	38 (12.1)	80 (25.6)	91 (29.1)	74 (23.6)
2020	561 (100)	0 (0.0)	57 (10.2)	137 (24.4)	175 (31.2)	137 (24.4)
2021	696 (100)	0 (0.0)	84 (12.1)	165 (23.7)	221 (31.8)	160 (23.0)
2022	657 (100)	0 (0.0)	60 (9.1)	172 (26.2)	208 (31.7)	174 (26.5)
2023	684 (100)	0 (0.0)	93 (13.6)	198 (28.9)	220 (32.2)	137 (20.0)
합계	3,784 (100)	1 (0.0)	412 (10.9)	964 (25.5)	1,190 (31.4)	923 (24.4)

〈표 115〉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135 (100)	3 (2.2)	2 (1.5)	0 (0.0)	0 (0.0)
2015	148 (100)	9 (6.1)	2 (1.4)	0 (0.0)	0 (0.0)
2016	167 (100)	14 (8.4)	3 (1.8)	0 (0.0)	0 (0.0)
2017	190 (100)	17 (8.9)	2 (1.1)	0 (0.0)	0 (0.0)
2018	233 (100)	10 (4.3)	2 (0.9)	0 (0.0)	0 (0.0)
2019	313 (100)	29 (9.3)	1 (0.3)	0 (0.0)	0 (0.0)
2020	561 (100)	55 (9.8)	0 (0.0)	0 (0.0)	0 (0.0)
2021	696 (100)	57 (8.2)	8 (1.1)	1 (0.1)	0 (0.0)
2022	657 (100)	37 (5.6)	6 (0.9)	0 (0.0)	0 (0.0)
2023	684 (100)	29 (4.2)	7 (1.0)	0 (0.0)	0 (0.0)
합계	3,784 (100)	260 (6.9)	33 (0.9)	1 (0.0)	0 (0.0)

〈표 116〉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45	—	4	13	12	16	—	—	—	—
2015	46	—	8	13	10	11	3	1	—	—
2016	69	—	6	16	22	16	7	2	—	—
2017	103	1	13	24	24	30	9	2	—	—
2018	166	—	14	43	53	47	8	1	—	—
2019	213	—	28	58	67	45	15	—	—	—
2020	376	—	40	104	119	85	28	—	—	—
2021	491	—	58	116	160	111	41	4	1	—
2022	424	—	42	107	143	107	21	4	—	—
2023	450	—	70	139	127	92	19	3	—	—
합계	2,383	1	283	633	737	560	151	17	1	—

〈표 117〉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33.3	—	50.0	43.3	22.2	42.1	0.0	0.0	—	—
2015	31.1	—	40.0	40.6	24.4	25.0	33.3	50.0	—	—
2016	41.3	—	50.0	34.8	44.0	38.1	50.0	66.7	—	—
2017	54.2	100	54.5	45.3	55.6	52.9	100	100	—	—
2018	71.2	—	66.7	71.7	68.8	74.6	80.0	50.0	—	—
2019	68.1	—	73.7	72.5	73.6	60.8	51.7	0.0	—	—
2020	67.0	—	70.2	75.9	68.0	62.0	50.9	—	—	—
2021	70.5	—	69.0	70.3	72.4	69.4	71.9	50.0	100	—
2022	64.5	—	70.0	62.2	68.8	61.5	56.8	66.7	—	—
2023	65.8	—	75.3	70.2	57.7	67.2	65.5	42.9	—	—
합계	63.0	100	68.7	65.7	61.9	60.7	58.1	51.5	100	—

정신질환/자해행위는 남성이 전체의 55.4%, 여성이 44.6%의 처리 비율을 보였다. 2014년 남성이 106건으로 78.5% 최고 비율을 보인 뒤 절대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여성은 2014년 21.5%의 비율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50% 이상 처리되고 있어 추후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처리 비율 44.6%는 연구 대상 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118〉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135 (100)	106 (78.5)	29 (21.5)
2015	148 (100)	101 (68.2)	47 (31.8)
2016	167 (100)	111 (66.5)	56 (33.5)
2017	190 (100)	131 (68.9)	59 (31.1)
2018	233 (100)	147 (63.1)	86 (36.9)
2019	313 (100)	181 (57.8)	132 (42.2)
2020	561 (100)	286 (51.0)	275 (49.0)
2021	696 (100)	379 (54.5)	317 (45.5)
2022	657 (100)	324 (49.3)	333 (50.7)
2023	684 (100)	330 (48.2)	354 (51.8)
합계	3,784 (100)	2,096 (55.4)	1,688 (44.6)

201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33~34%의 낮은 승인율이었다. 이후 2019년까지 여성은 매년 약 8%씩 승인율이 올랐고, 남성은 2016년부터 승인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2018년 한 해 남성의 승인율이 여성보다 높기는 했으나, 그 외 기간 여성의 승인율이 남성보다는 높았다. 연구 기간 합계 승인율은 남성이 57.8%, 여성이 49.4%였다.

〈표 119〉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45	35	10
2015	46	26	20
2016	69	41	28
2017	103	68	35
2018	166	108	58
2019	213	110	103
2020	376	173	203
2021	491	258	233
2022	424	194	230
2023	450	198	252
합계	2,383	1,211	1,172

〈표 120〉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33.3	33.0	34.5
2015	31.1	25.7	42.6
2016	41.3	36.9	50.0
2017	54.2	51.9	59.3
2018	71.2	73.5	67.4
2019	68.1	60.8	78.0
2020	67.0	60.5	73.8
2021	70.5	68.1	73.5
2022	64.5	59.9	69.1
2023	65.8	60.0	71.2
합계	63.0	57.8	69.4

사망 관련 처리 건은 2018년까지 20% 이상 처리 비율을 보였으나 2019년 처음 10%대로 내려왔고, 2021년을 제외하면 10% 초반으로 처리 비율이 감소하였다. 사망 관련 건의 처리 비율의 감소는 2021년 147건이 처리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14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데 반해, 비 사망 건은 약 6.6배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121〉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135 (100)	44 (32.6)	91 (67.4)
2015	148 (100)	44 (29.7)	104 (70.3)
2016	167 (100)	48 (28.7)	119 (71.3)
2017	190 (100)	60 (31.6)	130 (68.4)
2018	233 (100)	61 (26.2)	172 (73.8)
2019	313 (100)	60 (19.2)	253 (80.8)
2020	561 (100)	75 (13.4)	486 (86.6)
2021	696 (100)	147 (21.1)	549 (78.9)
2022	657 (100)	85 (12.9)	572 (87.1)
2023	684 (100)	85 (12.4)	599 (87.6)
합계	3,784 (100)	709 (18.7)	3,075 (81.3)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승인율은 2015~2018년까지 크게 상승했다. 총승인율은 37.9% 올랐고, 사망 관련 건은 2015년 15.9%에서 2018년 68.9%까지 53% 상승했다. 다만 이후 비 사망 관련 처리 건은 승인율이 60% 후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사망 관련 건은 2020년부터 낮아져 2023년 41.2%로 분석되었다.

〈표 122〉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Y	N
2014	45	11	34
2015	46	7	39
2016	69	10	59
2017	103	27	76
2018	166	42	124
2019	213	35	178
2020	376	49	327
2021	491	77	414
2022	424	38	386
2023	450	35	415
합계	2,383	331	2,052

〈표 123〉 정신질환/자해행위의 사망 여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Y	N
2014	33.3	25.0	37.4
2015	31.1	15.9	37.5
2016	41.3	20.8	49.6
2017	54.2	45.0	58.5
2018	71.2	68.9	72.1
2019	68.1	58.3	70.4
2020	67.0	65.3	67.3
2021	70.5	52.4	75.4
2022	64.5	44.7	67.5
2023	65.8	41.2	69.3
합계	63.0	46.7	66.7

2.8. 피부질환

피부질환은 연평균 103건 처리되었는데, 2021년을 제외하고 100건 내외로 처리되며, 특별히 연도에 따른 처리 건수의 증감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 승인율은 66.3%로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 상위 8개 질환 중 두 번째로 승인율이 높았다. 한때 전체 승인율 80%를 넘었으나 2022~2023년 낮아져 결과적으로 2014년 대비 1.1% 상승하였다.

〈표 124〉 연도별 피부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	불승인 (%)
2014	90 (100)	52 (57.8)	38 (42.2)
2015	83 (100)	40 (48.2)	43 (51.8)
2016	107 (100)	70 (65.4)	37 (34.6)
2017	79 (100)	53 (67.1)	26 (32.9)
2018	86 (100)	57 (66.3)	29 (33.7)
2019	104 (100)	67 (64.4)	37 (35.6)
2020	96 (100)	66 (68.8)	30 (31.3)
2021	175 (100)	141 (80.6)	34 (19.4)
2022	93 (100)	68 (73.1)	25 (26.9)
2023	112 (100)	66 (58.9)	46 (41.1)
합계	1,025 (100)	680 (66.3)	345 (33.7)

피부질환이 가장 많이 처리된 업종은 기타의사업으로 총 601건(58.6%) 처리되었고, 뒤이어 제조업 209건(20.4%), 건설업 91건(8.9%) 순이었다. 피부질환의 경우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80~100여 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어 처

리 건의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다. 2021년은 기타의사업이 매년 50~60건 처리되던 것과 다르게 111건으로 다수 처리된 영향으로 다른 연도보다 많이 처리되었다. 제조업은 10~20건, 건설업은 20건 미만 처리되고 있다.

피부질환의 업종별 승인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전체 추세로는 2012년 대비 상승하여 2022년 최고 75%의 승인율을 보였다. 총 승인율은 2016~2020년까지 60%대 승인율이었으므로 건설업은 타 업종대비 승인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사업은 처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으로 사실상 총 승인율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다만 2021년에는 총 승인율보다 6.8% 높았고, 이후 다시 총 승인율과 유사해졌다. 제조업은 총 승인율과 유사하지 않은 형태를 보였는데 2017~2019년 승인율이 상승한 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표 125〉 피부질환의 업종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사업	농업
2014	90 (100)	4 (4.4)	0 (0.0)	1 (1.1)	55 (61.1)	3 (3.3)
2015	83 (100)	8 (9.6)	0 (0.0)	1 (1.2)	52 (62.7)	2 (2.4)
2016	107 (100)	5 (4.7)	2 (1.9)	0 (0.0)	62 (57.9)	2 (1.9)
2017	79 (100)	13 (16.5)	0 (0.0)	0 (0.0)	40 (50.6)	5 (6.3)
2018	86 (100)	8 (9.3)	0 (0.0)	0 (0.0)	49 (57.0)	4 (4.7)
2019	104 (100)	14 (13.5)	0 (0.0)	1 (1.0)	57 (54.8)	0 (0.0)
2020	96 (100)	6 (6.3)	0 (0.0)	0 (0.0)	62 (64.6)	1 (1.0)
2021	175 (100)	15 (8.6)	0 (0.0)	1 (0.6)	111 (63.4)	5 (2.9)
2022	93 (100)	8 (8.6)	0 (0.0)	7 (7.5)	50 (53.8)	2 (2.2)
2023	112 (100)	10 (8.9)	0 (0.0)	0 (0.0)	63 (56.3)	6 (5.4)
합계	1,025 (100)	91 (8.9)	2 (0.2)	11 (1.1)	601 (58.6)	30 (2.9)

〈표 125〉 계속

연도	처리 건수	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90 (100)	1 (1.1)	6 (6.7)	7 (7.8)	0 (0.0)	13 (14.4)	0 (0.0)
2015	83 (100)	0 (0.0)	0 (0.0)	4 (4.8)	0 (0.0)	15 (18.1)	1 (1.2)
2016	107 (100)	0 (0.0)	1 (0.9)	10 (9.3)	0 (0.0)	24 (22.4)	0 (0.0)
2017	79 (100)	0 (0.0)	0 (0.0)	10 (12.7)	0 (0.0)	11 (13.9)	0 (0.0)
2018	86 (100)	0 (0.0)	1 (1.2)	5 (5.8)	0 (0.0)	19 (22.1)	0 (0.0)
2019	104 (100)	0 (0.0)	2 (1.9)	1 (1.0)	0 (0.0)	28 (26.9)	1 (1.0)
2020	96 (100)	0 (0.0)	5 (5.2)	0 (0.0)	0 (0.0)	22 (22.9)	0 (0.0)
2021	175 (100)	0 (0.0)	5 (2.9)	3 (1.7)	0 (0.0)	34 (19.4)	1 (0.6)
2022	93 (100)	0 (0.0)	6 (6.5)	1 (1.1)	0 (0.0)	19 (20.4)	0 (0.0)
2023	112 (100)	0 (0.0)	8 (7.1)	1 (0.9)	0 (0.0)	24 (21.4)	0 (0.0)
합계	1,025 (100)	1 (0.1)	34 (3.3)	42 (4.1)	0 (0.0)	209 (20.4)	3 (0.3)

〈표 126〉 피부질환의 업종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2	1	-	1	32	2	1	1	7	-	7	-
2015	40	3	-	1	24	0	-	-	4	-	8	0
2016	70	1	1	-	42	2	-	0	10	-	14	-
2017	53	7	-	-	27	3	-	-	10	-	6	-
2018	57	3	-	-	31	4	-	1	5	-	13	-
2019	67	8	-	0	37	-	-	0	1	-	21	0
2020	66	3	-	-	45	1	-	1	-	-	16	-
2021	141	11	-	0	97	5	-	1	3	-	24	0
2022	68	6	-	7	37	1	-	4	1	-	12	-
2023	66	7	-	-	38	5	-	2	1	-	13	-
합계	680	50	1	9	410	23	1	10	42	-	134	0

〈표 127〉 피부질환의 업종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건설업	광업	금융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	농업	어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임업	전기· 가스및 상수도 사업	제조업	미분류
2014	57.8	25.0	—	100	58.2	66.7	100	16.7	100	—	53.8	—
2015	48.2	37.5	—	100	46.2	0.0	—	—	100	—	53.3	0.0
2016	65.4	20.0	50.0	—	67.7	100	—	0.0	100	—	58.3	—
2017	67.1	53.8	—	—	67.5	60.0	—	—	100	—	54.5	—
2018	66.3	37.5	—	—	63.3	100	—	100	100	—	68.4	—
2019	64.4	57.1	—	0.0	64.9	—	—	—	100	—	75.0	0.0
2020	68.8	50.0	—	—	72.6	100	—	20.0	—	—	72.7	—
2021	80.6	73.3	—	0.0	87.4	100	—	20.0	100	—	70.6	0.0
2022	73.1	75.0	—	100	74.0	50.0	—	66.7	100	—	63.2	—
2023	58.9	70.0	—	—	60.3	83.3	—	25.0	100	—	54.2	—
합계	66.3	54.9	50.0	81.8	68.2	76.7	100	29.4	100	—	64.1	0.0

피부질환이 가장 많이 처리된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전 기간 과반 처리되었다. 2015년, 2017년에는 70% 이상 비율로 처리되었으며 2023년이 가장 낮은 50.9%였다. 대기업은 2017년까지 중기업보다 처리 건수가 적었으나 2019년부터는 20% 이상 처리되며 처리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규모가 되었다.

〈표 128〉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90 (100)	13 (14.4)	26 (28.9)	51 (56.7)	0 (0.0)
2015	83 (100)	9 (10.8)	13 (15.7)	60 (72.3)	1 (1.2)
2016	(107)	—	—	—	—
2017	79 (100)	9 (11.4)	13 (16.5)	57 (72.2)	0 (0.0)
2018	86 (100)	17 (19.8)	10 (11.6)	59 (68.6)	0 (0.0)
2019	104 (100)	26 (25.0)	17 (16.3)	61 (58.7)	0 (0.0)
2020	96 (100)	28 (29.2)	15 (15.6)	53 (55.2)	0 (0.0)
2021	175 (100)	55 (31.4)	25 (14.3)	95 (54.3)	0 (0.0)
2022	93 (100)	23 (24.7)	17 (18.3)	53 (57.0)	0 (0.0)
2023	112 (100)	31 (27.7)	24 (21.4)	57 (50.9)	0 (0.0)
합계	918 (100)	211 (23.0)	160 (17.4)	546 (59.5)	1 (0.1)

피부질환에서 가장 승인율이 높은 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으로 총 71.1% 승인되었고, 소기업이 가장 낮은 64.3%였다. 2021년 이후 모든 규모 사업장은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4년에 대기업은 승인율 30.8%에 그쳤으나, 2021년까지 상승세로 최대 87.3%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감소하여 67.7%로 분석됐으나 다른 규모 사업장보다는 높은 수치였다. 중기업은 2017년 승인율이 상승한 후 70% 후반에서 80%의 승인율을 보이다 2021년 84%까지 올랐다. 다만, 이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가장 낮은 45.8%의 승인율을 보였다.

〈표 129〉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2	4	15	33	-
2015	40	4	7	29	0
2016	70	-	-	-	-
2017	53	5	10	38	-
2018	57	12	8	37	-
2019	67	18	13	36	-
2020	66	19	12	35	-
2021	141	48	21	72	-
2022	68	19	12	37	-
2023	66	21	11	34	-
합계	680	150	109	351	0

〈표 130〉 피부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미분류
2014	57.8	30.8	57.7	64.7	-
2015	48.2	44.4	53.8	48.3	0.0
2016	65.4	-	-	-	-
2017	67.1	55.6	76.9	66.7	-
2018	66.3	70.6	80.0	62.7	-
2019	64.4	69.2	76.5	59.0	-
2020	68.8	67.9	80.0	66.0	-
2021	80.6	87.3	84.0	75.8	-
2022	73.1	82.6	70.6	69.8	-
2023	58.9	67.7	45.8	59.6	-
합계	66.3	71.1	68.1	64.3	0.0

피부질환의 처리 건수는 5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총 289건(28.2%) 처리되었고 뒤이어 60대가 265건(25.9%) 처리되었다. 20~40대도 10% 이상 처리되었다. 이 기간 특정 연령대의 증가나 감소가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양으로 처리되었다.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70대로, 총 승인율은 80.9%였다. 70대의 승인율은 각 연도의 변동 폭은 컸으나 2015년, 2020년을 제외하곤 총 승인율보다는 높았다. 두 번째는 20대로 2019년까지 대체로 총 승인율보다 높았는데, 2021년 이후 총 승인율보다 낮아졌다. 60대는 2018년, 2019년 승인율이 감소하면서 총 승인율보다 낮았지만, 2020년부터 다시 총 승인율보다는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대체로 피부질환은 절대 건수의 부족으로 승인율의 변동 폭이 큰 편이었다.

〈표 131〉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4	90 (100)	0 (0.0)	4 (4.4)	9 (10.0)	13 (14.4)	29 (32.2)
2015	83 (100)	0 (0.0)	6 (7.2)	13 (15.7)	17 (20.5)	26 (31.3)
2016	107 (100)	2 (1.9)	13 (12.1)	10 (9.3)	18 (16.8)	25 (23.4)
2017	79 (100)	1 (1.3)	8 (10.1)	10 (12.7)	7 (8.9)	21 (26.6)
2018	86 (100)	0 (0.0)	6 (7.0)	13 (15.1)	12 (14.0)	26 (30.2)
2019	104 (100)	0 (0.0)	22 (21.2)	10 (9.6)	20 (19.2)	27 (26.0)
2020	96 (100)	0 (0.0)	6 (6.3)	10 (10.4)	18 (18.8)	36 (37.5)
2021	175 (100)	0 (0.0)	19 (10.9)	17 (9.7)	27 (15.4)	42 (24.0)
2022	93 (100)	0 (0.0)	9 (9.7)	14 (15.1)	19 (20.4)	20 (21.5)
2023	112 (100)	0 (0.0)	10 (8.9)	14 (12.5)	14 (12.5)	37 (33.0)
합계	1,025 (100)	3 (0.3)	103 (10.0)	120 (11.7)	165 (16.1)	289 (28.2)

〈표 131〉 계속

연도	처리 건수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90 (100)	26 (28.9)	7 (7.8)	2 (2.2)	0 (0.0)
2015	83 (100)	15 (18.1)	4 (4.8)	2 (2.4)	0 (0.0)
2016	107 (100)	32 (29.9)	6 (5.6)	1 (0.9)	0 (0.0)
2017	79 (100)	26 (32.9)	5 (6.3)	1 (1.3)	0 (0.0)
2018	86 (100)	23 (26.7)	6 (7.0)	0 (0.0)	0 (0.0)
2019	104 (100)	17 (16.3)	5 (4.8)	3 (2.9)	0 (0.0)
2020	96 (100)	21 (21.9)	5 (5.2)	0 (0.0)	0 (0.0)
2021	175 (100)	52 (29.7)	17 (9.7)	1 (0.6)	0 (0.0)
2022	93 (100)	24 (25.8)	7 (7.5)	0 (0.0)	0 (0.0)
2023	112 (100)	29 (25.9)	6 (5.4)	2 (1.8)	0 (0.0)
합계	1,025 (100)	265 (25.9)	68 (6.6)	12 (1.2)	0 (0.0)

〈표 132〉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2	—	3	5	7	13	16	7	1	—
2015	40	—	2	5	13	7	10	1	2	—
2016	70	1	10	5	9	15	23	6	1	—
2017	53	1	6	6	2	12	21	4	1	—
2018	57	—	6	9	5	17	15	5	—	—
2019	67	—	20	7	12	12	10	4	2	—
2020	66	—	4	10	10	25	15	2	—	—
2021	141	—	16	12	22	31	43	16	1	—
2022	68	—	6	11	13	12	20	6	—	—
2023	66	—	5	10	6	20	20	4	1	—
합계	680	2	78	80	99	164	193	55	9	—

〈표 133〉 피부질환의 연령대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2014	57.8	—	75.0	55.6	53.8	44.8	61.5	100	50.0	—
2015	48.2	—	33.3	38.5	76.5	26.9	66.7	25.0	100	—
2016	65.4	50.0	76.9	50.0	50.0	60.0	71.9	100	100	—
2017	67.1	100	75.0	60.0	28.6	57.1	80.8	80.0	100	—
2018	66.3	—	100	69.2	41.7	65.4	65.2	83.3	—	—
2019	64.4	—	90.9	70.0	60.0	44.4	58.8	80.0	66.7	—
2020	68.8	—	66.7	100	55.6	69.4	71.4	40.0	—	—
2021	80.6	—	84.2	70.6	81.5	73.8	82.7	94.1	100	—
2022	73.1	—	66.7	78.6	68.4	60.0	83.3	85.7	—	—
2023	58.9	—	50.0	71.4	42.9	54.1	69.0	66.7	50.0	—
합계	66.3	66.7	75.7	66.7	60.0	56.7	72.8	80.9	75.0	—

피부질환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많이 처리되었다. 남성은 2018년 최대 74.4%의 비율로 처리되었는데 이후 감소세로 2023년 60.7%까지 비율이 감소했고, 여성의 처리 건수 비율은 39.3%까지 상승하였다.

〈표 134〉 피부질환의 성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남성	여성
2014	90 (100)	56 (62.2)	34 (37.8)
2015	83 (100)	48 (57.8)	35 (42.2)
2016	107 (100)	65 (60.7)	42 (39.3)
2017	79 (100)	55 (69.6)	24 (30.4)
2018	86 (100)	64 (74.4)	22 (25.6)
2019	104 (100)	70 (67.3)	34 (32.7)
2020	96 (100)	60 (62.5)	36 (37.5)
2021	175 (100)	110 (62.9)	65 (37.1)
2022	93 (100)	58 (62.4)	35 (37.6)
2023	112 (100)	68 (60.7)	44 (39.3)
합계	1,025 (100)	654 (63.8)	371 (36.2)

여성은 총 승인율 71.7%, 남성은 63.3%로 여성의 승인율이 더 높았다. 남성은 2015~2018년 승인율이 상승하였고, 여성은 2016년 이후 승인율이 낮아져 남성이 2018~2019년 한 때 여성보다 승인율이 높았다. 이후 여성의 승인율이 다시 상승하여 2023년에는 15.3% 차이로 여성의 승인율이 높았다.

〈표 135〉 피부질환의 성별 승인 건수

연도	승인 건수	남성	여성
2014	52	27	25
2015	40	20	20
2016	70	38	32
2017	53	36	17
2018	57	44	13
2019	67	46	21
2020	66	37	29
2021	141	88	53
2022	68	42	26
2023	66	36	30
합계	680	414	266

〈표 136〉 피부질환의 성별 승인율

연도	총 승인율	남성	여성
2014	57.8	48.2	73.5
2015	48.2	41.7	57.1
2016	65.4	58.5	76.2
2017	67.1	65.5	70.8
2018	66.3	68.8	59.1
2019	64.4	65.7	61.8
2020	68.8	61.7	80.6
2021	80.6	80.0	81.5
2022	73.1	72.4	74.3
2023	58.9	52.9	68.2
합계	66.3	63.3	71.7

피부질환은 연간 사망 관련 건이 10건 미만 처리되었으며, 총 승인율은 비 사망 관련 건과 동일하였다.

〈표 137〉 피부질환의 사망 여부별 처리 건수(%)

연도	처리 건수	Y	N
2014	90 (100)	4 (4.4)	86 (95.6)
2015	83 (100)	0 (0.0)	83 (100)
2016	107 (100)	2 (1.9)	105 (98.1)
2017	79 (100)	3 (3.8)	76 (96.2)
2018	86 (100)	4 (4.7)	82 (95.3)
2019	104 (100)	6 (5.8)	98 (94.2)
2020	96 (100)	1 (1.0)	95 (99.0)
2021	175 (100)	1 (0.6)	174 (99.4)
2022	93 (100)	0 (0.0)	93 (100)
2023	112 (100)	1 (0.9)	111 (99.1)
합계	1,025 (100)	22 (2.1)	1,003 (97.9)

2.9. 그 외 질환

그 외 지난 10년간 1,000건 미만 처리된 질환으로는 독성감염, 석면폐증, 일사병/열사병/화상/동상, 진동으로 인한 증상, 기타 간질환, 안면신경 마비, 안질환,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진폐 등이 있다. 본 질환들은 절대 처리 건수가 적어 전체적인 승인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독성감염은 총 486건 중 전체 승인 69.8%, 그중 전부 승인 66.5%, 일부 승인 3.3%이었으며, 불승인 30.2%였다. 일부 승인이 10건 또는 10% 이상으

로 분석된 연도는 없었다. 2018년까지 50~60%대의 승인율을 보이다 2019년 한 해 48.7%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80%까지 상승하여 승인율 변동이 컸다. 2021년 80.2%로 최고 승인율을 보인 후 2023년 70.2%까지 승인율이 낮아졌다.

〈표 138〉 연도별 독성감염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불승인(%)
			전부 승인	일부 승인	
2014	25 (100)	13 (52.0)	13 (52.0)	0 (0.0)	12 (48.0)
2015	35 (100)	23 (65.7)	23 (65.7)	0 (0.0)	12 (34.3)
2016	35 (100)	21 (60.0)	19 (54.3)	2 (5.7)	14 (40.0)
2017	27 (100)	16 (59.3)	16 (59.3)	0 (0.0)	11 (40.7)
2018	32 (100)	21 (65.6)	18 (56.3)	3 (9.4)	11 (34.4)
2019	39 (100)	19 (48.7)	19 (48.7)	0 (0.0)	20 (51.3)
2020	70 (100)	56 (80.0)	54 (77.1)	2 (2.9)	14 (20.0)
2021	81 (100)	65 (80.2)	57 (70.4)	8 (9.9)	16 (19.8)
2022	95 (100)	72 (75.8)	72 (75.8)	0 (0.0)	23 (24.2)
2023	47 (100)	33 (70.2)	32 (68.1)	1 (2.1)	14 (29.8)
합계	486 (100)	339 (69.8)	323 (66.5)	16 (3.3)	147 (30.2)

석면폐증은 근로복지공단 분류 기준으로는 2014~2016년에는 이 분류로 처리된 건이 없었으나, 일부 호흡기질환에 포함되어 처리된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서의 분류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2017년 22건 이후 지속 증가하여 총 443건이 처리되었다. 전부 승인 41.8%, 일부 승인 6.1%, 불승인 52.1%로 불승인된 비율이 더 높았다. 2017년에는 전체 승인율 72.7%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2년부터는 승인율이 30대로 낮아졌다.

〈표 139〉 연도별 석면폐증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계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	—	—	—	—
2015	—	—	—	—	—
2016	—	—	—	—	—
2017	22 (100)	16 (72.7)	16 (72.7)	0 (0.0)	6 (27.3)
2018	44 (100)	27 (61.4)	24 (54.5)	3 (6.8)	17 (38.6)
2019	73 (100)	46 (63.0)	39 (53.4)	7 (9.6)	27 (37.0)
2020	51 (100)	27 (52.9)	23 (45.1)	4 (7.8)	24 (47.1)
2021	89 (100)	36 (40.4)	29 (32.6)	7 (7.9)	53 (59.6)
2022	78 (100)	28 (35.9)	25 (32.1)	3 (3.8)	50 (64.1)
2023	86 (100)	32 (37.2)	29 (33.7)	3 (3.5)	54 (62.8)
합계	443 (100)	212 (47.9)	185 (41.8)	27 (6.1)	231 (52.1)

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으로 인한 요양 신청은 2015년까지 20건 미만이었으나 소량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연간 64건 처리되었다. 전부 승인 66.4%, 일부 승인 8.8%, 불승인 24.8%였다. 2015년을 제외하고 6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다. 2019년 최고 88.9%의 승인율을 기록한 뒤 2020년 67.5%로 21.4% 하락했는데, 다시 승인율이 올라 81.3%까지 승인율이 올랐다.

〈표 140〉 연도별 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계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승인		
2014	12 (100)	8 (66.7)	7 (58.3)	1 (8.3)	4 (33.3)
2015	15 (100)	6 (40.0)	5 (33.3)	1 (6.7)	9 (60.0)
2016	28 (100)	19 (67.9)	18 (64.3)	1 (3.6)	9 (32.1)
2017	31 (100)	25 (80.6)	24 (77.4)	1 (3.2)	6 (19.4)
2018	56 (100)	44 (78.6)	38 (67.9)	6 (10.7)	12 (21.4)
2019	45 (100)	40 (88.9)	35 (77.8)	5 (11.1)	5 (11.1)
2020	40 (100)	27 (67.5)	23 (57.5)	4 (10.0)	13 (32.5)
2021	54 (100)	39 (72.2)	35 (64.8)	4 (7.4)	15 (27.8)
2022	54 (100)	40 (74.1)	35 (64.8)	5 (9.3)	14 (25.9)
2023	64 (100)	52 (81.3)	45 (70.3)	7 (10.9)	12 (18.8)
합계	399 (100)	300 (75.2)	265 (66.4)	35 (8.8)	99 (24.8)

진동으로 인한 증상은 2015년 117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처리 건수가 감소하여 2019년부터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승인을 82.9%로 높은 승인율을 보였으나 2015년 41%, 2018년 15.8% 등 승인율이 낮아졌다. 다만 2019년 이후 처리된 24건 중 15건이 승인되어 이 기간 전체 승인율은 62.5%이다. 지난 10년간 전부 승인은 37.2%, 일부 승인 6.4%, 불승인 56.4%였다.

〈표 141〉 연도별 진동으로 인한 증상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76 (100)	63 (82.9)	56 (73.7)	7 (9.2)	13 (17.1)
2015	117 (100)	48 (41.0)	43(36.8)	5 (4.3)	69 (59.0)
2016	101 (100)	21 (20.8)	17 (16.8)	4 (4.0)	80 (79.2)
2017	39 (100)	14 (35.9)	10 (25.6)	4 (10.3)	25 (64.1)
2018	19 (100)	3 (15.8)	1 (5.3)	2 (10.5)	16 (84.2)
2019	1 (100)	1 (100)	1 (100)	0 (0.0)	0 (0.0)
2020	5 (100)	3 (60.0)	2 (40.0)	1 (20.0)	2 (40.0)
2021	4 (100)	4 (100)	3(75.0)	1 (25.0)	0 (0.0)
2022	8 (100)	4 (50.0)	4 (50.0)	0 (0.0)	4 (50.0)
2023	6 (100)	3 (50.0)	3 (50.0)	0 (0.0)	3 (50.0)
합계	376 (100)	164 (43.6)	140 (37.2)	24 (6.4)	212 (56.4)

기타 간질환은 전부 승인 45.9%, 일부 승인 1.9%, 불승인 52.2%였다. 2016년 40.9%를 제외하고 2019년까지는 30% 이하의 승인율을 보였다. 2020년 46.2%까지 승인율이 상승한 뒤 2022년 81.8%로, 승인율이 약 2배씩 상승하였다.

〈표 142〉 연도별 기타 간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32 (100)	4 (12.5)	3 (9.4)	1 (3.1)	28 (87.5)
2015	34 (100)	7 (20.6)	4 (11.8)	3 (8.8)	27 (79.4)
2016	22 (100)	9 (40.9)	8 (36.4)	1 (4.5)	13 (59.1)
2017	20 (100)	6 (30.0)	6 (30.0)	0(0.0)	14 (70.0)
2018	25 (100)	5 (20.0)	5 (20.0)	0 (0.0)	20 (80.0)
2019	25 (100)	7 (28.0)	7 (28.0)	0 (0.0)	18 (72.0)
2020	26 (100)	12 (46.2)	12 (46.2)	0 (0.0)	14 (53.8)
2021	23 (100)	11 (47.8)	10 (43.5)	1 (4.3)	12 (52.2)
2022	55 (100)	45 (81.8)	45 (81.8)	0 (0.0)	10 (18.2)
2023	51 (100)	44 (84.6)	44 (84.6)	0 (0.0)	8 (15.4)
합계	314 (100)	150 (47.8)	144 (45.9)	6 (1.9)	103 (52.2)

안면신경 마비는 전체 승인율이 11.1%로 다른 질환에 비해 낮고, 일부 승인도 2명이 전부였다. 전부 승인은 10.5%, 일부 승인 0.7%, 불승인 88.9%였다. 매년 20~30여 건이 처리되고 있으나 10명 이상 승인된 연도는 없었다.

〈표 143〉 연도별 안면신경 마비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29 (100)	0 (0.0)	0 (0.0)	0 (0.0)	29 (100)
2015	27 (100)	1 (3.7)	1 (3.7)	0 (0.0)	26 (96.3)
2016	20 (100)	2 (10.0)	2 (10.0)	0 (0.0)	18 (90.0)
2017	20 (100)	2 (10.0)	2 (10.0)	0 (0.0)	18 (90.0)
2018	30 (100)	6 (20.0)	6 (20.0)	0 (0.0)	24 (80.0)
2019	26 (100)	2 (7.7)	2 (7.7)	0 (0.0)	24 (92.3)
2020	27 (100)	1 (3.7)	1 (3.7)	0 (0.0)	26 (96.3)
2021	37 (100)	5 (13.5)	5 (13.5)	0 (0.0)	32 (86.5)
2022	41 (100)	6 (14.6)	5 (12.2)	1 (2.4)	35 (85.4)
2023	30 (100)	7 (23.3)	6 (20.0)	1 (3.3)	23 (76.7)
합계	287 (100)	32 (11.1)	30 (10.5)	2 (0.7)	255 (88.9)

안질환은 2018년까지 20건 미만으로 처리되었으나 매년 소량씩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 승인율이 10% 미만이었으나 그 외 시기에는 최소 18.2%의 승인율을 보였다. 전체 승인율은 24.8%, 불승인율은 75.2%였다.

〈표 144〉 연도별 안질환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19 (100)	4 (21.1)	3 (15.8)	1 (5.3)	15 (78.9)
2015	16 (100)	0 (0.0)	0 (0.0)	0 (0.0)	16 (100)
2016	19 (100)	1 (5.3)	0 (0.0)	1 (5.3)	18 (94.7)
2017	11 (100)	2 (18.2)	2 (18.2)	0 (0.0)	9 (81.8)
2018	18 (100)	5 (27.8)	5 (27.8)	0 (0.0)	13 (72.2)
2019	25 (100)	5 (20.0)	5 (20.0)	0 (0.0)	20 (80.0)
2020	36 (100)	9 (25.0)	8 (22.2)	1 (2.8)	27 (75.0)
2021	35 (100)	12 (34.3)	10 (28.6)	2 (5.7)	23 (65.7)
2022	40 (100)	14 (35.0)	12 (30.0)	2 (5.0)	26 (65.0)
2023	51 (100)	15 (29.4)	12 (23.5)	3 (5.9)	36 (70.6)
합계	270 (100)	67 (24.8)	57 (21.1)	10 (3.7)	203 (75.2)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전체 승인율이 79.7%, 불승인율이 20.3%였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건 미만으로 적었다. 10건 이상 처리된 연도의 경우 승인율이 모두 승인율이 80%를 넘었다.

〈표 145〉 연도별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승인(%)			
		계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15 (100)	13 (86.7)	8 (53.3)	5 (33.3)	2 (13.3)
2015	11 (100)	11 (100)	10 (90.9)	1 (9.1)	0 (0.0)
2016	16 (100)	11 (68.8)	11 (68.8)	0 (0.0)	5 (31.3)
2017	12 (100)	9 (75.0)	9 (75.0)	0 (0.0)	3 (25.0)
2018	6 (100)	6 (100)	5 (83.3)	1 (16.7)	0 (0.0)
2019	7 (100)	5 (71.4)	4 (57.1)	1 (14.3)	2 (28.6)
2020	14 (100)	10 (71.4)	8 (57.1)	2 (14.3)	4 (28.6)
2021	16 (100)	13 (81.3)	9 (56.3)	4 (25.0)	3 (18.8)
2022	16 (100)	13 (81.3)	8 (50.0)	5 (31.3)	3 (18.8)
2023	5 (100)	3 (60.0)	2 (40.0)	1 (20.0)	2 (40.0)
합계	118 (100)	94 (79.7)	74 (62.7)	20 (16.9)	24 (20.3)

진폐는 일부 승인이 없는 유일한 질병으로 승인을 46.2%, 불승인을 53.8%였다. 2016년 이후 60% 이상 승인을 보이고 있었으나 2021년, 2023년 각각 18.2%, 23.1%의 낮은 승인을 보였다.

〈표 146〉 연도별 진폐의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결과

연도	처리 건수 (%)	계	승인(%) 승인	일부 승인	불승인(%)
2014	8 (100)	3 (37.5)	3 (37.5)	0 (0.0)	5 (62.5)
2015	7 (100)	3 (42.9)	3 (42.9)	0 (0.0)	4 (57.1)
2016	3 (100)	2 (66.7)	2 (66.7)	0 (0.0)	1 (33.3)
2017	10 (100)	6 (60.0)	6 (60.0)	0 (0.0)	4 (40.0)
2018	6 (100)	4 (66.7)	4 (66.7)	0 (0.0)	2 (33.3)
2019	6 (100)	4 (66.7)	4 (66.7)	0 (0.0)	2 (33.3)
2020	10 (100)	6 (60.0)	6 (60.0)	0 (0.0)	4 (40.0)
2021	11 (100)	2 (18.2)	2 (18.2)	0 (0.0)	9 (81.8)
2022	4 (100)	3 (75.0)	3 (75.0)	0 (0.0)	1 (25.0)
2023	13 (100)	3 (23.1)	3 (23.1)	0 (0.0)	10 (76.9)
합계	78 (100)	36 (46.2)	36 (46.2)	0 (0.0)	42 (53.8)

IV.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한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1차 처리된 176,50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심사 처리 건수와 승인율, 그리고 직업성 질환별로 세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난 10년간 직업성 질환의 심사 처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9,211건에서 2023년 31,666건으로 3.4배 증가하였다.

2. 직업성 질환의 승인 건수는 정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사 처리 건수는 9,211건에서 10,301건으로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2,975건에서 24,871건으로 1.9배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재보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 내지는 전환 등 산재보상의 확대 정책 기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증가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2022년도에는 28,796건, 2023년도에는 31,666건이 처리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산재보상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직업성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한 영향은 승인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47.7%에서 2016년 46.0%로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에는 59.6%, 2019년도 60.6%로 크게 증가했다.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은 2021년까지 소폭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3년도에는 57.9%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4. 질병별 산재 요양급여 심사 처리 건수는 근골격계질환 87,207건(일반 근골격계질환 54,258건, 척추질환 32,949건), 난청 34,635건, 호흡기질환 20,705건, 뇌혈관질환 15,525건, 심장질환 5,289건, 악성 신생물 4,350건, 정신질

환/자해행위 3,784건, 피부질환 1,025건 순이었다.

5. 지난 10년간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 변화도 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성 질환의 승인율은 약 47%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부터 60%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3년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6. 질병별 승인율도 전반적으로는 전체 직업병 승인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질병별로 증감 추세에 차이가 있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고 크게 증가한 것은 근골격계질환과 난청이었다. 일반 근골격계질환은 2014-2016년 57% 수준에서 2018-2021년에는 75%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척추질환은 55% 수준에서 2019년에는 70%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63% 수준으로 낮아졌다. 난청은 2014-2016년 6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69%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다시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른 직업성 질환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감 폭이 작거나 증가나 감소하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 (2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2).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2). 『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9).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을 최근 10년 이대 최대』. 울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21),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울산: 근로복지공단

선옥남. (2019).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직업성 암에 관한 분석 : 2001~2018년 산업재해 인정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소벤처기업부. (20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세종: 중소기업부

중앙암등록본부. (2024). 『2022 국가암등록통계』. 고양: 중앙암등록본부

ABSTRACT

A Study on the Approval of Occupational Disease Claim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rom 2014 to 2023

Kim, Sang-Min

Major in Industrial Hygiene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creased public awareness and demand, along with changes in governmental policies, on claims and approval rates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Over the past decade, significant shifts in societal pressure, government policy, and compensation criteria have influenced the landscape of workers' compensation. By analyzing data from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COMWEL),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and quantify these influences. The data analyzed include claims for occupational diseases reviewed and approved by K-COMWEL from 2014 to 2023. The results indicate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occupational disease cases reviewed and processed, with a 3.4-fold rise over the decade.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processed cases increased slightly

from 9,211 in 2014 to 10,301 in 2016. However,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number surged to 24,871 cases in 2021, likely due to policies aimed at expan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uch as easing the burden of proof for causal relationships. The upward trend continued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ith 31,666 cases processed in 2023. Since processed cases lag behind claims, this rise reflects an increase in claims driven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xpansive compensation policies.

Government policy changes are also evident in approval rate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approval rate stagnated, falling slightly from 47.7% in 2014 to 46.0% in 2016. However,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approval rate increased significantly, reaching 59.6% in 2018 and 60.6% in 2019. This level was maintained until 2021 but began to decline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falling to 57.9% in 2023.

Between 2014 and 2023, the number of processed cases by disease included: 87,207 musculoskeletal disease cases (54,258 general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32,949 spinal diseases), 34,635 hearing loss cases, 20,705 respiratory disease cases, 15,525 cerebrovascular disease cases, 5,289 heart disease cases, 4,350 malignant neoplasm cases, 3,784 mental illness/self-harm cases, and 1,025 skin disease cases.

Approval rate trends for occupational disease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2014–2016), the approval rate for occupational diseases hovered around 47%. This rate rose to over 60%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8–2021) but declined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falling to 57% in 2023.

Approval rates by disease type largely mirrored overall approval rate trends, though with some variations.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hearing

loss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and high approval rates. For general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approval rate rose from 57% during 2014–2016 to 75% during 2018–2021, before slightly declining. Spinal disease approvals increased from 55% to 70% in 2019, then fell to 63%. Hearing loss approvals dropped from 60% to 40% during 2014–2016 but rose after 2018, peaking at 69% in 2022 before falling to 60% in 2023. Other occupational diseases exhibited similar trends, with smaller fluctuations or delayed changes in approval rates.

【Keyword】 Occupational diseases, Worker’s compensation, Work related diseas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roval rate